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5호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음력 9월 2일 · 불기 2555년 · 주간)

온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며 사는 것이
'隨處作主 立處皆眞' 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주지없는 사찰 관리규정 마련

조계종 전체 사찰중 〈25%〉

조계종 중앙종회 제187회 임시종회 20개 현안 다뤄

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종법 제 · 개정과 포교원장 선출 등 2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폐회했다.

9월 19~20일 열린 임시종회는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구성된 이후 첫 종회로 각종 종법 개정이 20개에 달하는 현안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다뤄졌으며 종법 6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그동안 제정과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던 사찰의 등록과 관리의

> 공찰, 사설사암, 포교소 등에
> 현대식 수행처 '토굴' 포함
> 사찰 등록·관리 기준 마련
> –사찰법
>
> 종단개혁 후 출가했던 스님
> 4년 승랍 기산 공백 해소도
> 언제든 승적 회복 편의까지
> –승려법

기준이 되는 '사찰법'과 1994년 종단개혁 전후 출가자간 차이가 발생한 4년 승랍을 기산하는 '승려법'은 통과 여부에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 발의한 '사찰법'은 사찰재산관리에 대한 종헌의 세부법으로 조계종 사찰 등록 및 관리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사찰관련 모법 없이 각종 종법령으로 주지 역할과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사찰법'은 공찰,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사찰을 구분했으며 일부 사찰 기능을 하고 있던 스님들의 거주공간인 '토굴'도 사찰에 포함시켰다. 또 주지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찰 주지 임명 품신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계종 등록사찰 중 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사찰이 4분의 1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사설사암이란 실정에서 사찰관리인 임명과 사설사암 관리의 모법이 되는 사찰법 제정은 조계종 사찰 관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출가한 스님들과 이전 출가한 스님들 사이의 4년 승랍 기산 공백 논란도 '승려법' 개정을 통해 기본교육을 이수 후 기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단 기본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 개정된 승려법에서는 승려분한 미신고로 승적이 말소된 스님은 특별분한신고가 아니더라도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언제든지 승적 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종도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중앙종회는 재심호계위원으로는 정휴 종상 혜담 정안 스님을, 초심호계위원으로 세영 · 선법 스님을, 법규위원으로 도완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원로의원 인환 정관 암도 월탄 근일 스님의 특별전형 심사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불교시민단체들도 법안 개정을 환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일 논평을 내고 "법규위원회의 권한범위 확정과 승랍 기산문제 해결, 사찰관리 법적 근간 마련, 포교원장 선출 등 인사건의 원만 통과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에 대한 종회역할이 드러난 매우 고무적인 종회였다"고 평했다.

하지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중앙종회의원 불징계 특권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재촉구 했다. 관련 기사 2면

노덕현 기자



천년의 지혜 담은 그릇 한눈에

9월 20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을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 특별전의 개막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박물관과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도서관이 공동주관 하며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개막식 후 박물관 전시공간을 둘러보는 모습.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자승 스님 등 北 서열 2위 만나 환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단 지도자 공동 평양 방문

남북 교류 사상 최초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평화를 향한 남측 종교인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9월 21일 방북길에 나섰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내 2인자로 알려져 있다.

방북한 남측 종교계 인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 소속 종단지도자들이다.

북측에서는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철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이들을 반겼다.

남북 종교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남북 종교인 사이의 대화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등 통일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방북 전 인천공항에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갖고 있는 이질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방문은 남북의 이질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위법망구 정신으로 소임에 최선"

제6대 포교원장에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선출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에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19일 제187차 임시회에서 제6대 포교원장에 지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지원 스님 임기는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임기인 11월 12일부터 5년간이다.



지원 스님은 선출 직후 "제6대 포교원장으로 추천해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만장일치로 인준해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종단 포교발전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원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3월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칠장사, 법흥사, 삼보사 주지와 제9 · 14 · 15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노덕현 기자

합천 해인사서 대장경 천년 축제 개막

11월 6일까지 45일간 계속

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시작됐다. 대장경 진본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까지 45일간 계속된다.

합천 해인사와 경상남도, 합천군은 9월 23일 합천 해인사 일원에서 대장경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사전행사와 개막식 행사, 식후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전행사에서는 행위예술가인 강만홍 서울예대 교수의 대장경판을 이용한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본행사인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밀운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김황식 국무총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장경축전은 대장경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학술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주행사장내 대장경천년관에는 대장경전시실과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 경판과 국보 제206호 〈화엄경 변상도〉 경판 진본 2점 등을 전시한 보존과학실 등이 운영된다. 또, 해인사 인근에는 가야산 홍류동 계곡 6km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해인사 소리길'도 조성됐다.

이 외에도 행사에서는 대장경 이운행렬 퍼포먼스와 대장경 판각 · 인경 체험, 장경판전 모형조립 등 체험행사와 대장경 뮤지컬, 해외공연팀의 상설공연 등이 45일간 계속된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선언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協 종교평화선언 적극 지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가 추진 중인 종교평화선언(초안)에 조계종 교구본사 스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제1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종교평화선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냈다. 최종발표 때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화쟁위 총무위원인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은 "이번 선언은 종단 내적으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기조 아래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 것이고 밖으로는 종교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교 차원의 처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불교계 쾌거다. 불교계가 종교평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렇게 주도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잘 마무리돼 종교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종교평화 선언은 시대적 요청에 맞다. 종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나서야 하고 교구본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교평화선언(초안)은 중앙종단종회 교구본사 직영및직할교구 교역자 신도및포교단체 불교시민단체 종단협 등의 대중공사를 거치고 원로회의, 종정예하의 증명을 거쳐 완성된 후에는 총무원장 스님 주재로 종단 차원의 발표식을 개최한다. 관련 기사 2 · 3면

조동섭 기자

855호 CONTENTS

조계종 제187회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개정 내용 2
종교평화선언(초안) 토론회 박원순 변호사 출마의 변 3
인터뷰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4
현장속으로 해병대 전등사템플스테이 5



2011 빛고을 아카데미 개막 11
특집 · 종교간 대화 16 · 17





제187회 임시종회 재개정 법안 주요 내용

사찰 관리 및 승계 명문화
직영사찰관리인 임기보장
1995년 이후 4년 승랍추가
본사 주지 법계 종덕 이상
법계로만 교역직 자격 심사
법규위 행정 처분 관여 명시
종회의원 불징계권 유지

조계종 중앙종회(회장 보선)는 9월 19~20일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등 9개 재·개정안을 처리하고 2개 결의안을 도출했다.

[사찰법 재정]

'사찰법'은 공찰,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사찰을 구분했으며 일부 사찰 기능을 하고 있던 스님들의 거주공간인 '토굴'도 사찰에 포함시켰다. 또 주지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찰 주지 임명 품신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창건주 권리 승계문제는 창건주 권리자의 도제(법건당), 은사,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제 및 사형사제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된다.

신도가 창건주일 경우 그 권리는 조계종 승려에 한해 승계되며 사망시 공찰로 귀속되도록 했다. 창건주 권리자가 타종단으로 이적 또는 탈종하거나 임의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찰로 귀속된다.

중창주의 권리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과 중앙종회의장 추천 인사 2명, 호계원장 추천 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중창주심사위원회에서 중창주 인정 여부를 심사하며 중창주는 입적 시까지만 인정된다.

중창주 요건은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지(옛 절터) 복원 후 공찰 등록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 확립 △사설사암의 공찰로 등록 전환 △쇄락 및 피폐한 공찰 사격 및 역할의 현격히 격상에 한정했다.

종단 승인 없이 임의로 매매, 양도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가 내려지며 주지 추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가 처해진다.

[직영사찰법 개정]

직영사찰 관리인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직영사찰법이 개정됐다. 직영사찰 관리인은 업무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직영사찰 관리인은 중앙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직영사찰 지정도 종단 지침에 의해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 가능하며 미입주사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승려법 개정]

이와 함께 1995년 이후 4년간 승려 승랍기산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려법을 개정해 1995년 이후 사미, 사미계를 수지한 승려의 승랍기산은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하되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하도록 했다.

또 승려분한신고 미비로 승적이 말소된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말소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특별분한신고 제도는 폐지됐다. 또 부정확한 명칭으로 혼란을 불러온 예비승 명칭을 없애고 사미, 사미니 등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지방종정법 개정]

교구본사 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말사 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결정됐다.

[종무원법 개정]

이와 함께 주요 소임직을 결정하는 종무원법 또한 승랍과 세랍 자격을 삭제하고 법계로만 규정했다. 말사 재산관리인을 1개월 이내 파견하는데서 3개월 이내로 변경됐으며 명칭도 사찰관리인으로 변경됐다.

[법규위원회법 개정]

법규위원회는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 등의 종헌종법 위배여부 등을 심판하도록 돼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호계원의 징계심판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업무 등에 대해서도 법규위가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 처분의 경우 종헌과 종법에 위배되는 경우 대해 심판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규위원 자격을 강화해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에서 국장 이상 최소 2년의 재직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중앙종회의원 개정 부결]

중앙종회의원 징계 요건인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중앙종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 동의로 종회의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출석인원 54명 중 찬성 33명, 반대 21명.

[호계원법, 법인법 차기 이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각 원장과 위원의 자격 규정을 법계 규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또 사찰이나 스님이 설립한 법인 산하의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고 이후 관리에 대해 다루는 '법인법'과 중재조정합의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은 11월 열리는 제188회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인수중인 순천 선암사를 '제20교구본사'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안도 통과됐다. 선암사의 직영사찰 전환은 태고종과 협상이 마무리되도 교구본사로서의 위상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조계종 의례위원회가 결의한 한글 반야심경 표준의례를 동의했다.

[코엑스 39층 빌딩 건축 반대,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조계종 중앙종회는 결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과 봉은사 앞 코엑스내 39층 층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밖에 안건으로 상정된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결의문'은 종단과 행정안전부의 협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논의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42대원 성취로 극락정토를 만들자



봉은사 중창불사를 위한 관세음보살 42대원성취 다라니독송 3년 대정진기도 입재가 9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입재식에는 3500여 불자들이 참여해 다라니독송 정근에 동참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를 시작으로 매월 관음재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천수경 108독송과 관세음보살 42대 진언 기도다. 3년 6개월간 진행한다.

입재에 앞서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소참법문으로 "불법을 수행하는 도량이 어느 날부터인가 공원과 관광지가 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전락됐다"며 "봉은사를 다시 불법도량, 수행도량으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화 스님은 "기도를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모든 불보살님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며 "구호나 시위가 아닌 감동으로 하는 기도야말로 나와 이웃,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조선시대 '선종수사찰'로 불리는 등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 강남 지역이 개발되며 수행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쇠퇴했다. 봉은사의 기도 정진은 수행풍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가 발표한 봉은사 대웅전 정면의 39층 높이의 건물 신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도 닿아있다.

봉은사는 고층건물 신축으로 봉은사 조망권 침해 및 도량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보이며 강남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봉은사의 요청으로 제187회 임시종회에서는 신축계획안에 반대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스님은 "이 다라니 독송 기도의 동참 물결이 이어져 봉은사로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41개월 동안 기도가 원만하기 진행돼 불법이 넘치는 도량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 불자 한마음으로 평안하길 조계종 중앙종책 모임 화엄회(회장 성직 · 사진 오른쪽)와 법화회(회장 정념 · 사진 왼쪽)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 사진 가운데)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에 해외복지기금 미화 3만 달러(한화 3500만원)와 1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는 4월 '화엄·법화회 선서화전'을 통해 모연한 금액 중 일부이다. 화엄·법화회는 5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승가복지기금 1억원과 자비나눔기금 2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분담금 올려달라 vs 생수 팔아줄께

분담금 올려달라는 총무원에
수익사업 협조조건 동결 요청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원행)가 제18차 회의를 김제 금산사에서 9월 2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의장 원행 스님의 첫 주재회의로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주지 스님들은 제17차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또한 승려복지제도에 관한건과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분담금 조정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논산훈련소 신축불사 추진현황과 논산훈련소 훈련병 수계식 지원의 건, 종교평화선언에 관한 건이 토의됐다.



승려복지제도에 관한 토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스님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수혜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분담금 조정안 토의에서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주지 스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만 스님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세계불교도대회 개최와 관련해 종단부담금이 3억 5000여 만원에 달해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주지스님들은 분담금 일괄 인상안과 교구본사별 인상안, 종단달력과 생수판매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교구본사협의회 총무, 재무간사와 기획실장 스님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박구원 만평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
통도사 창건 제1366주년
개산문화대재
천년의 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창건 1366주년을 맞아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을 주제로 개산대재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11년 10월 5일(수) 10:30 설법전
예경의 장
가사배견 10월 1일 ~ 10월 5일
부도헌다 10월 4일
괘불이운 · 헌공 · 법요식 10월 5일
찬탄의 장
BTN 음악회 10월 1일
작은음악회 10월 1일 ~ 10월 4일
새싹의 장
영축사생대회 10월 2일
재롱잔치 10월 3일
나눔의 장
장터 · 체험행사 10월 1일 ~ 10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www.tongdosa.or.kr
전화 : (055) 382-7182 팩스 : (055) 382-7196

종교평화 선언 논란 뚜껑을 열었더니…

초안 발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사부대중 토론회가 9월 1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각 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초안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 진리관, 전법과 전교의 원칙, 아쇼카 왕의 인용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종교평화선언 초안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열린 진리관

초안 발표 후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화쟁위는 종교평화선언 초안에서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연기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가장 큰 문제는 종교는 절대적 신념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고 연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에서 불교적 관점이 빈약하고 기독교의 '바아르 선언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기독교식 열린 진리관은 제 종교의 하나님으로 귀결되나 불교에서 '신앙적으로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열린 진리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대해 조계종 교수 아사리 명법 스님은 "유가의 가족주의와 불교의 초세속주의는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유가의 효사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불교적으로 재형성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조차 고정된 것이기를 거부하는 불교적 정신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우리의 삶을 선한 쪽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남을 위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면 그것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힌두교이든 이슬람이든 다르마이자 진리로서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전법과 전교의 원칙

화쟁위는 종교평화선언문 초안에서 "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아직 기초가 약한 불자들을 염려한다면 포교 원력을 키우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전법이 개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재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학종 대표는 "이교도의 심장부까지 들어가 목숨을 건 전도를 행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쇼카왕의 인용

종교평화선언 초안은 아쇼카 왕의 활동을 인용하면서 종교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산 스님은 "아쇼카 왕의 인용은 내용상 이해를 돕는데 자연스럽겠으나 하나 전면에 부제로 내 세우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선언을 준비한 측의 고심은 인정하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종교평화선언을 하면서 특정 종교와 연관이 깊은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선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웃 종교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명법 스님은 아쇼카왕이 전쟁광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전쟁광이던 군주가 불교에 감화돼 전쟁을 그만두고 종교간 평화를 실천했다. 불교 정신을 실천한 탁월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주의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불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선양됐다는 의미다.

박기범 · 이은정 기자

"자책감 느껴 서울시장 출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청춘토크파티 참석



"현재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도 등록금, 취업문제로 고민 많을 것 같다."

9월 22일 서울 시립대에서 '청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청춘토크파티에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연유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말했다. 내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공적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자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시장 자리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탐내는 자리이지만, 솔직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독배고 형극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원순 후보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즐겁게 일하라고 응원해 줬다"라며 "신나고 즐겁지 않은 일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일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청년 대학생 대표를 명예 부시장으로 임명해 그들의 목소를 직접 듣는 것도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대중공의에 불교와 종단 미래 맡긴다

5일 수도권 활성화 논의 이어 12일 수익사업 진단 공청회

수도권 불교 활성화와 종단 수익사업을 진단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조계종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10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도권 불교의 문제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이 '수도권 불교의 현실과 과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지역 종교현황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포교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 이석심 교육원 교육차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에서 불교 신도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기획한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불교사회연구소, 수도권 각 사찰 실무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 직할교구의 위상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가져왔다. 또한 TF팀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한 효용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총무원 재무부는 12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이 '종단재정사업의 원칙과 방향' 장영욱 재무부 팀장이 '종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중앙종회 의원 제정 스님,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윤남진 NGO리서치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5월 31일 종단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책토론회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종책토론회에서는 종단 수익사업의 필요성과 원칙의 명확한 정립, 현재 수익사업의 진단,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됐다.

이번 공청회는 종단 실무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당시 종책토론회의 내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사부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예상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한국 불교 완성위해 북한 사찰 연구 필요

민추본·봉은사, 교류 활성화 토론 전문가들 자유로운 연구 강조

역사학자와 문화재 연구가들이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북한 불교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계종 봉은사는 9월 22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북한 전통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규 동국대 역사학과 교수와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황 교수는 북한 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를 전근대 한국불교사의 전개 속에서 제시했다.

북한 지역 사찰 중 영명사는 광개토왕 2년 아도화상이 칙령을 받들어 창건했는데 동명성왕 구제궁에 유적지가 있어 영명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릉사는 단군릉이 부각 될 때까지 동명성왕릉을 수호하는 능침사찰로서 북한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시했다.

고려태조 왕건은 919년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뒤 10대 사찰을 창건한다. 이후 개경과 주위에 25소의 사찰이 창건됐다. 이 중 법왕사는 팔관회를 주관했던 사찰이다. 왕륜사는 태조의 진전사원 봉은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연등회가 열렸던 국가사찰이다.

황 교수는 "고대이래 중요사찰이 북한 지역에서도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불교의 통합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선일 동북아미술연구소장은 북한의 불교 미술을 통해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 발제 모습.

목조불상의 경우 남쪽 지방에 거주하던 스님들이 북쪽 지방 사찰의 불상을 제작한 작품이 많다. 이는 남쪽 지역에 불상을 만들기 좋은 목재들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최선일 소장은 "남북 불교 문화재를 자유롭게 조사한다면 한국불교미술사 정립과 남북 동질성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교수불자協, 대학생 위해 30개 대학에 지원금 전달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교수불자들이 나선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이하 교불련)는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 1500만원을 활동지원금으로 9월 27일 전달했다.

기금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보시로 조성됐다. 교불련은 이 기금을 30개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에게 전달했다.

교불련 최용춘 회장은 "교수불자들은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늘 화두로 삼아 정진해 왔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2009년부터 정진한 결과 30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교불련은 이번 첫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2012년부터는 봄학기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일 주 문



동국대 정각원 4주년 기념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9월 24일 정각원 토요법회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동국예소리 전통예술공연을 개최했다. (02)2260-3016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10월 28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군종교구 예비 군승 모집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10월 7일까지 사미계 이상을 수지한 세납 35살 이하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예비 군승요원을 선발한다. (02)749-8646



조계사 시월상단 맞이 국화영산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29일 9시 30분 대웅전 앞에서 시월상단 맞이 국화영산재를 봉행한다.



나를 비우는 미소기도 행복순례
서울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9월 24일부터 월 2회 서산 보원사 복원을 위한 미소기도 행복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동화사 일요 선지식 법회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은 10월 9일 대구 동화사 일요선지식 법회에서 법문한다.



전국비구니회 차기회장 선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10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지종 원성 대선사 추선법회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는 9월 8일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에서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법회를 봉행했다.



금강대, 인문학 강좌 개최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9월 28일~ 12월 14일 12주에 걸쳐 '논산시민을 위한 인문강좌, 금강아카데미'를 진행한다. (041)731-3614



설동근 공불련 7대 회장, 동화사서 취임법회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0월 9일 8시 30분 대구 동화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다.

역경과 교육, 포교 중심 도량으로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역경·포교 중심도량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정수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8월 26일 봉선사 산중총회에서 신임주지로 추대된 정수 스님을 임명했다.

정수 스님은 임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봉선사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해 추대돼 대중들에게 감사하다. 시작이 좋은 만큼 끝도 좋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봉선사는 운허 스님 상주도량으로 한글번역, 역경도량이다. 포교중심도량으로서 종단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역경·포교·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 스님은 임기 동안 봉선사 승려노후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봉선사 승려노후복지 문제 가운데 특히 소임을 보지 않는 스님들의 노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동안 잡음이 많던 봉선사 말사 주지 임명에 대해서는 "말사 주지 임명은 본사와 말사의 소통문제이므로, 많은 스님들과 상의하고 말사와 소통해서 공정평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말사의 포교 복지



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수 스님은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5년 송광사 이래 10안거를 성만했으며 백화암, 용문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임명식에서 자승 스님은 "신임주지 임명장 수여식에 현 주지와 신임주지가 같이 오시니 보기가 좋다"며 "봉선사는 용주사와 더불어 한수 남북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구본사이다. 포교·교육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5대결사 등 종단 주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 앞으로의 4년도 고생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라면 대장경 목차라도 알자

권오민 교수, 제20회 행원문화상 역경상 수상

"역경사업에 관심을 가져 준 행원문화재단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9월 21일 설립20주년 기념과 제2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원문화상 역경상을 수상하게 된 경상대 철학과 권오민 교수(사진)는 "보잘 것 없는 행적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오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아비담팔건도론〉〈아비달마발지론〉〈아비달마장현종론〉〈아비달마구사론〉〈금칠십론〉〈승종십구의론〉〈아비달마순정리론〉등을 비롯해 그의 약본인 〈현종론〉을 완역하는 등 대중적인 시각으로 불교학의 정립과 불교입문을 개척해왔다.

권오민 교수는 "조계종단의 3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역경' 사업이다. 글자는 글자 자체로만 이해돼, 진정한 '역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올해는 고려대장경이 조성된 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대장경은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라며 "이는 불교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민 교수는 "고려대장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며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 모음집으로, 인생만사에 관한 모든 탐구와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장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불자라면 어떤 목차가 실려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오민 교수는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을 영예를 안아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은정 기자

음성공양할 단원모집 활성화 되길

아비라테앙상블 서수일 단장 예술부문 특별상 수상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펼쳐왔던 아비라테앙상블 서수일 단장(사진)이 제20회 행원문화상 예술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서수일 단장은 "상을 받을 것이라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놀랍다"고 말했다.

아비라테앙상블은 여느 합창단들이 자신의 수상경력을 쌓기 위해 큰 무대 공연을 고집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을 주 무대로 활동해 왔다. 120여 회가 넘는 무료 음성공양을 통해 누구보다 소외된 이웃과 자비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음악을 통해 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이 모여 구성된 아비라테앙상블은 찬불가, 찬불가요, 가요합창, 민요합창, 어린이 동요 독창, 중창, 코믹합창 등 다양한 장르들을 소화하며 공연을 해왔다. 또한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음성공양이 잘 닿지 않는 영세 소규모 사찰과 합창단이 없는 산사에서 찬불가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서수일 단장은 '알아차림' '무애가' '하고픈 말은 언재호야' '낙타' 등을 작곡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개신교 음악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세



요. 하지만 막상 공연을 다니다 보면 오히려 찬불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비라테앙상블은 현재 어느 사찰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늘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단원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수일 단장은 "이번 수상계기로 아비라테앙상블이 많이 홍보돼 단원모집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단장은 "아비라테앙상블은 앞으로도 불교음악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영천 봉등사, 대웅보전 낙성

영천 봉등사가 법당 증축불사 끝에 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종합불교회관으로 거듭났다.

영천 봉등사(주지 거홍)는 9월 21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등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에 앞서 대웅보전 삼존불 점안식 및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과 공덕비 제막식 등이 열렸다. 도용 스님은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길상지라. 일심청정 정진해 성불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은 9월 21일 동국대 백상탑 광장에서 '세계평화 기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총회에서 정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2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세계평화기원 묵념, 유엔사무총장 메시지 전달, 총학생회장의 봉행사, 축사, 석림회장의 세계평화기도축원 등이 진행됐다.

'세계평화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ace)'은 1981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과 회원국들 및 모든 인류가 평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정해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한 날이다. 노덕현 기자

경산 환성사 복원불사



경산 환성사(주지 성담)는 9월 20일 환성사 복원불사 및 1나한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대중이 운집한 이날 낙성법회에서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이 축원 법문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항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강)는 9월 22일 장사해수욕장 내 위령탑에서 제32회 장사상육작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1부 전몰장병천혼재, 2부 추념행사 3부 장학금 전달식 및 전몰장병 영가시식이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은해사 개산 1202돌 개산대재

조사전 낙성식 · 보살계 · 만등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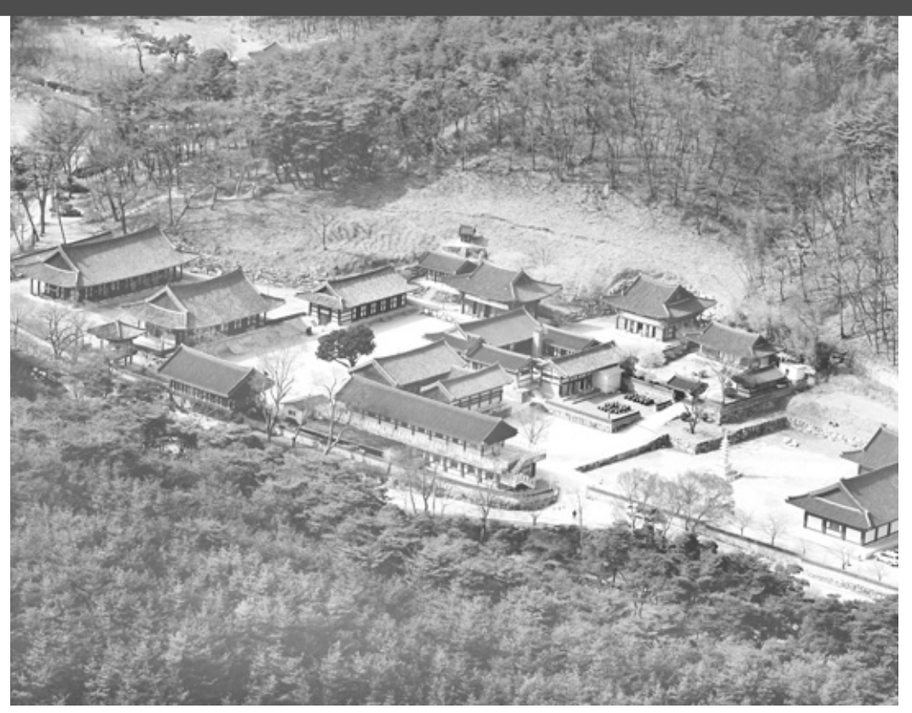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
(서기 809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2돌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뜻이
서린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
조사전 낙성식 ·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5년 9월

개산대재 대법회 10월 2일 (일요일 음 9. 6)

▫ **조사전 낙성식 · 보살계 · 만등불사**
3師 전계대화상 설정큰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교수아사리 혜인큰스님 (동곡 일타 문도 대표)
갈마아사리 혜총큰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 법회 안내 ■

▫ 10월 2일(일)
· 오전 9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부도전)
· 10시 30분 조사전(祖師殿) 낙성식
·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 → 경산 → 은해사
포항역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 종무소 (054)335-3318 ~ 9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www.eunhae-sa.org

귀신 잡는 해병이 귀신 대신 발우를 잡은 까닭은?

강화 전등사 해병대 템플스테이

9월 21일 새벽 4시. 산사의 새벽 찬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대웅전 앞으로 빨간 티셔츠에 고운 법복을 입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두 손은 모아 차수를 하고 순한 양처럼 조용히 걸어간다. 강화도 전등사의 새벽바람 정도는 시원하다고 말하는 해병대 장병들이다.

행사에 참가한 26명의 장병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예불에 참가했다. 종교가 다른 이들은 절을 하지 않고 앉아서 참선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20대 초반의 어린 장병들 눈에는 새벽 졸음이 가득했다. 이른 기상 시간 때문이었을까. 부대 안 보다는 마음이 편해서였을까. 깜박 잠이든 이들도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청년들은 법당을 떠났다. 법당에는 목탁소리와 경전을 외는 소리는 날이 밝도록 그치지 않았다. 법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새벽 찬 공기가 만나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승석)는 9월 20~22일 강화도 · 김포에 주둔하는 해병 2사단 장병 26명을 초대해 '해병대 제1회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장병들의 자원을 받아 계속 된다. 이는 전등사와 강화사암연합회, 해병대가 힘을 합쳐 템플스테이를 지원에 나선 결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병들의 인성교육과 마음공부를 돕고자 마련됐다.

청룡사 군법사인 실원 스님은 행사를 총괄해 진행했다. 스님은 "자원한 군 장병이 30명을 훌쩍 넘길 만큼 많았다. 밖에 나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절에서 먹고 자본다는 호기심이 발동해서였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절에 한번쯤 오고 싶어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조건희(20) 일병은 "템플스테이하면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군대만큼이나 많은 규칙에 놀랐다. 새벽 4시에 기상해 108배하고 발우공양에 산행까지. 하루일과가 꽉 짜여 있다"면서도 "참선을 직접 경험 보니 인성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절에 오니 마음이 차분해 졌다"고 말했다.

강화도 전등사는 여느 사찰과는 다르게 조금 더 군대와 친숙하다. 민족 수호의 역사와 함께해왔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위해 16년간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장소이기도하다.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근본 도량으로,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군을 물리친 국방의 요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600여 년 이어온 문화유산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창건돼 이어온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사찰이다. 전등(傳燈)이란 불법(佛法)의 등불이다. 즉, 불법을 전하는 사찰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전등사는 단군의 세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에 둘러 쌓여있다. 산성을 따라 걸으며 '숲길 명상'을 하는 해병대 장병들.



해병대 장병들이 진지하게 참선수행에 임하고 있다.



처음으로 발우공양을 해보는 병사들.

전등사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일주문과 사천왕을 볼 수 없다. 단군의 세 아들 부여, 부우, 부소가 쌓았다는 삼랑성(三浪城)이 전등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등사의 주변 능선을 따라 2300m인 토성은 민족자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있다.

아침 6시 발우공양이 시작됐다. 청룡사 법사 실원 스님이 발우공양을 진행했다. "발우를 피고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밥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맨 끝에 두 사람이 나와 시작하세요." 까까머리 동자승 같은 어린 해병대 대원들이 두 줄로 마주 앉았다. 배도 고프기도 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해 본다는데 조금은 들떠있었다. 발우공양을 모두 처음 해보는 터라 법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왕좌왕 실수 연발이다.

평소 배식에 익숙할 텐데도 괜히 절에 오니깐 국자하나를 들고도 어쩔 줄 몰라했다. 보다 못한 실원 스님이 한마디 했다. "퉁만 들고 국자는 상대방에게 주면 됩니다."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평범한 20대 청년들 같은 느낌이다.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그래서였을 것이리라.

산사에서 3일간 템플스테이
마음공부 · 인성교육에 제격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천천히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방석 끝하고 발우포의 줄도 딱딱 맞춘다. 이럴 때면 영락없는 해병대 모습이다.

밥 먹기 전에는 우왕좌왕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밥 먹는 시간만큼은 순조롭다. 한참 달고 기름진 것이 먹고 싶을 터이지만 심심한 절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병사들이 가장 걱정하던 발우를 씻는 시간이 됐다.

"마지막에 단무지로 발우를 닦으면 남은 것들이 다 같이 딸려 나옵니다. 첫물은 다마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같은 발우에 밥 먹을 테니 깨끗이 닦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씩씩했지만 다들 주저 하는 모습이 영력했다. 방금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았으니 손가락이 들어간 물을 마셔야 했다. 옆 동료들이 어찌하나 눈치를 살폈다. 그러고는 벌컥벌컥 마셔 버렸다.

실원 스님은 "밥알갱이 하나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는 식사가 발우 공양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발우 공양을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잊지않도록 하세요"라고 말하고 발우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 끝나자 날은 환하게 밝아있었다.

절에 와서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걸어 다닐 때도 차수를 해야 하고 말소리도 크게 내서도 안된다. 밥 먹는 것에도 절차가 이렇게 많으니 짜증이 날 법도 했다. 그러나 장병들은"있으라고 하면 일주일도 있을 수 있어요"라고 답하며 즐거워했다.

쉬운 군 생활이 어디 있겠느냐만은 강화도와 김포에 주둔하는 해병대 장병들은 전방을 지키는 긴장감 때문에 군생활의 피로가 가중된다. 산중의 절이 대중들에게도 시름을 달래고 마음을 달래 주듯이 장병들에게도 진장을 풀고 휴식하는 쉼터가 되고 있는 듯했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해병대, 전군 최초 템플스테이 개최

청룡사 군법사 실원 스님



"해병대만 뿐만 아니라 전군 최초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30명 안팎의 장병들이 전등사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이 해병대 1기 템플스테이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전하는 좋은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원 스님은 해병대 청룡사 군법당에서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군 측에서 먼저 장병들에게 인성교육으로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해병 8연대 전 대원들이 한 번씩은 다 다녀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2박3일로 진행한다. 30명이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다행이 해병대와 전등사, 강화사암연합회가 공동 부담하기로 결정돼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었다.

스님은 "해병대 병사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배운 마음공부는 좋은 추억과 함께 바른 인성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 번의 템플스테이가 2년 내내 군 법당에 잠깐씩 다녀간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ince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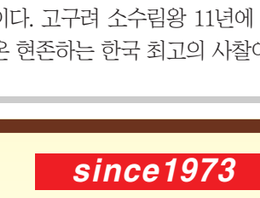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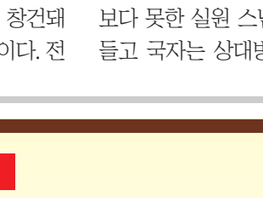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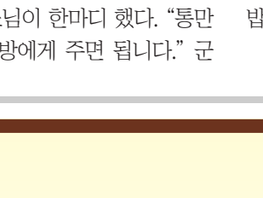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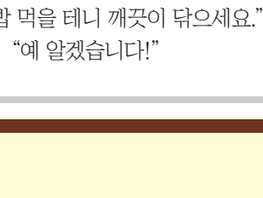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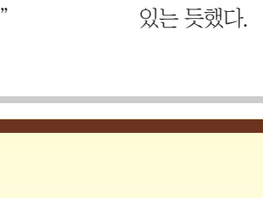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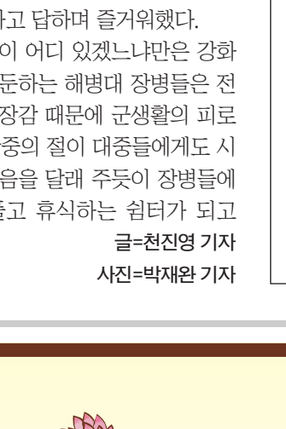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58㎜×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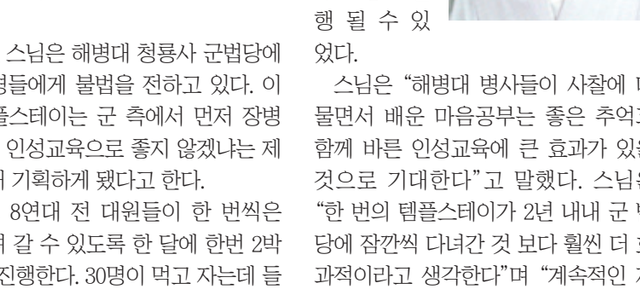
2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12절] 12호 반야동자

신간 약사여래본원경 [독송용]



할인가 4,500원(50권이상)
정 가 7,500원

• 내 지 : 80g/㎡ 매트지(자연색) 162P 옵셋2°(먹,복)
• 표 지 : 250아트지 옵셋 4°(유광코팅)
• 제 본 : 무선 제본
• 크 기 : 190㎜×26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더 많은 봉사 하고 싶어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박정애 보살



절에서 복을 비는 것보다 봉사활동이 진정한 ‘보살도’

박정애(49 · 사진) 보살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때부터 꾸준히 후원자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박 보살은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했다. 그러던 중 5~6년 전부터는 복지관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보살은 대학생 자녀 2명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기관에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저축은 못해도 후원은 꼭 한다는 것이 박 보살의 신조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곳에 후원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눔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박 보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양복지관에 후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주변에 후원이나 봉사를 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잖아요. 다 부처님께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박 보살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도 늘 박 보살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묻고, 추천을 받기도 한다. 박 보살로 인해 주변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양복지관은 1년 전 현재 장소로 이전하면서 시설도 정비하고, 급식소도 확충했다. 과거에는 좌석 부족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박 보살은 후원자로서, 봉사자로서 복지관이 발전하는 모습이 뿌듯하다.

박 보살은 “몇 년째 활동하다보니 복지관이 내 집 같고, 직원들이 다 한 식구 같다. 봉사하러 오는 날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날이다”고 말했다.

박정애 보살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로 ‘즐거운 마음’을 꼽는다. 박 보살은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어른들에게도 정감 있게, 내 부모 모시듯이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박정애 보살도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으나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차츰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진 것이다. 그러자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고, 활동도 더 즐거워졌다.

박 보살은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과 신랑, 아이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대한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다보니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훨씬 넓어졌다. 자녀들에게도 늘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점수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말라고 강조한다.

박 보살은 “일주일에 한 번 봉사에 참여해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복지관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애 보살은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갑자기 절에 가서 복을 비는 것보다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경전 속 가르침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건강한데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건 계속 봉사를 하면서 봉사와 연관된 삶을 살고 싶어요.”

박기범 기자

반백년만에 새 한글로 나툰 부처님 말씀

‘우리말 팔만대장경’ 9월 20일 봉정식 봉행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9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봉정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글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개정신편이 출간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9월 20일 조계사에서 〈우리말 팔만대장경〉 신편을 기념하는 봉정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유상종 고문,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봉정식 고불문에서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출간이 불교현대화 역경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면, 고려대장경 1000년을 맞이하는 〈우리말 팔만대장경〉개정 신편 출간은 1000년을 내다보며 불교 대중화, 뉴미디어 시대 콘텐츠 포교를 준비하는 불교 미래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근현대 한국 사회를 대표했던 고승대덕과 석학들의 눈으로 밝혀 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통해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뜻을 오롯이 알고 널리 전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1963년 초간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당대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를 망라한 최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펴낸 책이다. 청담 · 운허 · 탄허 · 성철 · 법정 스님 등을 비롯해 김도화, 김달진, 김법린, 이은상 박사 등이 편찬위 중심이 돼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필두로 동국역경원이 탄생하게 되고 이후 37년에 걸쳐 318권으로 된 〈한글대장경〉이 2001년 완역됐다.

〈우리말 팔만대장경〉(모시는사람들 刊)은 〈한글대장경〉의 방대한 분량을 집약해 대중들이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한 기념비적 역작이다. 이번 개정신편은 원본의 내용과 편제를 최대한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개정신편은 기존의 세로쓰기였던 책의 판형을 가로쓰기로 바꾸었으며 불교 신자와 일반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의 감수를 맡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한글 불경의 요구는 여전히 불교계의 오랜 과제다. 올해로 대장경 1000년이라는 감격의 순간이 왔지만 ‘불경의 대중화’는 요원한 불교계의 숙제가 되고 있다”며 “부처님 말씀의 방대함을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구성해 전달하는 번역이 언제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개정신편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우리말 팔만대장경〉(모시는사람들 刊)은 여섯 편으로 나누어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열반에 들 때까지의 행적을 담았다.

제1편 ‘부처님의 나타나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 및 성도(成道) 이야기를 담았으며, 불교 역사의 전기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불본행집경〉 등을 경전에 근거해 읽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제2편 ‘아함경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시원(始原)이 되는 근본 교리를 초기 경전을 대표하는 〈아함경〉을 비롯해 기타 중요한 원시 경전에 의거해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3편 ‘방등경 법문’은 부처님이 대승의 가르침을 전한 방등시(方等詩)의 대표적인 경전을 모았다. 대승 수행법의 결정판인 〈능엄경〉 〈원각경〉 등 50여 종에 이르는 대승불전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4편 ‘반야 계율부’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공(空)의 이치를 〈대품반야경〉과 〈금강경〉 등을 통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제5편 ‘법화 열반부’는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과 일불승(一佛乘)이 존재한다는 대승불교의 총결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과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열반경〉의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6편 ‘화엄부’에서는 〈화엄경〉의 주요 대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취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실체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나은 기자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도서를 공모한다.

추천도서는 2010년 10월 1일~2011년 9월 30일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를 주제로한 모든 분야의 저서와 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불출협은 공모된 도서 중에서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 우수상 2종을 선정한다. 대상에는 5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도서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 및 접수는 10월 1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로 접수(02-3672-7181~5)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제로투세븐 2억5000만원 후원 물품 전달

제로투세븐(대표이사 김정민)이 9월 20일 2억5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이날 조계종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지난 5월에도 보내준신 후원 물품으로 몽골과 라오스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제로투세븐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로투세븐은 영유아 제품 전문기업으로 2011년 5월 1억5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후원한데 이어 올해 총 4억 원어치를 후원했다.



천진영 기자

영석고, 동국학원 산하로 새출발



동국대의 산하교육기관이 9곳에서 10개 기관으로 늘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의정부 용현동에 위치한 영석고를 ‘동국대 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로 개명하고 10월 21일 새 교문준공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동국대사범대 부속 영석고’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사학으로서 명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영석고는 설립자 안채란 이사장(동국대 국문과 54졸)이 1970년 부친의 아호를 딴 ‘영석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법인을 세운 이래 현재 17개 학급 600여 학생이 수학중이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가 의정부 지역사회 제일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교육기관은 영석고를 포함한 4개 고교, 4개 중학교, 1개 초교, 1개 유치원으로 모두 10곳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도입 가능한 사업분야를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555(2011). 10. 12(수) 오후 2시~5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문 의 | 총무원 재무부(02-2011-1760), 불교사회연구소(02-730-0884)

주최_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 주관_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주 제 _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발 제 _ 1. 종단 재정사업의 원칙과 방향 _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2. 종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 _ 장영욱(재무부 사업팀장)
지정토론 _ 1. 제정스님(중앙종회의원·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2. 이 상 근(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연우와 함께 대표)
3. 윤 남 진(NGO리서치연구소장)
대중토론 _ 대중과의 질의 및 응답
사 회 _ 박희승(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도문 합장

고판화 아카이브 구축 박차

초대회장으로 한선학 박사
"박물관 · 단체 결성에 주력"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 서고

한국고판화학회가 국내 최초로 고판화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고판화 관련 박물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한국고판화학회가 9월 17일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첫 발을 디뎠다.

이 날 총회에는 고판화 분야에 관련된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박물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해인사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안동 유교문화 박물관을 비롯해 고려대장경연구소, 해인사 대장경 목판 보전실, 안동 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고판화학회는 초대회장으로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로는 임노직 유교문화박물관장과 前 해인사 박물관장인 본해 스님을 선임했다. 정병모 경주대 교수와 박도화 동국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총무, 학술, 출판이사를 각각 맡았다.

고판화학회는 고판화 관련 기관들과 학자들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외 답사 및 국제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고판화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선학 박사(고판화박물관장)는 "지식 문화의 보고인 고판화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박물관, 단체들이 모여 학회를 결성해 흩어진 고판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 고판화가 발전되었던 국가와 국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아시아가 선도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임기 동안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결성할 수 있는 교류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차 해외 고판화 학술 답사를 내년 1월 중에 중국 양주, 남경, 항주 등 고판화가 발전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화 동국대 교수가 '고판화 연구와 현재와 미래'를 주제발표했다. 또 김정희 원광대 교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고판화박물관의 목판 답사와 안동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의 목판 답사도 1박 2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고판화 연구는 불교문화 연구 초석"

남권희 경북대 교수
한국 고판화학회 창립총회서 기조 발제



"인쇄술은 문자의 보급과 책의 수요 등 사회문화적 요소와 기술적인 측면이 모두 뒷받침될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고판화 연구는 이런 사회문화, 기술 발전 연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9월 17일 열린 한국고판화학회 창립세미나에서 주제발표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고판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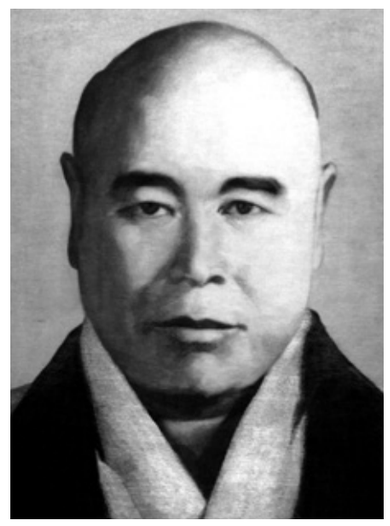
남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사회문화적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하여 활발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기술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 먹과 붓의 전래 등 인쇄술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신라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무구정광대타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간행됐고, 고려시대에는 〈보협인타라니경〉(寶?印陀羅尼經)을 비롯해 여러 경전들이 계속 간행됐다. 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술을 창안해 1377년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불조직지심체요절〉(白佛祖直指心體要節)을 인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교수는 "조선 후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까지 나타나 우리민족의 문화와 교육, 독서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지대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고판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책을 찍어내고 찬란한 인쇄문화를 꽃피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고 관련 연구 촉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10월 1일, 금오 선사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



근현대 선지식으로 정화불사의 주역 금오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오 스님은 정화의 주역으로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구도를 통해 경허-만공-보월로 이어지는 근대 선맥의 중심에 있는 간화선의 대종장이다.

금오선수행연구원(원장 월서)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10월 1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종호 스님(금오 선사의 심사상 이해) ▷윤원철 서울대 교수(금오 선사의 수행관) 김방룡 충남대 교수(금오 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신규탁 연세대 교수(금오 선사의 선사상) ▷신성현 동국대 교수(금오 선사의 계율관)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금오 선사의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 선사의 역할) ▷김경집 진각대 교수(금오 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그 불교사적 의의) ▷박해당 서울대 연구교수(금오 선사의 불교인식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이 발표된다.

개막식은 지방 참가자들을 고려해 오후 1시 30분 봉행된다.

금오선수행연구원장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은 불철주야 수행만을 해와 문자의 불립(不立)으로 인해 남긴 선문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학술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금오 스님의 정신 · 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쇄신과 인재양성, 학문연구의 진작에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조계종의 근간을 이룬 금오 스님 등 근현대 선지식은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소홀함이 적지 않았다. 선지식을 학술적으로 조명 · 선양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선수행연구원은 2008년 월서 스님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설립 이후 줄곧 금오 스님의 수행관 계율관 선사상관 정화사상 등을 연구 · 조명해 왔다. 이를 정리해 2008년 10월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과 2010년 금오 스님의 법문집인 〈금오집〉을 발간했다. (02)2260-8512

조동섭 기자

궁안 법당(내원당)에 불교의 비밀이

황인규 동국대 교수
보조사상硏 학술대회서 발표

고려시대 국사와 왕사는 불교계를 대표하고 민중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또 선대 왕의 추념 도량을 창건하고 운영하기도 하는 등 왕실불교를 책임졌다.

이들은 궁궐 내에 도량인 내원당을 설치해 비구니 도량인 정업원과 짝을 이뤄 불교신행을 담당했다. 특히 내원당은 왕실불교를 주관하고 더 나아가 국가불교 시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내원당 주지는 국사와 왕사 다음의 위치에 있었던 고승이지만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9월 17일 개최한 제97차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고려시대 내원당의 역할과 그 주지의 영향력에 대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날 "내원당은 교세가 가장 큰 종단 중 왕실과 밀접한 종파의 고승이 선정돼 입원했다. 고려전기 교종 화엄종과 고려 후기 선종계에서 내원당에 입원한 기록에서 왕실불교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내원당에 입원해 주석했던 고승들은 교종에서는 승통 이상이 선종에서는 대선사 급이 감주로 임명됐다"며 "내원당 감주를 거쳐 왕사에 책봉됐을 뿐만 아니라 왕사 책봉 후에는 지방의 하산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원다 주지, 감주는 실질적인 왕실, 수도불교의 중심인사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사는 황 교수의 논문에 대해 ▷고려시대 내원당의 사료 정리 ▷고려 왕실불당 내원당의 존재의의 부각 ▷내원당의 변천 조명 ▷내원당의 고승과 그 행적 조명 ▷고려시대 왕실불당 신행연구의 초석의 측면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윤기엽 서울대 일본연구소 박사도 "고려불교의 전개과정을 조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발전 가능하다. 사료조사를 통해 내원당에 대한 연구가 심도깊게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월 8일, 한국미술사硏 석굴암 불상 조명 학술대회

경주 석굴암의 불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토함산 석굴 불상의 최초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제2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이어 관련 학자들이 석굴 자체의 유래와 개별 석굴암 불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 한국사회와 퇴옹 성철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
-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 -

무릇 수행하는 모양을 내는데 집착하거나 소리로만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과 같으니, 벽돌을 갈아서는 거울이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 회양화상의 말처럼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청량한 기운이 이는 이때에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비우고, 바라보고, 닦아서 참나를 찾는 길에 다 같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2일~11월 27일**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30분 (총 6회)
◐ 장 소 :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
◐ 문 의 :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FAX 063)226-7879
◐ 후 원 :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 / 협찬: (유)거목종합건설 대표 반재상 (23기 대각회 회장)

1	10월 2일	용타스님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2	10월 9일	혜남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3	10월 16일	향봉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4	10월 23일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간화선에 담긴 수행결사
5	10월 30일	시몽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6	11월 27일	도법스님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장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 조계종 후원특강 ※				
※	11월 6일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복한 가족

전북불교대학 학장 무설 한광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8-5 완산불교회관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 (선착순)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교학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응시기간** : **9**월 **30**일까지 (10월 10일 개강예정)
▸ **응모방법** : 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031)753-7377

1300년 전통살려 국민과 소통하는 통도사

10월 통도사 개산대재 불교문화축제로 확대

"세간을 벗어나 불법을 찾는 것은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산중에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대중과 함께 소통해 불지종가 국지대찰(佛之宗家 國之大刹)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통도사 일원에서 열리는 '개산 1366주년 개산문화대재'를 앞두고, 주지 원산 스님이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매년 3일이던 개산대재를 5일로 연장해 다양한 불교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부대중은 물론 비불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열린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산중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희망이라 할 수 없고, 세간에서 불법을 구할 때 자연히 포교돼 우리 사회에 불교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예경과 찬탄, 새싹과 나눔 등 총 4가지 장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예경의 장에는 괘불이운이 5일 오전 8시 경내 박물관 앞에서 괘불대까지 이어지며, 어산과 100여 종의 장엄물과 150여 명의 취타대 등이 전통의식을 복원·재현한 장엄한 행렬을 선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성보박물관에서는 '24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찬탄의 장은 개그맨 엄용수의 진행으로 가수 안치환, 강진 등이 출연하는 음악콘서트가 경내 도서관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새싹의 장은 2일 오전 10시 경내 일원에서 영축사생대회가 열리고, 3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통도사 본·말사 부설유치원 원아들의 재롱잔치가 열린다. 나눔의 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통도사 재적승 및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및 지역문화발전공헌자 표창 등 시상식이 마련된다.

"총림의 살림살이가 크다보니 인수인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산중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원과 강원, 율원과 염불원 등 4개 기구를 모두 갖춘 수도의 장으로서 내실을 기하는 수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주로 경전만을 수학하던 영축총림의 강원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과목이 추가된다. 그리고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따라 사회복지과정도 새롭게 편성될 예정이다. 즉, 자장율사 개산의 가르침인 대중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다. 원산 스님은 주지 임기 동안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자장율사 가르침의 핵심인 대중과의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개산대재 주간 동안 분야별 전문인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10월 2일에는 삼성증권PB연구소 우승택 소장, 11월 1일 칼럼니스트 조용헌 씨가 단상에 오른다. 그리고 국보와 성보가 산재한 통도사 전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검토 중이다. 또, 통도사자비도량을 템플스테이 연수관으로 운영하고, 산문부터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걷기명상을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우주가 곧 내 집이요, 통도사의 주인은 국민 모두입니다. 〈임제록〉에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 즉,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지금 머무르는 바로 이곳이 진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통도사 대중이 불자와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자세로 소임에 임해 불지종가 국지대찰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055)382-7182 www.tongdosa.or.kr 박지원 기자

"부처님은 최초의 사회복지사"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 원장 마나 스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소외된 어르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담아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첫걸음이 불교사회복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사찰이 운영하는 첫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백운사(주지 마나)는 사하촌에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의 개원법회를 9월 2일 봉행했다.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문을 열어 사하촌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공양을 나누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 배달도 병행하고 있다.

추후 후원인이 늘어 살림이 넉넉해지면 주 2~3회로 차츰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공양시간 이후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어르신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마나 스님은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는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해, 복지관이 3곳이나 들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며 "이웃종교시설 3곳에서 일요일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라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자는 각오로 우여곡절 끝에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원 직후 총 50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300여 명 이상의 어르신이 찾아오고 있다.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음식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자자하기 때문이다.

맛의 비밀은 바로 다년간 민들레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백운사 신도회원들의 손맛에 있다. 현재 식단 계획과 요리, 배식과 청소 등 무료급식의 전 과정은 백운사 신도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이들은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무료급식소인 민들레밥집에서 2년간 매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공양을 지어왔다.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기호와 입맛을 잘 알기에 최고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불교연합회에서 복지부장을 맡으며, 연합회 직영이던 민들레밥집을 2년가량 운영했습니다. 그때 반송동 지역에 무료급식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졸업과 동시에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반송동 인구의 17%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중에는 홀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작은 단위 사찰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 그런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이사 소임을 맡아, 생명나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처님 사상의 핵심은 대승적 차원의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자비와 복전, 보시와 생명존중입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최초의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남을 위해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수행 자체가 사회복지가 되는 템플스테이, 자살을 방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선불교 복지 등 다양한 사찰 복지 및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51)542-4630

박지원 기자



이대호, 강민호, 손아섭 선수는 매년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꿈나무공부방 청소년 및 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무료로 초청하고 있다.

부산 원오사 꿈나무 육성 나선다

통도사 극락암 부산분원 원오사(주지 정관)는 10월 8~9일 양일간 원오사 일원에서 '꿈나무공부방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자선대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에는 경봉 벽안 월하 원담 일타 화엄 스님 등 고승대덕 스님들의 선서화 전시 및 판매전과 먹거리 장터, 생활용품 판매전이 경내 일원에서 운영된다.

특히, 8일 오후 2시에는 작은산사 음악회, 9일 오전 11시에는 무비 스님(범어사 대강백) 초청법회가 마련된다.

주지 정관 스님은 "배움만이 가난을 구제할 길이라고 말하지만, 가난은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세상의 포근함과 온정의 손길이 전해진다면, 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꿈나무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로 2009년 3월 9일 경내 요사채에 문을 열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3명, 2학년 2명 등 총 5명의 청소년이 수학하고 있다.

후원문의 (051) 542-7949

박지원 기자

수준 높은 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통칙 스님 목판화전

양산 원각사(주지 반산)는 10월 11~16일 부산 영광도서 갤러리에서 통칙 스님(월명암 주지, 목판화연구소장)의 목판화전 '향상일로 천성부전(向上一路 千聖不傳)'을 개최한다.

원각사 창건 31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는 통칙 스님의 목판화 및 소장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회 주제인 '향상일로 천성부전'은 깨달음의 길은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출가수행자의 수행과 일상을 정갈하면서도 단아하게 화폭에 담아냈다. 특히, 선화가 수안 스님과 일장 스님의 선서화도 함께 전시돼 수준 높은 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13~15일에는 전시장 한편에 판화체험코너가 운영되고, 다도시연회와 조월 스님의 비천금 연주회도 한자리에서 마련돼 작품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시회를 기획한 반산 스님은 "통칙 스님의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다"며 "대중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칙 스님 작품 중 불생불멸

(055) 374-6313 박지원 기자

13개 강원, 불교전통의식 경연

전국승가학인 연합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전국 500여 승가학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교전통의식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의장 호명)는 10월 13~14일 양일간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제23회 전국승가학인 학술및체육대회'를 봉행한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범어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범어사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중앙승가대 쌍계사 화엄사 수덕사 불국사 직지사 백양사 법주사 동화사 등 총 13개 강원이 참가해 경합을 벌인다.

첫날인 13일에는 오후 1시 개회법회를 시작으로 창불과 법문, 서도와 역경, 법고 등 전통강원 만이 갖는 다양한 불교전통의식 경연대회가 범어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14일에는 금정체육공원에서 축구와 족구, 배드민턴 대회 등 학인 상호 간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상식 및 회향법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준비위원장 호명 스님은 "전국승가학인 학술 및 체육대회는 납자들의 기량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 508-3127 박지원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꿈 속에서 몇날 며칠 사랑을 나눴어도…현실서는 40초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네번째 …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선원장 스님들을 모시고 명법문을 듣는 〈봉은사 선지식초청일요법회〉가 9월 18일,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봉은사 선지식초청일요법회에서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이 참나와 망상에 대해 법문했다.

혜국 스님은 "부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우리 모두는 부처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며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부처인 '참나' 는 숨어있고 '망상' 이라는 가짜가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날 모인 신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차분히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봉은사는 1700여 신도들이 법문을 듣기위해 참가해 도량을 가득 메웠으며 대웅전과 법석이 마련된 법왕루 외에도 도량 마당에 멍석을 깔거나 풀밭에서 자유로이 누워 법문을 청취했다. 다음은 혜국 스님의 법문 요약이다.

정리= 노덕현 기자

부처될 가능성 여신 큰 은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한 ·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임을 일깨워준 은혜는 참으로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 중 욕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은 욕망입니다. 이 망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 부처님의 은혜에 지극히 감사하며 법문을 시작합니다.

욕계에서 가장 강한 욕망, 이 욕망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의 근본 본질을 짚어봅시다. 망상은 망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다보면 별별 망상이 다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망상은 누가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전생을 거치며 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망념을 보리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예로 들어봅시다. 엊그제 석종사에서 드라마 '계백' 촬영이 있었습니다. 백제 스님들이 와서 석종사에 왔다 갔다하는데 정작 진짜 스님들은 방에 앉아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스님들이 절 앞마당에서 '제가 주지입니다', '제가 선승 누구입니다' 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망상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참나는 이 안에 갖혀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방송으로 봅니다. 이때 화면에 나오는 것은 필름 영사기에서 찍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찍힌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흐름. 즉, 참나를 보지 못하고 그 상을 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것이 바로 망념,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생 한평생을 사는 것은 과거 수 억년 동안 내 본체의 잔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란 대성인이 와서 '속지마라' 하신 것입니다.

찰나 찰나의 변화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니 나니 분별이 없게 됩니다.

예로 들어봅시다. 구멍이 숭숭 뚫린 대나무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 그릇,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다시 빼면 그릇이 쑥 빠집니다. 그릇을 몸, 바다를 참나라고 보면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생사' 지만 바다입장에서 보면 간 것도 온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너, 나, 우리, 모든 것이 법신부처 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자리에선 광명이

본래 부처자리를 얘기해봅시다. 어제 밤이 깜깜했습니까. 안 깜깜했습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태양 광명에는 어둠이 없지만 지구가 등을 돌려 반대쪽에 어둠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광명에는 일초도 어두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탐진치 번뇌 망상이라는 구름이 태양 광명을 가려 어둠이 있는 것이지 너희 자체에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더라도 너희 감정의 세계이지 본디 세계에는 죄가 없다. 허공성이 네 마음이다 본래의 너다. 그 마음은 어떤 죄도 이겨내서 너는 부처를 이룬다' 는 희망을 준 분은 부처님 밖에 안계십니다.

태양 광명이 있는 근본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려고 부처님을 비롯한 큰 스님 등 모든 스승들이 스스로 정말 깊이깊이 내 자리를 돌아봐서 망상에 끄달리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를 참구하라 했습니다.

'방안에 꿈꾸는 이가 있고, 밖에 꿈 깬 이가 있습니다. 꿈꾸는 이는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 허우적거리는데 깨고 나면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깬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꾸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두가 사람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꿈을 깼을 뿐이요, 한 사람은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황벽 스님은 이를 일러 '깨닫고 난 다음



혜국 스님은… 혜국 스님은 1961년 13세에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다. 또, 19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뒤 팔만대장경각에서 오른손 세손가락을 연비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국선원에서 무문관을 개설햇으며 금봉선원을 창건해 선수행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지냈으며 現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과 남국선원장이다.

그릇을 바다에 넣고 꺼냄은
육신이 찰나에 오고 감 같아
부처님 광명은 빈부 가리지 않아
지금 이자리 인연 살려 정진하자

지난 세월의 오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허우적 댔던 허망한 세월 뿐이다' 고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긴 꿈이 40초라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몇날 며칠 맛있는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는데 40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뇌망상으로 몇생동안 수행하지만 본래 자리에서는 한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죄를 지었던 마음을 돌아보면 죄를 지어도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음이요, 아무리 모지라고 부족해도 완전한 것입니다.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서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내가 나였을 뿐, 어떤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모지랄 것이 없는 완전한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는 얻고 덜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연등부처님이 s나에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더 붙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언제 이뤄도 부처를 이룰 것이니, 바로 지금 선지식들을 모셔다가 마음에 대한 즉심시불을 탁 듣기만 하면 한번 듣는 것이 씨앗이 돼서 언제 부처가 되도 부처가 됩니다.

태양빛이 잘난 사람이라고 더 비춰주고 아닌 사람 덜 비춰줍니까. 똑같이 비춰줍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데 인간들이 불평등이다는 것은 욕망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지 우주법계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모든 시방법계가 다함께 평등해 너니 나니 없는 자리다는 것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듣고 견문각지로 감정에 끄달려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공부를 안하고 매일 컴퓨터만 하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어라고 죽어라고 몸뚱이 따르는데로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정진 또 정진

황벽 스님은 잠깐이라도 내일 미루지 않고 그 공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마음 농사를 짓는 일은 정말 미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면 하면 본디 나가 밝게 빛나 모든 것이 두루 어둠이 없게 됩니다. 미움마음 어두운 마음에서는 새까만 기운이 나오고, 기도나 참선에서는 맑은 기운이 나옵니다. 한번 미운 마음 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낼 때는 도둑 망상이 와 우리 친구 생긴다. 춤을 추는 시간이요, 마음마음 부처는 아직도 정신 못차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몇백번을 해야 하겠는가. 전생 수백 번 부모 만나 자식 낳고 번뇌 번뇌하더니 또 이러는가.

우리 마음에서 칼 같은 것이 나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릅시다. 아니면 지장보살도 좋고 아니면 혜국 보살도 좋습니다. 이름이 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념이면 석가모니불 하나면 되는데 따로인 이유는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염불을 한다던지 법당에서 절하던지 참선하는 자세로 '이무엇인고', '나는 누구인가' 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무심을 꼭 알고 가야됩니다. 무슨 생각을 딱 내면 우리 안에서 파장이 생겨 기운이 나는데, 일념은 없어지고 다만 모를뿐입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 라 햇을가. 왜 '관세음보살' 을 부를까. 다만 모를 뿐인 그 속으로 쏙 들어가면 '모를 뿐' 이 백지처럼 머리에 쫙 펼쳐지는데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면 삼매라고 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백척간두라 이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인간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늦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구나, 정말 마음닦아 가겠다고 울면서 울면서 태어나놓고 내 몸뚱이 하자는대로 하는 구나'

아들딸한테 잘해주면 아들딸이 그걸보고 부모에게 잘합니까. 그게 아니라 본게 그거라 자기 아들딸한테 잘합니다.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은 내 마음 닦고 가겠다. 몇겁동안 없던 인연 천만 대천 법으로 가르쳐준 부처님, 봉은사가 지척에 있고, 이런 자리가 마련돼있구나'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가 후보생입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13살에 절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52년이 지났습니다. 13살에 절에 들어왔을 때는 비구니 스님들이 날 보며 아구 귀여워 동자 스님했는데 이제는 환갑 다 지나고 늙다리가 됐습니다.

내 몸뚱이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아들딸 왜 마음대로 해야 하는가, 남편, 부인 마음대로 하려합니까. 아들딸 마음대로 하려하지 말고 네 마음을 바다 처럼 넓혀버리십시오.

모든 강물이 바다에 가면 한 바다가 되니 바다가 되면 무심이라 하고 무심이 되려면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마음 닦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을 화두로

무심이 되려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을 기도로 만들고 화두로 만드는 것입니다. 루이비통 백이 생각나면 이를 화두로 만들어야 무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딱 앉는 것입니다. 업장이 바로 광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황벽 스님의 스승인 백장 스님의 말씀을 보면 '태어나도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죽어도 본신이 죽은바가 없다. 태어나고 죽은 바는 본래 꿈속에서 태어나니 죽으니 말하는 것이니 생멸을 떠난 실상은 항상 여여하다. 신령스런 광명이 드러나 육근육신이 홀연히 드러났구나. 본체에서는 참되고 영원함이 드러나 모든 인연에 구애됨이 없음이라. 참된 성품은 본래 물들지 않아 본래로 원만 구족하니 다만 번뇌망상 허망한 생각만 여의라' 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지혜닦는 사람은 지혜만 닦는다는데 양변을 여의고 봉사 속에 지혜를 닦고 지혜 속에 봉사를 닦는 불자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는 불자가 됩시다.

大관음사 출가학교(3주간) 모집(제7기)

출가자의 모든 것을 체험.(염불, 참선, 경전공부 등)

▣ 무문관 7일 수행함.(삭발함)
▣ 신체 건강한 남자, 65세 이하
▣ **10월 4일(화) ~ 10월 24일(월)** – 3주간
▣ 입 재 : 10월 4일(화) 오후2시 대구큰절
▣ 동참금 : 50만원
▣ 감포도량(95%)과 대구큰절(5%)에서 수행
▣ 우학스님 및 대중스님 지도
▣ 문의 : **010-9562-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승보살 願으로 불자 자부심 세워

전북불교회관 중창 불사
전북지역 불교 중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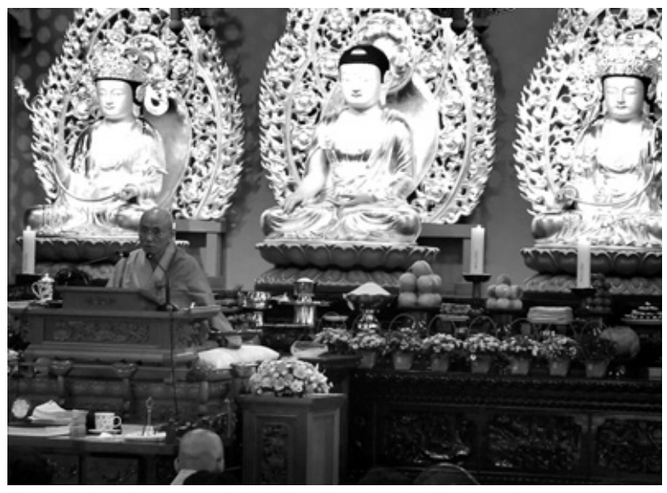
전북지역의 전법포교도량인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삼존불 개금과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9월 18일 4층 큰법당에서 개최했다.

점안식 및 회향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태공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 석두 스님 신행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백호 전북불교 신도회장, 하유호 보현사 일요법회 회장, 이동호 원각회장, 김수영 금산중고교 교장, 차경자 바라밀 합창단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증명법사인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사 중 가장 성스러운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동참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32상 80종호의 지혜와 위신력으로 우리에게 나투신 부처님처럼 대승보살의 염원으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보시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성스러운 불사에 환희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며 모두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자고 설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북불교회관이 포교사를 배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교대학의 발전과 포교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개금불사와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일원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개금불사를 원만회향하게돼 사부대중여러분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 보현사가 전북지역 불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찾아 공부하고 기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보현사 삼존 개금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한편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사부대중들은 해외구호 NGO 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일금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포교활성화 책임질 것"

조계종 21교구 신도회 출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지용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신도조직화와 포교활성화를 목표로 조계종 21교구 송광사 신도회가 발족됐다.

순천 송광사는 9월 18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조계종 21교구 신도회 발족식을 갖고 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1교구 신도회는 증심사, 무각사 등 17개의 지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에 지용현 신임회장을 임명했다.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의 말사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참여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구신도회의 창립은 송광사의 긴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신도와 스님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신도회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활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신도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광주전남지역 포교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송광사는 고려 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기울어가는 불교를 바로세우고자 정혜결사 깃발을 세운 승보종찰이다"라며, "이제 또다시 천년이 흐른 오늘 재가불자들이 모여 새로운 천년을 향해 한국불교의 당간을 세우자"고 말했다.

한편 신도회는 이날 창단식 후 신도회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홍문숙 관장에게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안전모 벗고 주민 위한 구슬땀

현대건설 엑스포타운 건설 현장의 임직원 20여명은 9월 19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진옥, 관장 홍문숙)을 찾아 독거어른신과 장애가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무료경로식당과 독거어르신, 장애인세대를 위한 쌀 20㎏ 20포대를 홍문숙 관장에게 전달한 뒤 5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8팀으로 나뉘어 몸이 불편해 청소조차 힘들었던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에 방청소, 전기수리 등의 청결활동을 진행했고,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말벗서비스, 지역주민 무료자비목욕탕 청소 등 문수복지관 시설 내 청소를 진행했다. 또한, 문수주공아파트 단지와 문수동 일대를 돌며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공사잔해물을 수거하는 지역 내 청결활동도 함께 펼쳤다.

특히 평소 많은 지역주민들이 왕래해 지저분했던 복지관 뒷면 벽을 담당직원까지 불러와 직접 페인트칠을 해주는 정성을 보여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장애인세대 한 대상자는 "너무 만족한다. 불도 안들어 오던 집이 환해졌다"고 말했다.

홍문숙 관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해 준 현대건설 엑스포타운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음악도 듣고, 건강도 지키고

함평 유모사 숲속산사음악회

함평 유모사에서 숲속 작은 음악축제인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함평의 황칠나무로 유명한 유모사(주지 보각)에서 6년간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산사음악회를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유모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 영산제 시연과 국악, 함평나르다예술단의 식전행사에 이어 광장음악회의 성악, 한국문화예술교육진원원 김수연 강사의 살풀이춤 시연, 원광대학교 김금희 교수의 판소리와 판소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황칠숲, 편백숲 치유체험과 황칠차 시음회 및 저녁 공양이 진행돼 건강과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한다.

한편 이날 중창개원하는 유모사는 호남지역 대표적 특산물로 인기를 누리다 사양길로 접어든 전통 합죽선에 칠하는 황칠나무를 제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前 주지 상빈 스님은 20여년 넘게 황칠나무 재배 및 양묘, 이식에만 15년, 황칠액 채취 및 이용 연구에 7년을 매달려 온 끝에 황칠 상용화에 성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이주성 센터장 박사학위 취득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이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호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중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터민, 다문화가정 佛心으로 보듬는다

군산 성흥사 · 삼보사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와 삼보사(주지 법송)가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들이 정신적 ·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편안한 쉼터로 거듭난다.

군산경찰서 나유인 서장과 송월스님, 법송 스님은 9월 21일 군산시 성산면 삼보사에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군산경찰서 정보보안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다문화가정 쉼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평소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송월 스님과 법송 스님의 적극적 협조로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을 체결한 법송 스님은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초청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군산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군산 경찰서는 이 날 협약으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종교 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원활한 사회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 '다시 한 번'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

"무릇 수행하는 모양을 내는데 집착하거나 소리로만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과 같으니, 벽돌을 갈아서는 거울이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 회양화상의 말처럼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8월초 백양사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야단법석이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다. 10월 2일~11월 27일 매주 일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은 10월 2일 입제식에 이어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의 법석으로 시작된다. 9일 혜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의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16일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23일 현응 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의 '간화선에 담긴 수행결사', 30일 시몽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11월 27일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장)의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각각 펼쳐진다.

또 11월 6일 조계종 후원특강으로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복한 가족' 특강도 개최된다.

전북불교대학 관계자는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비우고, 바라보고, 닦아서 참 나를 찾는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63)226-7878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 봉축 재법회

일붕사상강연, 일붕계보(족보) 출판 기념회, 일붕시상송 등 다채롭게

귀의 삼보하옵고
입추지절에서 국내외적으로 계신 1만여 일붕문도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제자 (은,법,조카,손상좌)단체인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가 어느덧 4개 성상에 도달하여 제4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봉행하는 제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 봉축 대법회를 봉행함에 있어 어느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붕사상 강연회, 일붕 시낭송, 일붕 다큐기록영화 상영, 일붕계보(족보) 출판기념 등 다채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일붕문도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셔서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본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9월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

명예회장 : 무찰, 학암, 지산, 도기
회 장 : 의륜 서주범 , 대 변 인 : 법천
상임부회장:용주
수석공동부회장:지공, 동봉, 천강, 화엄, 송산
부 회 장 :만주, 법장, 도천, 영수, 연화, 무애
지회장:덕산(서울), 삼주(부산), 일웅(대구), 청파(경남)
향운(전북), 정일(충북), 택봉(충남), 각운(강원)
대성(제주), 해동(경북), 법천(경기북부),
대명(경기남부), 보현(비구니회장)
기획위원장: 김소부
사무총장:이붕 서병열

- 다 음 -

● 일시 : 불기2555년 10월 10일 양력
(음력 9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63빌딩 3층 그랜드볼룸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전화 : (02)789-5803

● 문의전화 : (02)355-0093(일붕문도회)
(02)777-0901
(02)777-0959(일붕신문사)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2011 빛고을 아카데미 21일 첫 강좌 –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

올 때는 몰랐지만 갈 때에는 바로 알고 갑시다

'2011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21일 강연을 시작했다. 행사는 호남지역의 불교활성화와 직장인 및 청년들에게 불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기 작가들을 초청해 책 속에 담긴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우승택의 생테크 날줄 원각경〉을 저술한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가 첫 강연자로 나서, 〈원각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승택 대표는 "베틀의 씨줄이 날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원각경〉은 인생의 베를 짜는데 꼭 필요한 경전이다"라고 말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모든 일엔 방법 · 공식 있다

팔만대장경에는 우주 · 법계의 이치 등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곳에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인간 세상의 먹고 사는 문제는 베틀의 씨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 예절, 기타 전문지식을 다 공부해야 하듯, 씨줄을 잘 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틀의 씨줄은 날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는 베틀의 원리이자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날줄을 한자로 표시하면 경(經)이 됩니다. 그 경의 의미는 근간, 표준, 기준 등이 됩니다. 이렇듯 경전의 가르침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법과 공식이 따릅니다.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웬만한 공식과 절차로 풀 수 있습니다. 〈원각경〉은 인생이란 베를 짤 때에 날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각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12보살들의 질문입니다. 〈원각경〉은 아난이나 수보리, 사리자 같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살로 화현해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각경〉은 〈능엄경〉과 같이 수행체계에 대해 설한 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마 대사가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행을 한 것인지, 성철 스님이 장좌불와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마장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각이 있습니다. 원각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 번의 번뇌와 망상, 사랑과 미움 같은 탐진치라는 오물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진여와 보리, 열반과 바라밀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폐수처리 장치도 없고, 우리 자체가 폐수에 오염이 돼 있어, 진여 보리 열반 바라밀 같은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면 진여 보리 열반 바라밀이 흘러들어 오게 됩니다. 맑은 물은 무엇이든 맑게 비출 수 있어, 세상사의 지혜가 다 드러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2011 빛고을 아카데미에 참석한 청중들이 예불을 올리고 있는 모습.

결국 아무것도 없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오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에서 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공의 아는 무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 화합해 일시적으로, 인연의 가합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법공은 법이 공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세계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화합해 생각으로 나타난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상세계, 물질세계, 혹은 기세간 등을 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께서는 "법도 중생들의 마음이라 역시 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한다고 믿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무명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있는 것'이며 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현 보살은 "세존이시여, 마음도 환(幻)이고, 몸도 환(幻)이고, 몸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다 환(幻)인데 어떻게 환으로 수행하라는 말인가요?(世尊, 若彼衆生 知如幻者 身心亦幻 云何以幻 環修於幻)"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으로 환을 닦는 것도, 단지 그 이치만을 알라는 말입니다.

"선남자여, 환인줄 알면 환을 떠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을 떠나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느니라.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이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아야 모든 환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는 〈원각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열치열이고 이환치환이니, 허깨비 같은 몸과 마음이지만 그 허깨비 같은 몸과 마음으로 허깨비 같은 수행을 하다보면 나무와 나무를 서로 비비면 결국 아무 것도 없듯이, 그 아무 것도 없는 자리가 원각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무명으로 업을 짓지 말고 원력으로 업을 지어 각자의 업의 그물을 다시 짜고, 법계의 살림살이를 다시 차려 운명을 뛰어넘은 새로운 원력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개조명운 심상사성(改造命運 心想事成)'입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보통 계절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곤 합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법계에 두루 가득한 기운이 겨우내 잔뜩 움츠려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생물이 생동하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온기를 취해 녹으려 하고, 나무는 우주의 기운을 당겨 싹을 돋우고, 잠자던 동물들도 기지개를 켜며 법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사막의 캐러반들이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낙타의 등에 짐을 얹습니다. 주머니 하나, 가마니 하나, 보따리 하나씩 낙타 등에 얹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어느 한 계점에 달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올린 바늘 하나의 무게로 낙타의 등은 절단이 납니다. 이처럼 봄의 생동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의 에너지를 근근이 이어가며 사는 노인들에게 약간의 기운을 풀이나 개울이나 나무나 동물들에게 빼앗겨도 생명을 잃게 되는 한계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풀에게도 가고, 나무에게도 가고, 사람에게도 가고, 돌에게도 가듯이 우주의 다라니문도 그렇게 골고루 평등부동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법성게의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입니다.

중생들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 얻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백천가지 우주 법계의 빛이 내게도 오고, 내 자식에게도 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부처님에게 "제가 미워하는 저 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 놈에게는 주시지 말고, 저 놈 때문에 피해받는 착하고 불쌍한 저에게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미워하는 그 사람의 그릇이 내 것보다 크다면, 나보다 법계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중생의 차별심을 떠난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평등부동의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길은 우주의 이치, 법계의 이치, 그리고 다라니의 이치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길 밖에 다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것, 그것이 〈금강경〉 사구게에서 말하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고, 그 일체유위법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여기며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관하십시오.

정법과 사법이 다 각자가 업 놀음 하는 환(幻)의 장난입니다. 사랑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든 인간살이는 단지 한 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그 연극을 실제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세상과 자신이 온 몸으로 부딪히는 세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예와 이익과 환대를 받고, 아무리 수천만금의 재산을 모았어도 저승에 갈 때에는 눈을 부릅뜨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때는 모르고 와도 갈 때는 알고 갔으면 합니다.

> 세상은 환상으로 가득차 있다
> 환상을 떠나면 그 자리가 깨달음
> 그릇의 크기따라 얻는 이득 달라
>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곧 깨달음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

The 26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n Buddhism

제2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접수기간 | 2011. 10. 17(월) ~ 10. 20(목)

작품접수처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www.buddhism.or.kr

■ 제출방법 및 작품규격

• 공통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표지는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제출방법(변경사항)
1) 모든 작품 (설명서 + 실제 작품) : 방문접수
가) 설명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고 표지를 포함(한 면만 사용) 총 2매 이내로 한다.
나) 작품제작 의도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은 둘째 페이지부터 1매 이내로 한다.
• 작품 규격 (※규격을 초과한 작품은 접수 받지 않음)

부문	규 격	세부사항	비 고
회화	세로227㎝×가로181㎝ (150호) 이내	액자의 경우 외경 크기임	사경(변상도 있는) 판화 가능
조각	높이180㎝×폭180㎝ ×두께120㎝이내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	석조인 경우 옥외전시 가능
공예	높이180㎝×폭120㎝ ×두께120㎝이내	병풍의 경우 펼쳤을 때 외경 크기임	서각 가능

• 기타사항
1) 작품설명서(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모든 작품은 작품설명서(2매)와 실제작품을 함께 제출함
4) 작품제출 시 규격을 초과한 작품이나,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 불가함
5) 공동작품일지라도 응모자는 1인으로 명기함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2011년 1월 1일 현재)

■ 응모원서배부 및 작품접수

• 원서배부기간 : 2011년 9월 19일 ~ 10월 20일
• 원서배부처 :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다운로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실제작품 및 작품 설명서 접수 :
기 간 : 2011년 10월 17일 ~ 20일 (4일간)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 응모비 : 1점당 50,000원(1인 2점까지 응모가능)

■ 심사발표 : 2011년 10월 25일, 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최우수상은 상장외에 해당기관장상을 추가 수여함)

시상내역	작품구분	상장 및 상금	비고
대 상	1명	상장, 1,500만원 (작품 종단 귀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최우수상	2명	상장, 5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
우 수 상	3명	상장, 3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장 려 상	6명	상장, 1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특 선	00명	상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입 선	00명	상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시상식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1년 11월 29일(화)
• 전시일정 : 2011년 11월 29일(화) ~ 12월 15일(목)
• 장 소 : 불교중앙박물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內)

■ 문의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TEL: 02-2011-1772, FAX: 02-722-2606
http://www.buddhism.or.kr

주최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_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후원 _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미술협회, 동국불교미술인회, 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TV, 불교방송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힘의 공백이 가져온 공허함 채워준 역사서

1. 기록의 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그 기록이다. 즉 과거로부터 자기 민족이 경험한 일 또는 기록을 말한다. 해서 역사는 인류가 과거에 행해온 사건이자 인간 사회가 독자의 운동 법칙에 따라 발전하여 온 과정이 된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인식틀을 넓혀준다.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서는 당대의 사가가 평가하고 해석해 온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사마천은 궁형의 치욕을 감당하면서 감옥 속에서 〈사기〉(100권)를 저술했다. 그의 의식 속에서 궁형은 순간이었지만 역사의 기록은 영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양 역사의 아버지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하늘은 한 시대의 기록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 하늘은 자신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가에게 역사의 기술 자격을 부여했다. 해서 역사의 기록은 누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백성의 명령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사가에 의해 기술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인간 삶의 현상에 대해 통효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 역사의 발전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주체적인 역사 인식에 의해 역사를 기술한다.

일찍부터 한민족은 문자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 그러한 인식은 역사 기술에서도 두드러졌다. 우리 역사를 기록한 서책은 고구려의 〈유기〉(留記, 태학박사 李文眞이 〈新集〉5권으로 요약), 백제의 〈서기〉(書記, 박사 高興)와 〈백제신찬〉 그리고 신라의 〈국사〉와 〈삼국사〉 및 〈화랑세기〉(金大問) 등과 가야의 〈가락국기〉(金陽溢)이다.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는 이들 선행 역사서들의 주체적인 집성이자 새로운 대안사서(代案史書)이다. 여기서 '대안'이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안을 대신할 안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대안사서'란 종래의 사서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대신할 사서를 의미한다. 때문에 일연의 〈삼국유사〉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의 〈삼국사기〉를 대신할 사서임을 상징하고 있다. 서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세 나라의 (정사에서) 빠진 이야기'[三國遺事]란 명명은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고려 전기 이래 백성들은 왕권과 문신 귀족 중심의 질서에 익숙해 있었다. 중기에 들어서면서 무신들이 집권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송나라 중심의 중국 관념이 무너지고 원나라 중심의 중국 관념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었다. 백성들과 지식인들은 무신들의 집권과 송나라의 멸망 그리고 원나라의 건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는 새로운 역사인식과 세계인식을 가능케 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주류의 붕괴와 정통의 소멸 사이에 생긴 '힘의 공백'이 가져다 준 공허함을 채워준 사서였다. 그것은 대안사서에 대한 요망과 함께 새로운 역사 편찬의 실마리가 되었다.

2. 일연의 살림살이

〈삼국유사〉의 찬자인 보각(普覺) 국사 일연은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불교계의 고승이다. 그는 분황원효(芬皇元曉; 617~686)의 고향이었던 장산(경산)군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견명(見明)이었다. 자는 회연(晦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然)으로 고쳤다.

일연은 1214년(9세)에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에 기탁하여 공부했다. 뒤에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출가한 뒤(14세) 뒷날 구족계를 받았다. 1227년(22세) 이후 승과고시(選佛場)에서 상상과(上上科:최고 성적)에 합격했다. 그 뒤 수행에 전념하던 중 1237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나말여초에 전국 각지에 성립된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문도로 자리매김 했다.

종래 史書 한계 대신 '대안사서'
세나라 정사에서 빠진 것 모아
일연의 자유로운 인식 담겨 있어

일연은 계속해서 선사와 대선사의 승계를 거치면서 당대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우러름을 받았다. 1249년부터 수년간 남해 분사도감의 주맹(主盟)이 되어 〈대장경〉 간행사업에 관여했다. 뒤이어 선월사 오어사 용천사 운문사 등 주요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1283년(78세)에는 국사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에 인각사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구산(九山) 문도회를 두번이나 개최했다. 그 뒤 일연은 선문의 법회를 이끄는 열정을 보이다가 84세에 입적했다. '일연비문'은 그가 '멀리 목우(지눌) 화상을 이었다'[遙嗣牧牛和尙]고 적고 있다. 가지산문의 사문인 일연이 사굴산문의 사문인 목우자의 법을 이었다는 것은 세계와 역사에 대한 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연은 국사의 자리에 오른 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인각사로 내려왔다. 사진은 인각사 전경.

당시 선종 승려들의 산문 귀속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내규가 있었다. 산문의 이동은 왕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쉰한 살이 되던 해 남해의 두륜산 길상암에 머물던 그는 '평소 꿈꾸어 오던 일'이라며 조동종의 주요전적인 〈조동오위〉를 중편(重編)하여 간행했다. 그가 가지산문의 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미산문의 전적인 이 저작을 재편집하여 간행을 했다. 이러한 점은 〈삼국유사〉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일연의 선사로서의 자유로운 세계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그의 비문 속에 〈삼국유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선사로서의 위의를 드러내는 엄숙한 행장 속에 정사와는 다른 야사류의 기록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관점과 달리 민지(閔漬)가 비문을 저작할 시기에 아마도 〈삼국유사〉가 공식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일연은 우리 역사를 집성하여 전승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 자료들을 편집하고 보완하면서 깊은 애정 속에서 〈삼국유사〉를 집성했다. 이 텍스트가 비록 신라 중심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한 자 한 구절(一字一句)도 가벼이 보지 않고 당시에 남아있던 갖가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요약 채용했다는 점은 여타의 저작들과 구분되는 이 저술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의 노력이 앞 시대 김부식의 〈삼국유사〉와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1215)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성이 이 저술을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 부르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자료 수집하여 검토·요약
정사의 무미건조함 탈피한 역작
중국 문헌 참고하나 주체성 확보

3. 〈삼국유사〉의 간행 연기

하나의 책이 간행되는 과정은 고대나 현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저자는 책의 집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다. 그 위에서 해당 원고를 집필하고 집필한 원고를 교정한다. 그 뒤에 원고를 판각한 뒤 인쇄 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일연은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국왕들의 연대기인 '왕력'(王曆)편을 비롯하여 일반사서인 '기이'(紀異)편, 그리고 불교문화사인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편 등은 모두 오랜 시간동안 자료를 편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일반사인 '기이'편은 국사(國師)의 신분으로서 강화도에 옮겨진 여러 관찬사서들을 섭렵하면서 채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삼국유사〉는 유교적 편집 제강이 요구하는 편찬 목적, 절차, 양식, 자료의 선별 표준, 문장 표현의 체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연은 애초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책을 서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오히려 그러한 제강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정사(正史)의 무미건조함과 천편일률성을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창안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엮은이는 역대 고승전의 제강을 주체적으로 흡수해 우리 사서의 편집 제강으로 발효 숙성시켜 냈다. 이것은 각 편명과 조목명의 부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평소 일연은 삼국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를 밝히기 위해 이미 사라진 〈구삼국사〉 등의 사료를 발굴 정리했다. 그는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항목의 주체성을 살리려 애를 썼다. 중국의 자료는 단지 27종만 원용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료는 50여 종이나 활용했다. 특히 고기, 향기, 비문, 고문서, 전각 등을 다양하게 인용했다. 해서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 이름이 '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 또는 '세 나라의 잃어버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나라의 '되찾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일연다례제

이를테면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시원인 고조선을 필두로 북부여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말갈 발해 예맥 옥저 졸본부여 동부여 변한 백제 진한 신라 가야 통일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마진, 태봉), 고려 등 20여 나라의 건국 시조와 시조신 및 인물과 유물, 유적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을 새로 붙인다면 '삼국유사'가 아니라 '십국유사' 또는 '이십국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저술의 의도와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일연은 종래 신라 관계 불교 사적의 잘못 전해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편의 절반 분량을 이곳에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 사찰의 사적과 이름난 승려의 행적, 명승고적에 관한 설화와 고대 조각, 건축 등을 다량 실었다. 나아가 그는 새로 수입된 외래 불교사상과 기존에 있던 사상생활과의 모순 또는 동화 과정을 보여 주는 사상사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실었다. 마침내 일연은 이러한 '금상'에다 우리 민족의 심미안과 감수성을 담고 있는 향가 14수와 가사 두어 수 및 찬시 48편의 '꽃'을 덧붙였다.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그의 평생고독은 물고기가 흘리는 눈물 같았다

⑯ 서산 개심사(開心寺)

'부처니 중생이니 내 알 바 아니니 / 평생을 그저 취한 듯 미친 듯 보내려네 / 때로는 일 없이 한가로이 바라보니 / 먼 산은 구름 밖에 층층이 푸르네' 〈경허집〉

경허(鏡虛;1894~1912) 스님은 늘 고독했다. 고독은 시를 쓰게 했다. 동학사에서 강사를 지내던 스님은 어느 날 동학사를 나와 고향으로 향한다. 스님의 글 곳곳엔 '호서로 돌아가는 승 경허'라는 대목이 있다.

꽃잎이 얼마 남지 않은 백일홍 위로 가을비가 떨어진다. 붉은 잎이 섞이기 시작한 단풍나무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차가운 비에도 나비들은 날고, 거친 바람에도 산새들은 나무를 떠나지 않고 있다. '호서로 돌아가는 승', '경허'가 어느 날 문득 동학사를 나와 생사의 절박함을 묻고 깨달으며 찾아갔던 개심사다.

개심사는 654년(백제 의자왕 14)에 혜감(慧鑑) 스님이 창건했다. 당시의 이름은 개원사(開元寺)였다. 1350년(고려 충정왕 2)에 처능(處能) 스님이 중건하면서 개심사로 바뀌었다. 개심사는 한국불교 선종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 스님이 한동안 머물며 정진했던 곳이다. 1740년(조선 영조 16)에 중수를 거치고 1955년에 전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맹호와 같아 / 독하고 악하기가 하늘을 뚫고 나네 / 짝 지은 학은 구름 저편으로 가는데 / 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거나' 〈경허집〉

평생, 도반에 목말라했던 스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눈물을 흘리듯 고독 속에서 고독해야 했다. 물고기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스님의 고독도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고독하다면, 그 고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개심사에 가볼 일이다. 평생 고독하기만 했던 한 선지식도 그 옛날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는 절, 개심사. 안양루 처마에 매달린 풍경엔 물고기 없다. 어디로 갔을까. 남 몰래 울고 싶어 물을 찾아갔을까. 고독해 보이는 풍경만 가을비를 맞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기둥과 대들보로 사용한 심검당

미얀마 관광청 승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가이드+기사 팁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 인도 골드트라이 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 부탄 왕국 시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축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장경 축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dustour 인더스투어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참가안내

출 발 일 9/23 ~ 11/6 기간 중 매주 수요일, 토요일 총 13회 출발(서울-광화문-사당역)
9 월 : 24(행사마감), 28(행사마감)
10월 : 1(행사마감), 5, 8, 12, 15, 19, 22, 26, 29
11월 : 2, 5

참 가 비 성인 55,000원 P/P , 아동 50,000원 P/P

포함내역 왕복버스비+중식(이화장정식)+주행사장입장료+합천영상테마파크+해인사+여행자보험

문 의 02)2252-3226, 2252-8226, 722-4028

담 당 자 이명균차장, 정경미 사원

불교성지순례의 새로운 이정표 인더스투어 www.industour.com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롭고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문의
02)2252-8226 담당_손태호 이사

우왕좌왕 하는 시대 '정법'으로 갈 길 밝히다



천년 은행나무 닮은
영동 영국사

-5월 갑신일에 선경전에서 5일간 소재도량을 개설했다.
-6월 무오일에 왕이 대관전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7월 신사일에 대관전에서 3일간 소재도량을 개설했다.
-9월 계미일에 승려 덕소(德素)를 왕사로 삼았다.
-10월 갑진일에 선경전에서 백고좌를 베풀고 〈인왕경〉을 강독했다. 을사일에 3만 명에게 반승 했다. 임자일 밤에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절의 승려 및 부위군(府衛軍)들이 불을 끄려고 궁궐로 왔다. 정중부, 이준의 등이 숙직하고 있었는데, 이의방 형제가 변이 있을까 두려워 궐 안으로 달려 들어가 자성문을 닫아걸고 불 끄러 온 자들을 들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궁전이 모두 불탔다. 왕은 산호정으로 나가 통곡했다.

〈조선불교통사〉(이능화, 동국대학교출판부 刊)에 정리된 고려 제19대 명종(明宗) 재위 원년(1171, 기록에 따라 이해를 명종 2년이라고도 하고 원년으로도 하는데, 명종은 1170년 9월이 즉위함)의 불교 관련 사건들입니다. 지금(2011년)으로부터 840년 전, 고려가 건국되고 252년 뒤의 일입니다. 누구보다 불심이 강했던 고려태조는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승려들을 위해 각종 우대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고려왕조 초기부터 건국의 주축이었던 무신과 불교에 대한 견제 내지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필두로 백성들의 살림살이까지 총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심이 혼란하고 정치가 난맥상을 이루게 됩니다. 태평성대란,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정치조직, 집권층에 이르기까지 힘의 균형이 원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체적인 힘의 균형이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고려왕조 474년 역사에서 그 균형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는 힘의 주축에는 불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태조 이래 불교에 대한 각종 특혜가 불교를 통치세력 내지는 통치의 조력세력으로 변질되게 했던 것입니다.



영동 영국사 배경

각설하고, 서두에 든 사건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명종은 1170년 8월에 발발한 '정중부의 난'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인 제18대 왕 의종(毅宗)은 재위 24년 동안 술과 파티에 젖어 지내다가 반기를 든 신군부에 의해 폐위돼 거제도로 귀양 갔습니다. 명종은 얼떨결에 왕이 된 셈입니다. 군부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왕통을 이을 적임자로 지목되어 오른 왕좌. 그 첫 해에 명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5월에 소재도량을 열어 국태민안을 빌고 6월에 보살계를 받고 7월에 다시 소재도량을 열었습니다. 소재 도량은 왕이 주축이 되어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을 면하고 풍년과 태평성대를 비는 의식입니다. 고려왕조 474년 동안 130여 차례 열렸습니다. 나라는 신군부가 쥐락펴락 하고 왕은 부처님께 무사안녕을 비는 일에 5일, 3일씩 매달렸습니다.

9월에는 덕소 스님을 왕사로 모셨는데, 그 앞의 왕들도 즉위 원년에 왕사를 모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왕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에 화재가 났는데 신군부는 불 끄러 달려오는 승려들과 군인, 민간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궁궐이야 타건 말건 방금 정권을 잡은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목도하고 왕은 그저 통곡할 뿐입니다. '칼의 시대'를 증언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중부의 난은 무신들을 멸시하는 문신들과 국가권력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성공한 신군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



영국사 부도밭 전경. 부도 뒤로 영국사 원각국사 탑비가 자리하고 있다. 원각국사는 이 탑비로 인해 가장 분명히 행적이 드러난 고승으로 꼽힌다.

무신정권의 첫 왕조 명종의 왕사로 추대돼
의천-교웅으로 전해진 고려 천태종 맥 이어

아니라 새로운 집권 착취세력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100여 년 간 지속된 군사정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불교계 승려들도 밀착되어 있습니다. 거사 이후 신군부 내의 암투가 마침내 피의 숙청으로 번졌는데, 故 정중부의 아들 균이 아버지의 거사 동지인 이의방 형제를 암살하는데 종참이라는 승려가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서서 고려시대 불교를 다시 들여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본래 가르침,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책무, 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지위, 종교인의 자세, 종교와 문화 등 수많은 키워드를 동원해 고려시대의 불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혜 속에 돋아난 독버섯이 무성하고, 그 속에서 본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자는 외침 또한 성성합니다. 불교 혹은 종교가 권력과 밀착되면 어떻게 타락하는가? 정법을 외면하고 구복과 기복에 매달리면 어떤 혼란을 불러 오는가? 고려시대의 불교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중기로 접어드는 의종과 명종 때의 사회상에 비춰진 불교계의 입지는 한 마디로 '타락상'입니다. 무능한 왕실이, 격변의 정치권이, 대륙에서 밀려드는 문물에 흥청대는 경제가 불교계를 타락시켰을까요? 그러한 혼란상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불교계 역시 무능과 격변의 중심에 있었고 시류를 따라 흥청거렸던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다간 수행자, 명종의 왕사였던 원각국사(圓覺國師; 1107~1174)는 어떻게 시대의 균형을 맞췄을까요?

충북 영동 영국사. 천년 은행나무가 버티고 선 고찰 영국사 왼쪽 언덕에 원각국사의 탑비가 서 있습니다. 반은 깨져 나간 비석이지만, 몸돌을 받치고 있는 귀부의 우람한 형상은 원각국사의 당당한 인품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옆에 놓인 이수 역시 두툼한 조각으로 네 귀에 용두를 장식하고 중앙에 '원각국사탑비'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부도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탑비로 인해 원각국사는 영국사의 역사 속에 가장 분명하게 행적이 드러난 고승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성난 파도가 산과 같이 솟았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싸여 우왕좌왕 했다. 이때 스님께서 태연히 '보문품'을 독송하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풍랑이 저절로 가라앉아 무사히 건너갔다."

원각국사 인품 반영한 듯 당당한 탑비
불법으로 난세 불균형 치유했던 선지식

"갑신년(1164, 의종18년) 여름 날씨가 오래 가물었으므로 의종이 문명궁에서 강설법회를 열고 스님을 초빙하여 강주로 추대했다. 강경을 시작하자마자 큰 비가 쏟아져 전야(田野)와 식수가 완전히 해갈하여 그 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비문에 기록된 원각국사의 행적 일부입니다. 난세의 중생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균형이 맞지 않아 평온할 수 없는 때에 고요히 '보문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마음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바로 시대의 큰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군사정권의 시작과 왕권의 약화에 따른 갖은 혼란상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힘없는 왕은 국사의 인품과 도력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각국사는 고요히 시대를 응시하면서 부처님의 법으로 난세의 불균형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각국사는 고려 천태종의 창시자인 대각국사 의천의 직계 제자 교웅(敎雄) 스님에게 출가했고, 법을 배워 득도했습니다. 스승 교웅 스님은 항상 "나의 종지를 중흥할 자는 반드시 이 사미일 것"이라며 제자의 법기(法器)를 은근히 드러내 보였다고 합니다. 스승의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 천태종의 법맥은 의천-교웅-덕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의천이 머물며 수행하던 영국사는 고려 천태종의 본산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천태산이라는 이름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천태산(714m) 정상에 서면 사방의 크고 작은 산들이 연꽃을 방불케 합니다. 높고 낮은 산, 넓게 혹은 좁게 이루어진 들과 계곡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두가 하나의 장엄도량이니 굳이 입으로 〈법화경〉을 읽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법화삼매인 겁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원구형 부도와 석종형 부도를 뒤로 두고, 전각 안에 서 있는 원각국사의 비는 천년 은행나무와 더불어 천태산의 보물이고 영국사의 정수(精髓)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푸른 기상이 세월을 초월해 있다면 원각국사비의 침묵은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두두물물이 불성이요, 보이는 모두가 부처의 현현이니 은행나무도 국사의 비도 시공을 떠난 도량에 있는 것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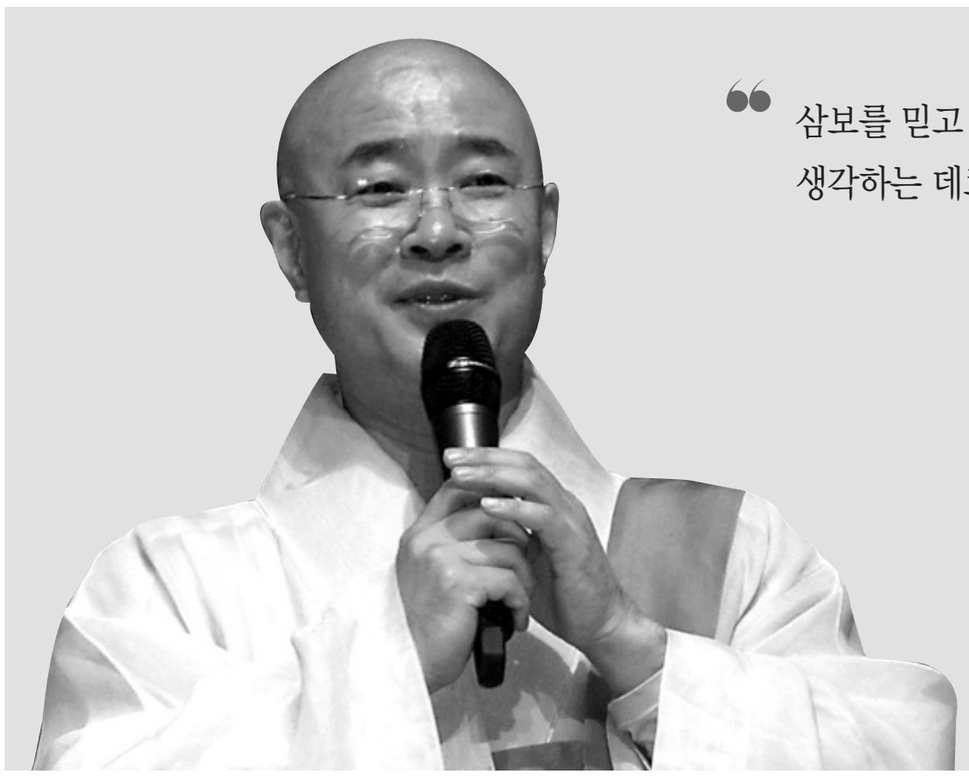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내 인생은 내 자신이 부여하는 만큼 의미를 갖는다

동국대 'Pride Dongguk 지성 콘서트' 첫번째 강사-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



"삼보를 믿고 진실로 맹세하면 생각하는 데로 이루어진다"

월호 스님은…고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았다. 스님은 1994년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7안거를 성만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우리시대 리더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강좌를 열었다. 'Pride Dongguk 지성 콘서트' 교양강좌는 가을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본관 중강당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좌는 강연과 대담, 공연 형태로 진행돼 초청 인사들과 학생들 간의 교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초청 연사로는 월호 스님, 김희옥 총장,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이제범 카카오톡 사장, 세계 최초 개인용 인공위성발사 예정인 송준호 미디어아트작가 겸 과학자, 임권택 영화감독과 신문설 축구해설가 등 12명이다.

9월 20일 열린 첫 강좌에서는 월호 스님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를 주제로 강연했다. 월호 스님은 동국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승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님은 특히 많은 저서와 방송 활동을 통해 불교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풀어내는 불교계 라디오 스타로 유명하다. 강연은 행불선원 합창단의 음악 공양과, 스님이 불교TV에서 방송중인 '삶은 환(幻)타지다' 를 10여 분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리= 천진영

불교는 자력과 타력의 합(合)

삼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 보물입니다. 삼보를 믿고 진실로 맹세하면 그것은 이루어 지게 돼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생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에 초월적인 힘을 기대 합니다. 내 힘만 갖고 모든지 해내는데 충분하다면 종교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로 할 때는 삼보에 대한 명상과 진실의 맹세를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합께 말합니다. 자력과 타력을 같이 사용하여 하루 빨리 각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자력신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력만 갖고 할 수 있다면 기도는 왜하고 절에는 뭐 하러 가겠습니까? 불교는 인연법을 말합니다. 인(因)과 연(緣)이 합쳐져서 과(果)가 나온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각에만 이르면 된다. 연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인은 주관적인 노력입니다. 연은 것은 객관적 요인. 즉 주변 상황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만알고 연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노력 안하면서 계속 주변 탓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연만알고 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인도 잘되고 연도 잘돼야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인연설입니다. 중도주의. 즉, 합리주의입니다.

똥배를 집어 넣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똥배를 집어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지선다형으로 보기를 드릴게요.

①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린다. ②모든 것은 신의 뜻이니깐 신에게 기도한다. ③고행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면 똥배가 들어갈 것이니 똥배가 주는 불편함과 고통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④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린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스님이 말하니깐 ③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④번이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부처님은 인과설을 말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냥 "에잇, 사는 게 다 그렇지"하곤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요? 출가에서 공부는 '내려놓는 것' 을 배우는 일입니다. 사회에서의 공부는 쌓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고 지식을 쌓고 부귀영화를 쌓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알려면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몸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행불선원에 중3 학생과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부모가 말하기를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갑자기 공부를 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원래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삶의 의미' 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 습니다. 왜 사는지.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하는지, 좋은데 취직하고 남들 보기 그럴 듯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지 의문이 생기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만사가 다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울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3 학생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와의 비밀이라며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삶의 의미란 "인생에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다. 내가 부여하는 만큼 생긴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내려놓는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 각자가 부여 하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양자물리학자들이 빛을 분해해서 '미립자' 라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라고해서 미립자라고 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 미립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를 두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립자는 관찰자의 견해에 따라 파동으로도 나타나고 입자라도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과학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다. 스스로 인생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에는 우주보다 더 큰 거대한 마음이 있다. 그 거대한 마음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본래 주어진 목적은 없습니다.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월호 스님' 을 인식하는 여러분의 생각도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금방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곳을 '공(空)' 이라고 말합니다. 공사상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텅 비어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최근 〈아프니깐 청춘이다〉를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여러분이 방황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끈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춘은 공(空)입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내 관점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내가 창조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또, 나의 작품이니깐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잘 사는 방법

요즘은 취업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취업에 정말 관심 많을 것입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 본문에 거창 고등학교에 취업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몇 개 적어 왔습니다.

①월급이 적을 쪽을 택하라. ②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③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④모든 조건을 갖춰 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⑤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라. ⑥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등입니다.

십계명 열가지의 표현은 모두 달라도 모두 '블루오션' 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 충족하는 직업도 정말 드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출가' 외엔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

출가자들에게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려라"고 하지만 재가자들에게는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리자는 내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거나 내려놓을 때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총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춘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大관음사 행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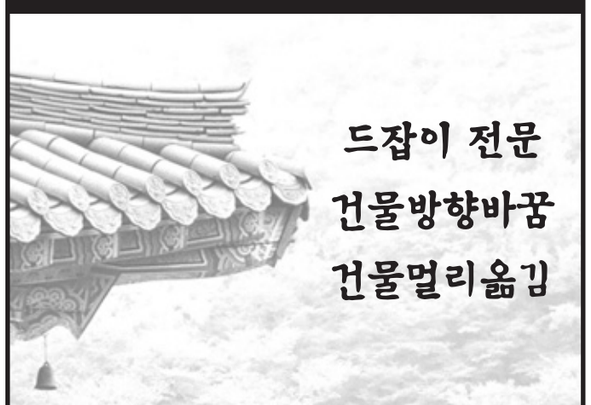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수행 기간 중 대념처경 특강)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적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10월 15일 – 10월 21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통역: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0월 15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21일 오전 12시
■ 참 가 비(대념처경 특강 및 수행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뉴욕에 와본 사람만 뉴욕을 안다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 사이 외유내강 대담

올해 초 동화사에서 열린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유니온 신학대)의 종교간 대화에 이어 9월 16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도 종교 평화를 주제로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가 성사됐다. 이날 대화는 폴 니터 교수가 진제 스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제 스님(사진 좌)과 폴 니터 교수(사진 우)가 종교간 대화 후 합장의 예를 취하고 있다.

진제 스님, 폴 니터 교수 대담 통해
평화 공존 위한 선 수행 중요성 공유

폴 교수, "실천적 행동 고민했다"
진제 스님, '참나의 깨달음' 강조

폴 니터 : 스님께서 올해 초 내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나의 참 자아는 무엇이냐'라는 화두를 주셨다. 나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바꿨다. 그리고 이 화두를 갖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수행해왔다. 이에 대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제 스님 : 바른 수행을 하려면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을 만나야 한다. 지금까지도 분별없이 살아 왔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결론을 봐야 한다. 정초에 와서 어떤 것이 진리냐고 내게 묻길래 분명히 말해 줬는데 몇 달 안에 변질됐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생사의 고통을 깨닫고, 진아의 독보적 경지에 이르러야 중생을 지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폴 니터 : 한국에 오기 전 내게는 티베트의 스승님이 계셨다. 그 스승님과 내게 화두를 주신 진제 스님 중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나 고민했다. 진제 스님의 화두를 갖고 티베트 스승님과 논의했더니 기독교적 화두로 바꿔보라고 하셨다. 스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다. 수행을 오래하셨는데,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진제 스님 : 수행을 하면 세상과 산사의 생활이 둘이 아니다. 대도를 깨달으면 모든 중생의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리의 낙을 누리는 법이다. 꿈을 깨면 세상사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폴 니터 : 우리가 깨닫고, 지혜로워져서 그 지혜 때문에 자비로워지는 방법도 있지만, 자비행을 하거나 누구로부터 받다보면 그 자리로부터 깨달음에 도달하고 지혜로워진다고 배웠다. 특히 나의 큰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이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사랑)가 크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에 스님에게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서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꾼다고 그것이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것과 연결이 될까? 우리의 욕심은 구조적 욕심에서도 비롯된다. 개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욕심과 탐욕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연관되는지 의문이다.

진제 스님 : 산승이 이번에 뉴욕에서 법회를 한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를 뛰어 넘어 개개인의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고향을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자타가 없다. 너와 내가 없어 욕심도 없다. 온 인류와 세계가 평등하다. 이런 평등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 투쟁도 없다. 온 인류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않게 된다.

개개인이 세계평화를 갈구할진데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인가'하는 화두를 의심하고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행하지 않고서 세계평화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내 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허송세월 마시길 바란다. 세계가 둘이 아닌데 무슨 허상이 있겠는가.

폴 니터 : 나의 티베트 스승도 비슷한 대답을 해주었다. 사회 구조악을 타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셨다. 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라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갖고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에서 부산의 한 여성 노동자가 200일 넘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 중이라고 들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도 들었다. 강정마을은 미국이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진제 스님과 승가의 스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다.

진제 스님 :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 세상일은 항시 대립각을 세운다.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비에 말리면 일생을 낭비하게 된다. 시비에서 벗어나 도를 닦는 것이 근본 취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선행하는 것은 근본이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증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폴 니터 : 스님 말씀에 동의한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나섰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언제까지 행동에 앞서 깨달음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다.

진제 스님 : 한편으로는 자아를 닦는 수행,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행에 성과 열을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를 행하는데 있어, 근본 초점은 자아와 진리를 깨닫는데 둬야 한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폴 니터 :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겠다. 제가 기독교에서도 못된 질문 자주해서 마녀다, 이단이다 하며 욕을 먹는다.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눈 밝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스승의 중요성은 잘 안다. 그런데 부처님은 스승이 없지 않았는가?

또, 스님께서는 40명을 지도했는데 한 명도 인가를 안 했다고 하셨다. 만일 내가 박사학위 학생인데 교수가 학위를 안 주면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기 무서울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네 안의 등불을 배워라.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가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진제 스님 : 인가제도는 진리의 바른 문을 여는 법칙이다. 세계적인 도시하면 뉴욕이다. 정치, 경제, 문화가 으뜸인 도시인데 안 와본 사람은 뉴욕의 전모를 알 수 없다. 그와 똑같은 이치다. 진리의 고향에 이르지 않고, 바른 스승에게 인증을 받지 않으면 눈 어두운 장님과 같아서 금은동을 가리지 못 한다. 가리는 것은 눈 밝은 스승의 역할이다. 뉴욕에 안 와본 사람은 뉴욕을 모른다. 같은 비유다.

뉴욕=박기범 기자

스님들이 바라본 '대화'

성문 스님 "보살도 강화해야"
원담 스님 "수행자 가치 인정해야"


성문 스님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종교간 대화' 이후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 원담 스님이 각자의 소감을 발표했다.

성문 스님은 폴 니터 교수가 진제 스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한 '깨달음과 실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스님은 전적으로 선 수행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선불교가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문 스님은 "선불교도 대승불교가 바탕이고, 대승불교는 보살도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다보니 현실 참여가 좀 부족하다. 한진중공업과 강정마을 사태를 불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교도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새가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한국 불교가 선 수행의 맑은 에너지와 사회 참여라는 또 다른 바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의 대화를 '부드럽고 강한 충돌'로 규정했다. 진제 스님은 일생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반면 폴 니터 교수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선방이나 수도원에서 일생을 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존재들을 어느 정도 용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개혁과 빈민구제에 나서라고 할 것인가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톨레랑스의 하나다"라며 수행자들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또 폴 니터 교수에게 티베트 스승이 있으면서도 한국 선불교를 찾는 이유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 한국 선불교를 찾은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폴 니터 교수는 "내게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있어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듯이 티베트 스승이 있어도 진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 간화선 때문에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화두의 힘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박기범 기자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중들 평소 궁금증 묻자
진제 스님 "깨달아라" 강조

시종일관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의 대화를 진지하게 듣던 파란 눈의 청중들은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질문을 두 사람에게 던졌다. 청중들의 질문 속에는 종교와 삶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고민이 묻어 있었다.

한 청중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그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거리를 두고 바라 볼 때만 가능한 것인가"하고 물었다. 유니온 신학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여학생은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깨달음을 얻으면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에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청중은 좀 더 인간적인 수행법과 깨달음을 얻으면 보인다는 완전한 세계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진제 스님은 여러 질문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 참나를 찾으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먹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다. 우리가 냉수를 마실 때도 마셔봐야 물이 맑고 담담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깨달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또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꾸준히 여여하게 정진하면 유종의 미를 거둬서 모든 성인과 같이 동고동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 니터 교수는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울라는 것이 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슬픔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현실과 우리 사이의 분리가 사라진다.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기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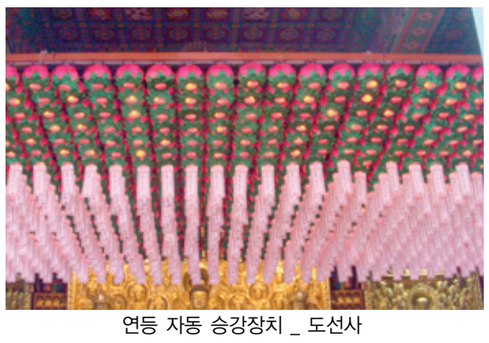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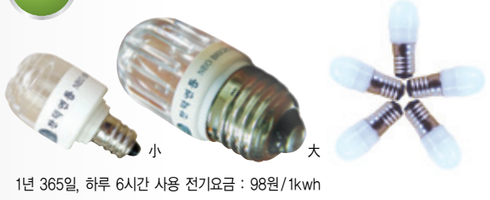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진리는 무엇?… 구구는 팔십일이다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 기간중 동화사 수좌스님들은 나흘간 유니온 신학대 학생들과 함께 실참 시간을 가졌다. 수좌스님들은 매일 교대로 학생들과 간화선에 대한 특강과 명상을 함께했다. 외국인들은 수좌스님들의 설명에 따라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좌선을 하고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겼다. 특히 9월 16일에는 진제 스님이 직접 실참에 참여해 외국인들에게 간화선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했다.



미국인들이 유니온 신학대에서 열린 간화선 실참에 참가해 명상에 잠겨 있다.

진제 스님이 간화선 실참 특강을 위해 유니온 신학대 강의실에 들어서자 주위는 금방 숙연해졌다.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미국인들은 진제 스님의 말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스님은 "왜 참선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로 특강을 시작했다. 진제 스님은 "육신은 거짓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참선을 하면 마음의 갈등과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사라지고 편안한 진리를 누릴 수 있다. 하늘과 인간 세계의 진리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참나를 밝히는 참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참나를 찾기 위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천번 만번 생각하라고 설명했다. 간절한 의심과 참선 끝에 비로소 진아(眞我)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좌선을 위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좌선을 할 때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손을 배에 붙이고 2m 앞을 바라보면서 화두를 들고 계속해서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특히 의심의 간절함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삼대독자 외아들이 죽을때처럼, 백년가약을 맺은 애인이 변심했을때처럼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화두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두 참선 중 의심 덩어리가 흐르다가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어느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난다고 설명했다. 화두가 박살이 날 때 비로소 깨달음의 길을 열 수 있다.

스님은 "화두 일념삼매에다 화두가 박살이 나면 어떤 화두도 팍팍 나오게 된다. 이렇게 바른문이 열리면 법문도 척척 나온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 간화선 실참 및 특강
참선 이유와 화두 참구 방법 지도

진제 스님은 법문 도중 중국 항소의 투자 도인과 수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청중들에게 화두를 통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투자 도인의 명성이 자자하자, 어느 날 한 수좌가 찾아왔다. 투자 도인은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하고 물었다. 그러자 수좌는 "중국 항소에서 왔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도인은 "항소의 천하제일 보검을 가져왔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수좌는 대답대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진제 스님은 일화를 설명한 뒤 청중들에게 수좌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 이유에 대해 물었다. 청중들이 아무도 답을 못 하자 스님은 폴 니터 교수에게 "연초에 화두를 받아갔으니 답을 해보라"고 말했다. 강의실은 순간 웃음바다가 됐고, 폴 니터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제 스님이 "천리 만리에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말해 청중들은 다시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청중의 웃음이 그치고 주위가 고요해지자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진제 스님은 "참선을 해서 정안(正眼)이 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매진해야 화두가 열린다. 금생에 화두에 매진해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서 참나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화두 특강 후 청중들과 대화를 통해 간화선과 선 수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강 때 스님이 소개한 일화에서 수좌가 땅을 가리킨 이유에 대해 한 청중이 "칼의 원료가 땅에서 나오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뒷북치는 소리다. 화두의 답은 번개처럼 빠르게 나와야 한다. 화살은 이미 서역을 가로 질러 날아가고 있다. 불쌍하도다"고 답했다.

또 다른 청중은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시기에 대해 묻자 스님은 행장 소개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제 스님이 33세이던 1967년 정미년 하안거 해제일에 향곡 선사가 해제 법문을 위해 법상에 올랐다. 진제 스님은 선사에게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알지 못하는 진리 한 마디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그러자 선사는 "구구는 팔십일이다"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그건 모든 부처와 성인이 아는 진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향곡 선사는 "육육은 삼십육이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에 진제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절을 올리고 방을 나섰다. 그러자 향곡 선사도 '오늘 법문을 다했다며' 조실 방으로 돌아갔다.

태어나기 전 '참나' 화두 참구
참선 통한 진리의 세계 모색 당부

진제 스님은 다음 날 장삼을 갖춰 입고 조실방으로 찾아갔다. 스님은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눈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향곡 선사는 "비구니 노릇은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제 스님은 "금일에서야 선사님의 살림살이를 바로 봤습니다"고 말했고, 향곡 선사는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고 물었다. 선사와 스님은 10년을 같은 절에서 지낸 사이였다. 진제 스님은 "관(關)!"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선사는 "옳고, 옳다"하시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법의 인증서를 진제 스님에게 내리며 산[生] 진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스승으로부터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견에 떨어지고 만인의 지도자가 되지 못 한다. 나를 찾아와 화두를 묻고 답을 하면 이런 인증서를 내릴 것이다. 참선에 매진해서 모두 도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 박기범 기자

美 신학생, 간화선 매력에 흠뻑 빠지다

쥴리아 버키, 법회 실참 모두 참여
"미국인 특성과 반대 오히려 장점"



"간화선은 미국인들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 중인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니온 신학대에 재학 중인 쥴리아 버키(Julia Burkey, 24 · 사진)는 진제 스님의 실참 특강 후 한국 간화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쥴리아는 한국 불교를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인도와 티베트 명상, 기독교 수행을 지속해 왔다. 그런 쥴리아에게도 간화선은 어렵게 느껴졌다.

"다른 명상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간화선은 좀 어렵습니다. 화두는 들고, 마음은 비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명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쥴리아는 진제 스님의 간화선 실참 특강에서 시종일관 좌선을 하고 참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 대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간화선과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육법공양을 하고 대북을 올리며 진제 스님의 법회를 알리는 모습 등이 쥴리아의 눈에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쥴리아는 간화선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국인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화선이 미국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쥴리아는 "미국인들은 말이 많고 빠른 답변을 원하는 특성이 있다. 간화선은 이런 것을 끊어버린다. 이런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 = 박기범 기자

"禪 명상은 이웃종교와 통하는 지름길"

유니온 신학대, 정현경 교수
10년 전부터 불교명상 교육



진보적 학풍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 신학대는 10년 전부터 매년 '불교 명상과 불교선사들과의 대화'를 가르치고 있다. 동아리 모임으로 시작한 이 수업은 정현경 교수(사진)가 학교측에 종교평화를 위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정규 수업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 신학교육과 종교간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영성훈련이라는 정 교수의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5년 전 처음으로 학교에 제안 했지만 반대가 많았습니다. 동아리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 호응이 높아져 지금은 3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현경 교수는 학생들과 다른 종교의 사원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월이면 미얀마, 쿠바 등 전 세계 평화운동 지역을 학생들과 함께 방문한 뒤 학교로 돌아와 종교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토론한다. 정 교수는 "말이 아닌 몸과 감성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선 명상은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어렵지만 빠른 길이다"고 말했다.

미국 학생들은 명상 경험이 부족하다. 특히 요즘 젊은 학생들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잠시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어 명상을 위해 한 참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니온 신학대 학생들은 금방 불교 명상에 적응했다.

"내가 무엇인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익숙한 학생들입니다. 한 학기가 지날 때면 학생들 사이에서 커다란 명상의 힘이 느껴집니다. 강의 종료 후에도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 박기범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토지 분석 전문가(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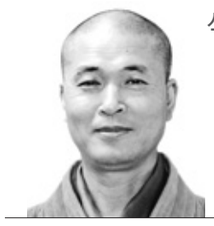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陽后人 洪吉童 靈駕 行孝 伏爲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모든 답은 자신에게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로자나불이야. 비로자나불."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毗盧毗盧

근원은 세상에 세 가지 몸을 나타내어 생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멸하게 한다. 하나는 법칙을 내는 부처이고, 또 하나는 응답하는 부처이고, 마지막은 가르치는 부처이다. 이것을 삼신불이라고 한다.

법칙을 내는 부처님의 이름은 비로자나불이라 하고 비로자나불은 각종 법칙(法)으로 만물을 생주이멸(生住異滅)케 한다. 비로자나불은 청정법신이다. 응답하는 부처님의 이름은 노사나불이라 하고 중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준다. 가르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라 하고 중생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

이 중에서도 만물의 근원인 비로자나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비로자나불의 스승은 무엇일까? 조주 스님은 "비로자나불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모든 답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부처님도 스승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 물었다.
"무엇이 제불(諸佛)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問 諸佛還有師也無 師云有 云 如何是諸佛師 師云 阿彌陀佛 阿彌陀佛

과거세에 법장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48가지 원을 세우면서 불국토를 건설할 것을 맹세했다. 그 뒤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면서도 48대원을 성취할 것을 거듭 서원했다. 드디어 지금부터 10겁 전에 성불했는데, 이름이 아미타불이다. 자신의 서원처럼 극락세계를 세우고 불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중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무량수(無量壽)이다. 수명이 끝날 때는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산다해 무량수이다. 아미타불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10겁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10번이나 무너져 가루가 됐다가 다시 세워지는 세월이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불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보다 먼저 부처가 됐다. 그래서 모든 부처의 스승은 아미타불이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스승은 누구일까? 그것을 알려면 '아미타불!' 하고 소리 질러 보라. 거기에 스승이 있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구름은 산세를 벗어나고 물 자체는 떨어지는 소리가 없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그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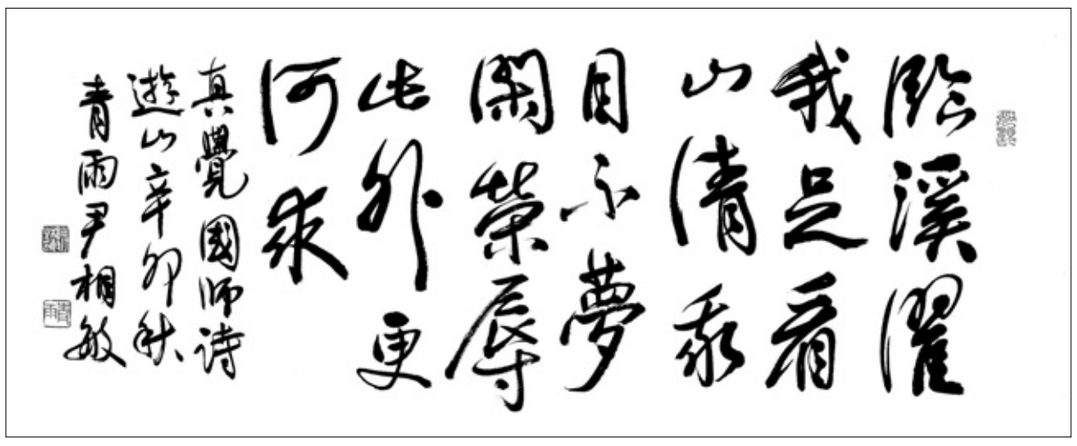
問 如何是學人師 師云 雲有出山勢 水無投澗聲 云不問者箇 師云 是你師不認

흔히 부처님도 스승이 없었고, 근대 말 경허 스님도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렇다. 부처님도 육사외도가 스승이었고, 과거 6불이 스승이었다. 경허 스님도 직접적인 스승은 없었으나 과거 선어록 속에 등장하는 많은 선사들이 스승이었다.

스승은 찾으려하면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그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진정한 스승은 그대를 안개처럼 조용히 젖게 한다. 스승의 가르침은 표가 잘 나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가리켜 주는 자도 없고 가리킬 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참된 스승은 그대 곁에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진각국사 詩



臨: 임할 임
溪: 시내 계
濯: 씻을 탁, 상앗대 도
辱: 욕될 욕
夢: 꿈 몽

청유진하차한목산아임
우산각구외영불청족계
윤신국 갱욕몽아간탁
상묘사
민추시

산놀이[遊山]

臨溪濯我足 看山清我目 不夢閑榮辱 此外更何求(임계탁아족 간산청아목 불몽한영욕 차외갱하구)
시내에 나가서는 내 발을 씻고 산을 바라서는 내 눈을 맑게 한다. 부질 없는 영욕은 꿈도 꾸지 않나니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랴 - 진각국사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원각경

부처와 보살의 수행문답

〈원각경〉은 수행과 깨침의 법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문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다. 이에 본래성불이라는 입장에서 그 삼매를 어떻게 수행하고 성취하느냐 하는 수행법과 깨침의 법문이다.

제일의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과거의 수행자 시절에 일으켰던 청정한 수행법 및 보살이 대승에서 일으킨 청정심으로 미래에 대승을 추구하는 말세의 중생이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에서 유출된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을 가지고 보살을 가르쳐서 영원히 무명을 단제하고 바야흐로 불도를 성취토록 한다고 답변한다.

제이의 보현보살은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묻는다. 여환삼매에 대한 그 대상과 주체, 여환삼매의 수행에 대하여 방편과 점차수습을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은 그대로 부동이라서 허깨비인 줄 알고나면 곧 그 허깨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다른 방편수행이 필요가 없고, 허깨비를 벗어나면 곧 그대로 원각이므로 역시 점차수행이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12보살 등장해 수행법 질문 이어져
삼매 위한 수행과 깨침의 법문 설해

제삼의 보안보살은 수행하는 점차에 대하여 어떻게 사유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방편을 닦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거하여 금계를 잘 지키고, 대중과 함께 거주하며, 고요한 방에서 좌선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점차로 닦으며, 여법하게 사유하고, 여법하게 유지하며, 여법하게 방편을 닦고, 여법하게 깨치며, 여법하게 교법을 추구하면 모두 미혹되지 않고 번뇌가 없다고 답변한다.

제사의 금강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에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여래는 다시 본래성불이라고 하며, 여래에게도 언젠가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묘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또 열반이 없고, 또한 성불과 불성불이 없으며, 허망한 윤회와 비윤회도 없으므로 중생이 일으킨 분별조작의 사유를 통해서는 원각의 방편을 얻지 못한다고 답변한다.

제오의 미륵보살은 여래의 대적멸 바다에 노닐고자 한다면 어떻게 윤회를 대치하고, 불보리를 닦는데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고,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어떤 종류의 교화방편을 시설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먼저 발원을 하고 올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이장(理障)과 모든 생사윤회를 상속시키는 사장(事障)의 두 가지 장애를 없애야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한다고 말한다.

제육의 청정혜보살은 일체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여래세존께서 증득한 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일체장애가 그대로 구경각이므로 원각의 자성은 차별된 자성이 아니라 평등한 자성으로 존재하는데, 다만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일체의 허깨비 모습을 멸제하지 못하고서 허망에 대하여 수행과정에서 소멸과 미소멸을 말하면서 곧 차별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제칠의 위덕자재보살은 수행자에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적정의 사마타 수행자, 중생교화의 삼마발제 수행자, 적멸의 선나 수행자의 세 종류가 있음을 말한다.

제팔의 변음보살은 삼종의 모든 방편을 원각법문에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스물 다섯 가지의 청정한 선정을 말한다.

제구의 정제업장보살은 원각심의 본성이 청정하다면 중생들은 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망상 때문에 네 가지 선병인 사상(四相)이 형성되어 전도되고, 이로 말미암아 증오와 은애의 경계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집착으로 업을 쌓고 생사유전하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십의 보각보살은 말세의 중생이 해야 할 다섯 가지 행위 곧 어떤 선지식을 찾고,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병통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해야만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선지식은 대승심을 일으켜서 바른 지견을 갖춘 사람을 찾고, 법은 작병 · 임병 · 지병 · 멸병을 벗어난 묘법에 의지하며, 수행으로는 선지식을 잘 섬기고, 병통의 제거로는 제법에 대한 나와 남 그리고 증오와 애착으로 벗어나며, 발심으로는 허공계가 다하도록 일체중생을 내가 다 구경에 원각에 들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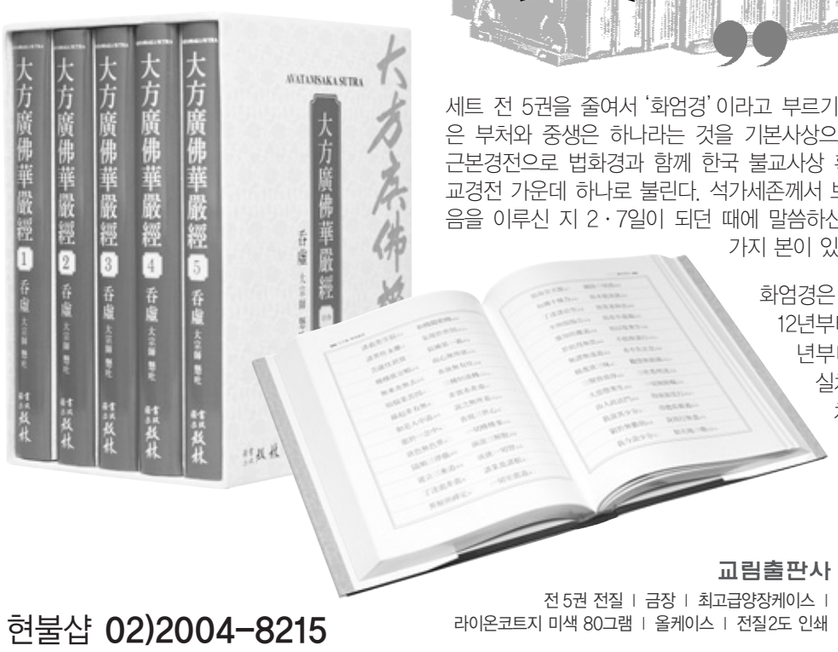
제십일의 원각보살은 아직 깨치지 못한 자의 경우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는데 어떻게 안거해야 하고, 관법 가운데 무엇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대중생활을 하고, 삼종의 기한을 정하며, 방일하지 말고, 서원을 세워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사마타를 닦고, 여래와 보살을 억상하며 삼마발제를 닦으며, 수식관으로 선나를 닦으라고 말한다.

유통분에서는 현선수보살이 등장하여 경전의 제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들어 수지하며, 중생이 수습하면 어떤 공덕을 얻고, 경전의 수지자를 어떻게 보호하며, 이 경전을 유포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경은 대방광원각다라니, 수다라요의, 비밀왕삼매, 여래결정경계, 여래장자성차별, 돈교대승 등 여섯 가지 제명으로 말하고, 경전의 공능과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의 공덕에 대하여 말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 · 새집증후군 · 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 · 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치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습도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현불샵 02)2004-8215

늙을수록 추한 나무 있을까



옛부터 청정한 존재로 꼽힌 향나무
번뇌 막으며 향기 응축, 선승 닮아

향나무 이야기

부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여 설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보았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을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게 했다. 아난이 종이를 가져오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종이인가?"

아난이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대답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인 듯합니다. 종이에 아직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길을 향했다. 한참 가다보니 새끼줄 한 토막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했다.

"저 새끼줄을 가져오너라."

아난이 새끼줄 토막을 주워오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새끼줄인가?"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본래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얻는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재앙이 따른다. 마치 저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여 향내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조금씩 물들어 가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법구비유경〉 권1

인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을 씻고 화장을 한다. 그러나 속에는 병과 부패물이 가득하다. 마음은 또 어떤가? 번잡한 탐욕으로 카오스 덩어리다. 화장품의 힘을 빌어 껍데기만 겨우 향기를 풍긴다.

향나무는 온몸이 향기 덩어리다. 목재 자체는 물론 줄기, 잎, 수액에서도 향기가 난다. 싱그러우면서 은은한 향기가 구천의 높이까지 풍긴다. 향나무는 예로부터 청정(淸淨)한 존재로 여겼다. 궁궐, 사찰, 정원의 으뜸 조경수다. 우물가에도 한 그루쯤 향나무를 심었다. 향나무의 뿌리가 물을 깨끗이 하고 물맛도 향기로워진다고 믿었다. 향나무가 늘 푸르듯 샘물이 마르지 말라는 염원도 담았다.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향이 일반화된 것은 종교의식에서 향을 피우면서부터다.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의 발상지는 대체로 아열대 지방이다. 종교의식에 모인 군중들의 찌든 옷과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웠다. 그러다가 향나무에는 잡귀를 쫓는 벽사(辟邪)의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제례, 법회 등 경건한 의식에는 향을 피운다.

붉은 빛이 도는 심재를 칼로 깎아 향로에 넣으면 푸른 연기를 피어 올리며 향이 퍼진다. 요즘 시중에 파는 길죽한 향은 향나무를 갈아 만든 것이 아니라 향나무 잎을 가루로 만들어 첨가물을 넣어 반죽해서 국수처럼 뽑아 낸 것이다.

향나무 목재는 조직이 치밀하고 결이 곧고 윤기가 난다. 고급 조각재, 가구재, 불상, 관재로 쓰인다. 신라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그 재료가 향나무다. 향나무 궤짝에 귀중한 서류나 책, 옷을 보관하면 벌레나 좀이 슬지 않는다.

향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상록 침엽 교목)다. 어릴 때는 잎이 짧고 날카로워 손바닥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단단하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면 바늘잎 이외에 찌르지 않는 비늘잎이 함께 생긴다. 자연산 향나무는 울릉도에 몇 그루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향나무는 대부분 심은 것이다. 정원수로 널리 심는, 범생이 중학생처럼 예쁘게 이발한 향나무는 일본산 가이스카 향나무다. 전체가 둥근 모양인 옥향나무, 아예 누워서 자라는 눈향나무, 우물가에 주로 심는 뚝향나무, 향나무연필의 추억이 아련한 연필향나무는 미국에서 수입한 품종이다.

세계적으로 최고급 향으로 치는 것은 침향(沈香)이다. 아열대 원산인 침향나무를 베어서 땅 속에 묻어 썩힌 다음 수지를 채집한다. 이 수지가 침향이다. 값이 비싸고 귀하다. 향기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백성들도 침향을 가지고 싶어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 향나무를 묻고 표시로 매향비를 세웠다. 일종의 미륵신앙이다. 그러나 아직 실물 매향을 찾은 경우는 없다. 미군 사격장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는 향나무와는 관련이 없다. '매화향기'란 뜻을 가진 마을이다.

향나무 고목 앞에 서면 숙연해진다. 용트림하는 자태와 은은한 향기에 압도된다. 사람은 늙을수록 추해지나 나무는 연륜을 더할수록 기품이 넘친다. 필부는 늙을수록 잔소리가 심해지고 쉽게 토라지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한다. 급기야 치매라는 속수무책의 중병으로 벌레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비틀리고 꼬인 오래된 향나무의 자태는 수행의 이력 같다. 세파와 유혹과 번뇌를 온몸으로 막으며 진한 향기를 안으로 응축해가고 있다. 평생 '이뭐꼬'란 화두를 잡고 동구불출, 장좌불와를 실천하고 있는 선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후일 길가에 버려진 우리의 이름에는 향기가 날 것인가, 비린내가 날 것인가. 하루하루가 두렵고 조심스럽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향나무의 용트림하는 자태와 은은한 향기는 보는 이를 숙연하게 한다. 사진은 청송 향나무.

봉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축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10월 8일(토) 오전 9시부터

귀의 삼보하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법화경 사경을 탑 속에 모시는 사경봉안 법회를 봉행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불자님들이 일심으로 사경한 법화경 사경을 머리에 이고서 대승보살의 서원을 가슴에 담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탑돌이를 합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염송하며 도량을 참배하면서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시다.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가진 바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시다.

성스러운 이 봉안법회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환희와 감동의 법회로 회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석 도 림 ·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행사일정표

10월 8일

오전 헌공 및 설법

오후 법화경 사경봉안식

철야정진 법화경 독송기도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천안역 서부광장 앞)

8일(토) 오전 7시 30분 ~ 낮 11시까지 운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1호선 제기역 1번출구 앞 출발 02-928-1331, 1340

10월 8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	진주 박인순(관음행)	011-9312-5712
제주평화통일불사리탑	064-783-8801	수원 박찬희(보현심)	010-6304-3459
부산대연 법화정사(묘진행)	051-623-3595	분당 구순희(명심행)	011-9248-3844
부산초읍 법화정사(청정심)	010-2798-6666	울산 윤태숙(수선화)	010-2548-0753
대구 법화정사(백운)	053-751-2366	강릉 민영희(자비화)	010-2287-8855
구미 법화정사(문수행)	011-825-8558	원주 강옥녀(대도행)	033-743-8845
전주 법화정사(정수행)	010-6808-2807	횡상 심명옥(일승행)	010-9921-3690
청주 김명복(백련심)	043-231-5136	인천 정영섭(마이심)	010-6295-1068
광주 은미사(연등행)	062-223-4752	마산 윤숙자(묘연화)	010-2591-3934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창원 조민경(관음성)	010-8528-4218
순천 김덕임(대덕행)	017-622-1965	대전 김영숙(지혜심)	010-4433-9100
진해 김기연(성불심)	010-9570-3475	김해 박태향(관음행)	016-9374-3571
진주 조갑임(금선화)	010-6799-8584		

■ 문의 : 서울 법화정사 02-928-1331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

몇번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는 계 이야기



꽃향기도 훔치지 말라
혜남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불자라면 누구나 '계(戒)'를 받는다.

재가불자가 받는 계는 삼귀의계 오계 십선계 보살계 등이다. 삼귀의계와 오계는 가장 기본적인 계이다. 보살계는 수계하는 불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보살계 법회마다 성황을 이룬다.

이들 불자들은 지난해에 계를 받고도 올해 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를 받으면 좋고, 공덕이 되기 때문이란다.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사진)은 "보살계 법회 가운데 계율과 관계없는 생활 법문이 이어지며 계목도 제대로 읽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스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써 모아 최근 〈꽃향기도 훔치지 말라〉를 펴냈다. 책은 일생을 율사로 정진해 온 스님이 불자들에게 자신이 받는 보살계(10중대계 및 48경구계)의 의미와 내용, 이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담고 있다.

혜남 스님은 "계는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예류지(四預流支), 즉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과 계의 구족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부서짐 없는 청정한 믿음이 사불괴정(四不壞淨)이다.

혜남 스님은 "삼보에 대한 믿음에 더해 계의 구족이 필요한 이유는 불교가 단순히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실천이 바로 계를 받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설명이다.

계율은 계(戒)와 율(律)이 더해진 말이다. 산스크리트 쉴라(Śīla)를 번역한 계는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 즉 자서계(自誓戒)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팔관재계, 십선계 등과 관계없는 자신만의 계를 맹세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다.

반면에 비냐야(vinaya)를 번역한 율(律)은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으로 타율적인 것이며, 율을 어기면 오편칠취(五篇七趣)라 하여 벌을 받는다. 사미와 사미니는 십계를, 비구스님은 250계를, 비구니스님은 348계를 받아서 지켜야 한다.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율인데도 '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계의 정신으로 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계라고 번역한 것이다.

보살계는 보리심을 일으킨 대승보살이 수지하는 심지계(心地戒)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범망경(梵網經)〉에 의거해서 보살계를 받는다.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을 말한다. 또한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相求菩提]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下化衆生] 사람을 말한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보살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살계 수계식에서도 먼저 "보리심을 발하였는가?"하고 묻고,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라는 대답을 받은 다음에 수계식을 진행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소승의 율장과 〈범망경〉에서 말하는 보살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보살계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누구나 참된 보살의 실천행을 바르게 알고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4~9/2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3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5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경전숲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종출판사
8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9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스님의 흰죽 가게	스제천	모벤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여유 한적 소박한 나의 산골생활

농사짓는 산골 시인의 담백한 삶의 이야기



수염 기르기. 제목에서 말하듯 '수염 기르기'는 저자의 삶에 대한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덥수룩하면서도 까칠한 수염을 맘껏 길러 보고 싶은 바람은 타인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살고자 하는 바람이다.

15년 전, 처음으로 강원도의 산골에 자리 잡은 저자는 책에서 그동안의 삶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그가 풀어내는 산골생활은 여유롭고, 평화롭고, 순수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자연, 여유, 한적, 소박 등의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골의 이미지를 다소 삐딱하게 그려놓았다.

저자가 말하는 산골생활은 전혀 감성적이지 않다. 흔히 도회지에서 상상하는 전원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산골생활은 농사일을 곤란하게 만드는 곤충 새 야생짐승 잡초 나무 혹은 이웃들과의 갈등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빠르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삶의 속도를 거스르듯, 아날로그적인 삶은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자 나름대로 '자연 그 자체로 살기'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그는 삶 속에서 모든 생명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대한다.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도 존재가치가 분명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자연세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책에 담고 있다.

마치 마구잡이로 기른 수염처럼, 까칠하면서도 또 그대로의 멋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15년 동안의 산골생활을 발가벗긴 듯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지만, 고단하고 팍팍한 시골생활에서도 나름대로의 서글픈 사연들은 풀어내고 있다.

약 60여 편의 다양한 에피소들은 저자가 산골마을에서 굽어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야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수염 기르기 | 유승도 지음 | 도서출판 b 펴냄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한고추

허수아비가 먼저 눈물을 떨구니

불현듯 옛일이 생각났다. 좌선 할 때 수인(手印)의 문제다. 좌선시에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놓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왼손은 아래에 오른손은 위에 놓으면 안되느냐고 한 노스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자상한 내용은 기대할 수 없었고 그냥 오른손 위에 왼손을 놓는다고 하니 궁금증만 더할 뿐이었다.

숱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우선 인도와 중국문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인도인들은 오른손은 깨끗하다고 믿고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밥을 먹는 수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왼손으로는 화장실에서 휴지 대용으로 쓴다. 오른 손가락 다섯 개로 접시에 놓인 밥을 카레와 섞어 주물러 반죽을 한다. 그러고 나서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여 한 입에 넣기 좋게 만들어 입에 넣는다. 그러니 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연전에 인도 교수댁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의 전통 식사법이라면 어쩌나 적잖이 걱정했던 일이 있다. 그건 기우에 그쳤고 식탁에는 포크 나이프가 정연히 놓여 있었다.

왼손의 역할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역발상을 해보면 참 현명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낼 일이다. 현대인은 문명의 이기를 한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다.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밀림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의 질서는 무참히 파괴되어 재앙을 낳고 있다. 이상 기후변화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한 부호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하여 3억원이 넘는 벤츠를 굴삭기로 부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모든 것을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다. 무지개 하나 만을 보아도 그렇다. 무지개 홍(虹), 무지개 예(霓) 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홍은 무지개의 짙은 색이고, 예는 무지개의 옅은 색을 말한다. 짙은 색은 양이고 옅은 색은 음을 표현한 것이다. 불국사나 낙산사를 참배한 신도라면 홍예문을 보았을 것이다. 왼쪽은 남성을 상징하는 양이고, 오른쪽은 여성을 상징하는 음이다. 관직을 보면 우의정 보다 좌의정이 같은 정승이라도 서열이 앞선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자연히 중국에서의 수인이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에 놓는 것이 이해가 간다. 남방불교에서는 오른손을 위에 놓고 북방불교에서는 왼손을 위에 놓으니 이 또한 각 국의 문화 차이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상대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개인과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이쪽 견해로 저쪽의 풍습과 가치 기준을 재려고 하면 세상은 온통 불협화음만이 있을 뿐이다.

〈대정장〉 47 (p.702中)에 명각선사 어록(明覺禪師語錄)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한고추(閑古錐)가 나온다.

한고추는 노고추(老古錐)라고도 한다. 끝이 닳아서 뭉툭해진 송곳으로 경험이 많은 고참납자를 이르기도 하고 누구한테나 위압감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자비를 보여주는 노파친절한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일컫는 말이다.

괴겁의 대화(大火)는 일찍이 밝았건만
劫火曾洞然
허수아비는 먼저 눈물 떨군다네
木人淚先落
참으로 가련하구나 저 부대사여
可憐傅大師
곳곳에 머무를 누각조차 없구나
處處失樓閣

옛적 한고추라 불린 덕운비구는
德雲閑古錐
몇 차례나 묘봉정을 내려갔던가
幾下妙峰頂
그를 치성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喚他癡聖人
눈으로 우물 메우기 때문이라네
擔雪共填井

한고추 - 고뇌에 찬 마음이 편안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 가 되고 싶다. 한 발짝 내딛기 힘든 육신을 위해 에너지를 듬뿍 주는 한고추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친 영혼도 많고 가누기 힘든 육신의 장애인도 많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을수록 위압감에 눌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많은 수행을 했다하여도 무슨 격식을 따지기나 좋아하고 낮은 곳에 손을 내밀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교는 구원을 떠나서는 존재의미가 희석될 뿐이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물고기에게는 주거지가 되고 영가에게는 감로수가 된다. 물이 대상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몸을 나툰다. 한 모습만 고집한다면 이미 물의 속성을 스스로 잃고 말 것이다. 석존은 14무기(無記)에서 외도의 질문을 받는다. '세상은 영원한가, 아니면 무상한가.' 이에 영원하다고도 무상하다고도 답하지 않았다. 이 또한 명안종사의 노파친절한 표본이 아닐까. 세상에는 트레바리만 있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 한고추는 자비의 미소로 우리를 맞을 것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한 곳서 한 눈에 보는 티베트인의 삶과 예술

10월 28일까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티베트 전시회 열어

티베트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대지로 6000~7000m 높이나 되는 고봉들로 둘러싸여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이곳 티베트 사람들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 양이나 야크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널어 말려 조금씩 베어 먹는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그들이 즐겨 마시는 수유차가 끓을 때까지 마니차를 돌리고 '옴마니 파드메 훔' 관음보살의 만트라를 염송하며 자연과 더불어 차를 마신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불교는 삶의 목적이며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불교에 닿아 있다.

그들에게는 이번 생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그들에게 삶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고, 죽음을 건너면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내세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수백, 수천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걷거나 오체투지로 성지를 순례하며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티베트인의 삶과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북촌동양문화박물관(관장 권영두)은 10월 28일까지 티베트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 하는 '티베트, 영혼의 울림' 전을 연다.

30여 년간 티베트를 오가며 한두 점씩 수집해온 권영두 관장은 3개의 전시실에 티베트 불상, 탕카(탱화), 불감(不龕), 불교 의식과 관련된 예술품 및 민속예술품 등 약 300여 점과 티베트의 삶과 자연을 담은 그림 및 사진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티베트 금속공예는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 지역에서 금(金), 동(銅), 터키 · 산호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구할 수 있어 고대부터 금속공예가 발달했다.

"티베트 금속공예는 세계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백 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유물들을 보면 장인들의 섬세함을 볼 수 있죠. 생활자체가 불교인 티베트인들은 신심으로 공예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에 관한 공예품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권영두 관장은 티베트 금속공예를 극찬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금동 석가여래 좌상을 보여줬다.

"이 불상은 건장하고 당당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터키석과 산호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누금세공(鏤金細工)으로 신체에 밀착된 법의의 굴곡이 정교하고 세련된 불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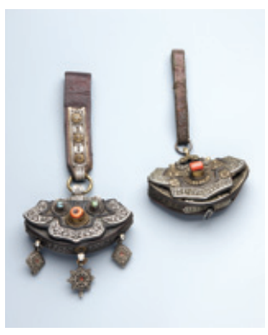
전시관에는 부시와 주전자, 코담배통, 참파그릇 등 티베트 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된다. 그 중에서도 부시가 눈에 띈다. 티베트 유목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부시를 지니고 다닌다. 백동(白銅)에 연화문을 정교하게 조각한 부시는 야크 가죽으로 된 끈과 고리가 달려있고 터키석, 산호, 유리 등의 보석이 박혀 있다.

사람의 뼈로 만든 공예품도 있다. 인골 찻잔과 두개골로 만든 공양구가 그것. 열반한 고승의 정수리 두개골로 만든 공양그릇은 불전에 공양물을 올리거나 실제 차나 티베트 상식(常識)인 참파(rtsam-pa)를 먹을 때 식기로 사용했다. 무릎관절 뼈를 이용해 만든 찻잔은 차를 마실 때마다 무상관(無常觀)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밖에 전시관에서는 수정(水晶)으로 정교하게 조각한 사비관음보살상, 만다라 그림과 은으로 조각한 만다라, 티베트 탱화(탕카) 등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다라 그리기, 마니차 체험 등 전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권영두 관장은 "티베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와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랜 수집기간을 통해 소장한 화려하고 수준 높은 티베트 불교 예술품과 섬세한 장식으로 만든 민속예술품, 티베트 사진 등을 통해 그들의 삶과 믿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486-0191 이나은 기자


금동 석가여래 좌상(18~19세기)


부채꼴 모양 부시(19세기)


인골 공양구(19세기)


칠보탑(18~19세기)

산사의 가을, 음악과 함께 즐겨요



쌀쌀한 가을 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하얀 달빛아래 찬공기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산사음악회를 찾아 떠나보자. 재즈, 탱고, 국악, 뉴에이지 등 장르도 다양하다.

수려하고도 빼어난 가을풍경을 자랑하는 경북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산사음악회에는 조관우, 재즈보컬 웅산, 팝핀현준, 박애리, 인드라 스님, 탱고 연주팀 '코아모러스&최현아', 소프라노 김혜경, 청량사 꼬마풍경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함께해 고품격 산사음악회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축제의 역할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054)672-1446

재즈와 뉴에이지에 빠지고 싶다면 월정사로 떠나보자.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5일 오후 7시 츠루 노리히로(바이올리니스트), 임인건(재즈피아니스트)을 초청해 음악회를 연다. 츠루 노리히로는 뉴에이지 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의 리더로 일본 10인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선정된 실력있는 음악가이다. 임인건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재즈계에서 독보적인 2세대 피아니스트로 군림해온 베테랑이다. (033)339-6800

가을이면 절 안팎으로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는 영평사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여행지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영평사(주지 환성)는 10월 1~16일 열리는 '제12회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에 맞춰 산사음악회를 연다.

영평사는 10월 3일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국악인 장사익씨를 초대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선율을 더할 예정이며 8일에는 대전윈드 오케스트라와 영평사 선모다례회원의 다도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는 구절초 꽃차 무료시음, 연꽃차, 연선식, 구절초 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041)854-1854

이나은 기자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9월 30일~10월 2일 서대문아트홀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영화제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9월 30일~10월 2일 서대문아트홀 청춘극장에서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한다.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 감독에게는 꾸준한 작품 제작 및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도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젊은 감독에게는 노인과 노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축제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유주제 58편과 60세 미만 세대의 노인주제 66편으로 12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은 출품작 가운데 신노인상의 정립과 세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세대친화적인 내용을 반영한 영화



27편을 선정해 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는 9월 30일 오전 10시 3회 대상 수상작 상영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2시에는 초청작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시작으로 개막식을 열고 10월 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5개섹션으로 영화를 분류해 상영할 계획이다.

한편 9월 30일 저녁 7시 서울노인영화제의 밤, 10월 1일 오후 4시 오픈토크, 10월 2일 오후 2시 노인미디어 특강 등 어르신과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02)6911-9563 이나은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창건부터 중창까지 왕실의… 왕실을 위한 절

두 임금의 원찰 수국사(守國寺)


월초 스님은 진관사에 있는 수국사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흥의 원을 세웠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내리 사랑에서 나온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세상의 인연 따라 살다가는 건 자연의 이치이다. 오래 사는 일이나 단명 하는 일 모두 개개인의 삶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자신들보다 오래 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일체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소멸되듯이 사람 역시 쌓인 오온(五蘊)의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의 이치를 임금인들 바꿀 수 있겠는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왕조시대 관습대로 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니 그가 의경세자이다. 그런데 그가 세조 3년(1457) 9월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었다.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는 애통한 마음이지만 살려낼 능력이 없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세자가 일찍 죽자 세간 사람들 사이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를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왕후의 묘를 파내 시신과 관을 쪼개어 강물에 던졌다고 한다. 조카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안타깝게 여기는 세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다분히 후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조는 왕위찬탈의 인간적 번민을 불교에 의지했으며, 도덕적 약점은 생활을 검소하게 하여 민심을 얻고자 했다. 세자의 능을 조성할 때 국장도감의 관리들은 조금 사치스럽게 조성하려 하자 다음과 같은 어찰을 내렸다.

"이번 장례는 임금의 장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 그 무덤 안의 모든 일은 후하게 해도 되지만, 무덤 밖의 모든 일은 비록 나의 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박하게 해야 한다. 한갓 백성만 번거롭게 할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

세조는 살아생전 자신의 능을 간소하게 조성하라고 유언했다. 그런 까닭에 광릉의 모습은 여느 왕릉보다도 간소하다. 크기도 그러하지만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가는 길은 신도와 어도가 없다.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세조의 생각이었다.

의경세자를 고양군 동쪽 봉현(蜂峴)에 장사지내고 다음 해 내수사에 일러 능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찰을 세웠다. 세조는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완성할 것을 명했고, 판화엄대선사(判華嚴大禪師)인 설준(雪峻)의 지도하에 열두 달이 걸려 완성하니 바로 정인사(正因寺)이다.

불행은 계속해서 온다고 했나? 세조가 죽은 다음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예종은 재위 1년 3개월 만에 죽었다. 그 역시 의경세자 옆에 장사하니 능이 창릉이다. 두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 정희왕후 윤씨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렇다고 보위를 비워둘 수도 없었다. 종친들과 의논하여 의경세자의 둘째 자을산군을 보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성종이다.

아들이 왕이 되자 죽은 의경세자에 대한 예우가 달라졌다. 1469년부터 추숭여론이 일어나 1470년 1월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자연히 능도 경릉으로 격상되었다. 지아비가 덕종으로 추존되자 인수대비는 정인사를 창건할 때 서둘러서 지었기 때문에 재목이 좋지 못하고 이음새가 정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성종 2년(1471) 봄 자신이 살던 집에 새로운 원찰을 세우려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수사에 주고 판내시부(判內寺府) 이효지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런 대비의 생각과 달리 두 아들의 어머니인 대왕대비 윤씨는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곳 가까이 원찰이 있었으면 생각했다.

"의경대왕과 예종대왕 두 능의 현실(玄室)이 아주 가까워 한 절의 종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곳이다. 만약 인수대비가 개축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과 힘을 합쳐 재물을 모아 정인사를 중창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경, 예종을 위해 천복(薦福)하는 정성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내수사에 특별히 하명하여 돈과 곡식을 더 내도록 했다. 그 후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알리어서 그 쓰임에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뜻대로 확장하게 된 정인사 중창불사는 그 해 2월에 시작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 부역시키지 않고 노역에 대한 삯을 지불하자 많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섰다. 흉년이 들어 빈궁했던 탓에 삽을 멘 자가 구름같이 모여 일한 덕분에 10월에 모두 119칸의 정인사가 중창되었다. 부인과 어머니의 힘이 합쳐져 완성된 왕실의 원찰인 까닭에 사찰은 웅장하면서 아름다웠다. 단청이 휘황 현란하여 사찰로서 아름다움이 봉선사와 서로 첫째 둘째가 될 만했다. 이런 정인사의 아름다움을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원릉은 채색 구름 가에 엄숙하고, 사찰은 빼어난 메 앞에 높다랗다. 금벽 채색 빛나서 아침 햇볕이 쬐고, 달랑거리는 풍경 소리는 바람이 멀리 전한다. 불등(佛燈)은 넓게 삼천계(三千界)를 미치고 국운(國運)은 응당 억만 년에 뻗치리라. 정맹(精猛)한 두타(頭陀)는 법좌(法座)에 올라 묘법을 말하고, 진전(眞詮)을 부연한다."

두 임금의 원찰이 된 정인사는 자연히 왕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받았다. 인수대비는 '절은 있으나 곡식이 없으므로 승려가 의지할 곳이 없다' 고 걱정했다. 그래서 미곡 100섬을 시주하여, 본곡(本穀)은 남겨 두고 이자만 이용하여서 식륜(食輪)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 불구도 모두 여유 있게 구비하여 다른 사찰의 부러움을 샀다. 성종 4년(1473) 4월 초파일에 낙성 법회를 크게 하고 대승의 여러 경을 인출하자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신묘한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며 서기가 하늘에 뻗쳤다. 원근에 있던 승려 수만 명이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감탄하면서 절했다.

아버지와 숙부의 원찰이다 보니 성종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즉위 초기 대소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외 잡역 및 노비 잡역을 감했다. 창릉과 경릉에 나아가 제를 지내고 사찰에 쌀과 콩을 하사했다. 사원전이 몰수될 때도 정인사는 두 임금의 원찰인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종은 호조에 명하여 정인사는 다른 절에 비할 바가 아니니, 봉선사의 예에 따라 쌀과 포를 주라고 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의경세자 죽음에 부친 세조가 정인사 창건
세조는 왕위찬탈의 번민을 불교에 의지해
뒤이은 예종의 죽음으로 정인사 중창되고
왕실 지원 컸으나 화마로 폐사 위기 겪어

왕실의 관심으로 불교배척은 면할 수 있었던 정인사도 화마만큼은 피해가지 못했다. 연산 10년(1504) 9월 정인사가 불에 타자 즉시 경기 감사 안윤덕과 형조 참판 박열을 불러 바로 가서 국문하도록 했고, 두 임금의 영혼이 놀랐으므로 위안제를 지내도록 했다.

화재로 정인사는 한 때 폐사될 운명에 놓이기도 했다. 중종은 3년(1508) 경릉과 창릉의 원찰을 대자사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정인사를 복구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옛 모습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4년(1549) 인근 유생들이 이곳에 드나들며 전해오는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자 왕실은 정인사가 왕실의 원찰임을 들어 봉선사와 봉은사와 같이 방을 걸어 유생들의 침입을 금했다. 그리고 소란을 크게 피운 황언징은 1차에 한하여 식년 과거 참여를 정지시키는 등 왕실의 원찰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이후에도 정인사는 사찰 위전(寺刹位田)이 그대로 지급될 정도로 왕실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그런 정인사가 지금의 수국사로 바뀐 것은 언제일까? 안타깝게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종 이후 이에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수국사로 바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종 즉위년(1863) 12월 대왕대비가 산릉을 살펴본 의견을 들을 때 도감의 책임자 임백경이 수국사의 뒷산이 길한 곳 여덟 곳에 포함된다고 아뢰는 것을 보면 그 이전 수국사로 바뀐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동안 돌보지 않아 사격이 많이 훼손되고 부처님도 인근 진관사로 이운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폐사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런 수국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된 것은 월초 스님에 의해서이다. 진관사에 있는 수국사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흥의 원을 세웠다. 광무 4년(1900년) 세자로 있던 순종의 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고종은 그 고마움으로 현재의 위치인 갈현동 태화산 자락에 수국사를 중창했다.

이렇게 보면 정인사는 비록 수국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창건과 마지막 중창까지 모두 왕실과 인연이 깊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갈상

8각좌대 칠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말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북한동포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장
겸 레인보우 합창단장

요즘 다문화란 말 많이 듣는다. 각종 방송·언론마다 다문화라는 타이틀도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어엿한 사회적 용어가 된 셈이다. 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낯선 이주민들과 함께 기존의 삶의 모습과 양태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진단과 연구.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 떠오르면서 다문화란 말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과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그 중의 하나로 '다문화는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말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다문화공생, 복합문화, 이중문화, 크로스문화, 모자이크문화. 등 국가마다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우리도 평이하고 어디에서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란 용어는 교육 당국이 2006년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 다문화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을 보고, 본질은 보지 않고 겉 표면에만 끄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설왕설래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어떤 것이든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용어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적응이 되고 완전히 우리사회에 흡수되고 나면 그동안 차용해서 사용했던 용어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도 바쁘다. 국민의식과 정부정책, 사회통합적 노력이 보다 더 절실하다.

굳이 법률적인 정의를 따져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법에서 정의한 이외의 다문화가족이 많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란 공통분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른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에 매달려서 기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같다.

만일에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마치 탈북민의 사례에서처럼 말이다. 북한동포라는 말이 안 좋다고 새터민으로 순화해서 달리 바꿔 불렀다가 오히려 더 차별화 시킨다는 반발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가지고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 또한 용어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녹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한국어표준어에 실려 있는 용어를 그대로 현실에서 쓰지 않을 때도 많다. 온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도 국어사전도 그늘에 숨는 법이다. 짜장면이 한국표준어발음법에 의거해 1986년에 '자장면'이 되었다가 올 8월 말에 드디어 제 이름을 찾아 '짜장면'이 되었다. 이렇듯 전 국민이 즐겨 사용하고 편히 소통할 수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현실감에 맞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 전에는 '단문화'였다는 말이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 전엔 단문화였다는 반증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거부반응이 된다는 것도 쉽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아직은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반다문화주의자가 많고, 완전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정책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 우리는 세계화. 다문화사회로 가는 초입단계라 이것 역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문화란 용어가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리에게 다문화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부처님은 신과 가장 친근한 존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마 예수님은 인간의 생을 마친 후 분명 천당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천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알콩 달콩 재미있게 살아간다. 하지만 신의 삶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도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한때는 천계의 여러 신들 중 한 명이었다.

천계의 신(神)이었던 시절의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천계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계와 천신들을 수시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활용한다. 이처럼 수많은 신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도 드물 정도이다.

사실 부처님이 천신들의 속성과 천계의 환경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데에는 과거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실제 경험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인 것이다. 부처님이 천계에 태어났던 것은 인간 시절에 지었던 복덕 덕분이었다. 한번 천계에 태어난 이후 크게 탈선 및 타락을 하지 않았던 부처님은 그 후로도 천계와 지상을 오고가며 몇 번의 생을 거듭한다. 그 생 중에 제석천왕과 범천왕 등의 지위를 두루 누렸고 그 사이사이에 인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왕이나 바라문 등으로 태어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온갖 생을 살면서 공덕과 복덕을 가득 지어 10지 보살에 이른 후, 부처님은 드디어 천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처가 될 것을 결심한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과거 신이었던 시절에도 몹시 과감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뚝심이 있었다. 한번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누구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이런 성격은 천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과정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계의 '신'이 느닷없이 고통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펼칠 것을 장래 희망으로 정하고 '인간'의 몸을 받기로 결심을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다른 신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과감한 행동이었다.



천계의 신 삽화=김영수

불교는 신(神)과 가장 친한 종교

부처님이 서원을 세우고 인간 세상에 내려갈 것을 결심하자 처음에 천계의 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류한다. 하지만 결국엔 부처님의 의지를 바꾸지 못하고 응원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을 응원하기로 뜻을 모은 천계의 권속들이야말 평생에 걸쳐 부처님의 보호자이자 친구이며 또한 제자이면서 동시에 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이 과거에 천계의 신이었고, 다른 신들과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그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신(神)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친근하다고 할 수 있다. 타 종교와 달리 불교는 신에 대해서도 활짝 열려있다. 경전 속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신(神)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잘 드러나 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

버섯 잡채

추석이 지나자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 얼마 전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하루가 다르게 바람에 찬 기운이 더해진다.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에는 당연지사 단풍놀이가 빠질 수 없다. 등산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이들도 가을이 되면 한 번쯤 산행을 결심한다. 단풍이 진 가을 산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가을 산행의 백미는 따로 있다.

가을이 되면 산에는 숨은 보물들이 넘쳐난다. 특히 산 곳곳에 숨어있는 야생 버섯들은 가을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석이다. 가을에 나는 야생 식용버섯들은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중에서는 고가에 판매돼, 버섯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는 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기도 하다.

늦가을에 나는 버섯들은 의외로 독버섯이 많이 없고, 맛과 영양에서도 만점이다. 버섯 중에서도 진미로 꼽히는 송이버섯은 맛이 향기롭고 풍미가 뛰어나다. 〈동의보감〉에서도 송이버섯은 깊은 산속 소나무 밑에서 그 기운을 받고 자라 버섯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말했다. 송이버섯 못지않게 밤버섯, 자연산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능이버섯 등도 귀한 버섯들 중 하나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아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항상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명심해야 하는 법. 야생버섯이 많이 자란 만큼, 독버섯 또한 조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모양이나 색깔도 매우 비슷해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버섯을 따기 위해 무작정 산행을 감행하는 것은 산행 초보자들에게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안전에도 유념해야 함을 잊지말자.



알고가기 야생 식용버섯이 아니더라도 버섯은 시중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할 때 돼지고기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열량이 낮고 섬유소가 많아 비만예방에도 좋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구입요령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처가 없고 조직이 단단한 것이 좋다. 송이버섯의 경우 조리 시 너무 씻으면 특유의 향이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밤버섯 등 각 20g, 파프리카 20g, 미나리 10g, 들기름, 들깨가루, 소금 약간 (버섯은 기호와 상황에 따라 조절해도 좋다)

음식 만들기

① 버섯은 손질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② 파프리카와 미나리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놓는다.
③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버섯과 야채를 넣고 살짝 볶아 낸 후 소금으로 간을 한다.
④ ③에 들깨가루를 버무린 뒤, 접시에 놓는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내 병으로 고통 받는 건, 남이 아니다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부처님 법은 마치 약과 같아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식에서 언제나 해결책을 찾게 된다. 사성제에서 시작되는 부처님 가르침도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마음의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가르치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즉 병의 증상을 알아보고, 진단하여 그 인과를 설명한 후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다. 즉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병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각의 질병을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있는 것과 같다. 탐욕과 무지가 마음 속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갖고 있는 욕망은 모두 다르다. 개개인의 무지 또한 개별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고, 각각 서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병원에 가는 일과 같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고 해도 병명과 원인, 치료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다. 누군가는 암 때문에 병원에 오고, 누군가는 심장병 혹은 간질환으로 찾아온다. 어떤 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고 어떤 이는 먹지 못해서 병이 생기기도 한다. 병원에는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각자 병을 갖고 있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있는 질병을 돌봐야 한다. 동시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쓰고 있는 치료법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개개인에게는 각각 써야 할 방법이 다를 뿐이다. 어떤 약은 매우 써서 삼키기 힘들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약은 삼키기가 훨씬 쉽다. 그렇듯이 각자에게는 각각의 치유법이 있다. 스스로의 치료 과정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료법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를 고쳤던 치료법으로 누군가를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와 동일한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속을 쳐다볼 때는 부처님 법 안이지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세상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세상과 분리된 시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속이 아닌 외부로 시선을 두는 순간 내 온 마음은 세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타인을 재단하고 인식하기 위해 부처님 법이라는 범주를 사용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것을 하고, 누구는 저것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부처님 법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질병을 고치기 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봐야 한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현종이 양귀비에게 먹여줬던 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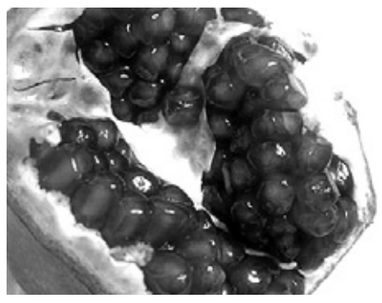
왕년의 인기가요 '석류의 계절'이 어울리는 때가 왔다. "밤이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알알이 석류는 웃는데. 차가운 별 아래 웃음이 지면서 메마른 가지에 석류 한 송이. 가을은 외로운 석류의 계절"

석류는 이란을 비롯해 터키,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 등의 해발 300~1000m 지대가 원산지로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 견디는 과일나무이다. 예로부터 약효가 뛰어나 '생명의 과일', '지혜의 과일', '천국의 열매'라고 불리었는데, 한나라 무제 때 장건(張騫)이 실크로드 개척에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에 들러 석류나무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하여 가져왔다. 페르시아의 한문 이름이 안석국(安石國)이었기에 '안석류화(安石榴花)'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석류'라고 부르게 됐다.

석류(石榴)를 보면 붉은 주머니 속에 촘촘한 알갱이가 루비처럼 반짝이고 있기에 부귀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한다. 여성을 위한 과일로서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세기의 미녀들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즐겨 먹었다고 한다.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석류를 길렀는데, 양귀비에게 직접 먹여주기도 했다고 한다.

석류꽃에서 유래된 용어도 있으니, 많은 남성들 틈에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다는 '홍일점(紅一點)'이 바로 그것이다. 송나라 때의 시인으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은 '만록총중홍일점 동인춘색불수다(萬綠叢中紅一點 動人春色不須多)'라는 시를 지었다. '온통 푸른 숲 가운데 빨간 꽃이 한 송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봄의 색은 굳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성들에게 석류가 왜 좋을까. 씨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전구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갱년기장애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데, 석류를 많이 먹는 페르시아 지역의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장애 증상이 비교적 적다고 한다. 하



지만, 여성 호르몬제 한 알을 대신하려면 석류 칠팔백 개를 씨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석류를 먹어서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외에도 여성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포도당, 과당 등의 수용성 당이 많으며 포도당의 분해를 촉진하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그리고 칼륨, 철분 등의 미네랄, 아미노산, 아스파라긴산,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이다. 또한 비타민 B1, B2, 니아신도 약간 들어 있다.

한의학적으로 석류는 따뜻한 성질에 떫고 신맛으로서 갈증을 멎게 하므로 몸속의 진액이 손실되어 목이 건조하고 입이 마른 경우에 좋다. 떫은맛은 우리 몸에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을 나타내는데, 바로 삽장(澁腸) 효능이다. 미끄러워진 장을 껄끄럽게 해 주므로 오래된 설사와 이질이라도 석류를 먹으면 그치게 된다. 또한 떫은맛은 몸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것도 막아 주므로 대변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외상으로 출혈이 된 것을 멎게 한다. 살충 효능도 있어 회충, 촌충, 조충 등 장내 기생충 구제약으로도 좋다. 그러나 석류를 많이 먹으면 폐와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위산이 많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2〉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었던 붓다가야를 떠나 우루벨라로 가는 도중이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 중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다.

"도망가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들 중 한명이 부처님께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그들은 인근 부근에 사는 부잣집 아들들인데, 부인들과 함께 놀러왔다. 그들 중 결혼하지 않은 한 청년이 유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놀이에 정신 팔려 있는 틈에 유녀가 사람들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보니, 보석을 훔쳐간 유녀를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기색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여,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건 훔친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릇된 욕망은 어리석음
욕망은 자아를 훔쳐간 도둑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물질보다 내면의 참 모습 발견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보석만일까? 잃어버린 것은 보석보다 더 귀한 자아(自我)이고, 자신이며, 청정한 인간 본연인 부처 마음이다.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자아를 잊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면, 받는 자는 금덩어리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은덩어리도 왜 같이 안주지?'라고 생각할 만큼 욕심을 낸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B.C~A.D 65년)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처해 있는 상황이 불만스럽다면, 세계를 정복(소유)하더라도 불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사는 동네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80대 후반의 노보살님이 살았다. 할머니는 인근 주변에 건물을 두어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 임대료만 해도 한달에 몇백만원을 받았다. 30년 이상을 동네에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인색하고, 겨울에도 연료비를 아끼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스스로에게도 가혹했다.

동네 어귀에서 가끔 만나면 '스님도 사주팔자를 볼줄 알아야 배곯지 않는 법'이라며 경제원리를 한참 강의하셨다. 재작년 88세에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하직했다. 당신이야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살아생전 그분을 뵈면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했다.

이 노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더 애착부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한다. 물론 건전한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요, 진일보할 수 있는 인생의 비타민이다. 희망을 상징하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릇된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살다가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욕심이기 이전에 어리석음이다.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법을 깨달음으로서 어리석음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아를 훔쳐간 도둑은 욕망이요, 어리석음이건만 그 도둑은 잡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니 스트레스만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다.

몇 년전에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하였는데, 최빈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아나 네팔 등 아시아 사람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가로서 물질적인 부가 풍부한 나라이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신지학 명상가인 스코트(1898~1987)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 '물질=행복'이 아님을 통렬히 깨닫고 명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면의 참다운 고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며,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아나선 것이다.

명상은 바로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최고 가치를 위하여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삶의 언저리를 살펴보는 일이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운남지남동원선다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45,000원 38,000원
100g 산차 70,000원 65,000원
330g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영보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경남
- 법 당 : 30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370평
- 가 액 : 6억5천

- 위 치 : 경남마산
- 법 당 : 18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100평
- 가 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낙민지하철역 1분거리
- 대지 68평
- 1층 요사 111.39㎡,
- 2층 법당 84㎡, • 3층 삼성각 27.44㎡
- 각종 부속물 있음
- 가액: 4억 3천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월1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무량광불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도량입니다

- 2층. 3층에 110평
- 보증금 4500만원 , 월 280만원
- 시설비 1억 6000만원
- 주차장 넓음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010-9688-1629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약 150평
- 건물 2동, 방 3개, 삼존불 모심
- 시설집기일체
- 총가액 : 5500만원

010-9545-9444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토굴비어 있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임야 2만 3천 6백평
- 도량터, 약 1천평
- 현재 임법당 사용중
- 건물 조립식판넬(약 30평)
- 물소리 졸졸 납니다
- 현재 불사중
- 가액: 2억 4천만원

010-2055-8506

암 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번지
- 평수 : 300평
- 요사채 기와 20평
- 기와 법당 15평
- 가액: 6억 (가격절충)

011-846-1682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031-808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삼존불, 방4, 창고
- 월세 5만원
- 몸만오시면 됨
- 시설비 : 4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7476-90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근교)
- 법당 35평, 방2, 주방 ,화장실
- 시설완비,(법회즉시가능)
- 삼존불,불보살8분모심
- 공양간은 법당과 분리되어 있음
- 실내 시설자재는 목재로 사용
- 보증금 500만원,월45만원
- 설비 1100만원

011-518-1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100평, 건물52평
- 법당, 요사채, 방2, 산신각, 주방, 마당, 포장완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4531- 32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 대세지, 지장, 소불 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전망 좋음
- 대지 : 50평
- 사용평수 : 12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장 넓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0-4601-7881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 몸만 오시면 됨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포교원안내

무료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
- 상가 건물 3층 중 2층. 33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법당, 방2개, 홀 겸 주방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07-957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도심속의 산속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국유지) 30년 전통
- 법당, 산신각, 용왕당, 공양간 등
- 사용평수 약 150평
- 바윗 속 약수 나옴
- 시설 집기류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8500만원(조절가)

011-575-9707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3층 상가중 2층
- 평수 :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모든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0-9332-904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창녕군영산IC에서 7분거리) 부곡온천인접, 화왕산입구
- 대지종교부지 600여평(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석탑, 주차장, 창고15평) 텃밭
- 특징: 신밀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전기보일러, CCTV설치
- 가액: 3억8천8백만원, 시세이하양도 (대지50~70만원-유동가격)
- 꼭 필요하신 분만 (장난전화 사절)연락 주세요

010-5614-3928
010-8664-8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누산리 362-1
- 대지 150평 사용, 법당 건물 40평, 요사채 40평
- 불상: 아미타불,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관음인등 , 후불탱화3,감로탱화1, 신중탱화1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금액 7000만원(조절가능)

055)391-5770
010-5777-00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북부
- 부지(대지)350평, 건평 70평
- 전철역 도보 15분거리
- 가액 : 8억(절충)

010-5206-2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고양시(능곡)
- 2층 45평 보증금 7백 월 55만원
- 법당, 집무실, 사무실
- 관세음보살님, 후불탱(약 300년)된, 지장탱화 (부처님 진신사리2과)
- 大불사관계로 양도함
- 시설비 (약 2천)이상 투자함
- 지하철 7분 (APT)밀집 은행 2층

031)979-5114
010-7655-5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혈동 53-7 (태백산 백단사 입구)
- 평수: 대지 87평, 건평 37평
- 시설: 큰방 2, 거실 1, 분리 주방1 욕실2,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등
- 가액: 1억 6천 2백만원

010-4344-2400

사찰 전원주택

- 위치 : 고양시 지축동 산 접 조용한 집
- 대지 300평 건물 60평, 2층 신축
- 남향, 주차장 (증축가능),
- 전철3호선 지축역 10분
- 가액: 12억(주인직접)

010-9244-138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3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장호원시장
- 단층. 27평 . 살기 편함, 깨끗
- 비구니 스님, 보살님
- 방2, 법당 10평, 입구 일주문과 대문
- 2500만원 전세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NO

031)641-1159
017-253-6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126-1525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지구
- 2층건물중 2층 (약 40평)
- 법당 주방 다용도실 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693-5543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500만원(전세가능)

010-3337-97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역 3분거리
- 평수 15평 , 삼존불, 신중탱화 등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 조정가능
- 인연 되시는 분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9695-1060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인근
- 부지 520평
- 건물 : 연건평 약 500평(지상4층 지하1층)
- 도심지 포교원 위치 및 환경 최적
- 종전 고시원 건물로 방 62칸 있음
- 임대 보증금 및 월세 : 상호 협의
- 소유자 : 장학재단법인

051)782-0033
017-581-7856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 불유교경 -

‘데비만 나타나면 떠나자’ 무니는 또 다시 다짐했다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8)



삽화 · 김홍인

“나는 일단 말을 전했다. 나가세나님은 아마 지금도 잠부에 있으실 것이다. 크리슈나님께 전하든가 말든가, 그건 네가 결정할 일, 이제부터는 내 알 바 아니다.”

테드모는 다친 어깨를 부여잡은 채 뒤돌아섰다. 안개 속으로 흩어져 가듯 그의 모습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그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반두는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난다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비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집안을 둘러봤다. 수아나의 집은 아늑했고, 수아나의 가족들이 난다를 향해 짓는 미소는 순박하고 친근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집에는 대체로 방이 많지 않았다. 대체로 부부의 침실만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 가족 구성원의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그 침실도 환자가 생길 경우에나 드물게 사용되는 듯, 대체로 비워두었다. 그들은 커다란 마루 같은 방에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그 방의 한 가운데에 있는 화덕을 난방과 조리 용도로 사용했는데, 지붕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연기를 빠져나가게 했다. 난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수아나의 엄마는 그 화덕 위에 올려져있던 주전자를 내려 뜨거운 차를 끓여주었다. 그렇게 난다가 이 집에서 머문 지도 벌써 닷새째였다.

“지루하다는 표정이군.”

나크였다. 난다는 깜짝 놀라 자기 옆에 서 있는, 아니 떠 있는 나크를 쳐다봤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그가 보이지 않아, 누구하고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정령이 가고 오는 것을 인간에게 설명해준들 알아들을 수 있겠나?”

나크는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다가는 당나귀처럼 귀가 늘어날 것만 같았다. 정말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커진 느낌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무니에게 가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가 이곳을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흠. 이곳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을 악령의 시간이라고 하지. 그래서 문을 열 생각조차 않 아. 어쩌면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런지도 모르고. 특히 그 살해당한 남자가 수아나의 오빠하고도 매우 친한 자였다고 하거든. 살인이라니 말이야! 말세야, 말세.”

나크는 자신의 형체를 드러냈다 감췄다하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살인’, 이제 난다에게도 완전히 낯선 단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꿈에도 없었다.

나크가 그때 통역해 줬던 수아나의 오빠 수아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차크라발라라는 거대한 산의 봉우리는 모두 여덟 개였다. 그러나 너무 척박하고 험준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 파덤 뿐. 이들 원주민의 조상은 위대한 일곱 현자 중 한 명으로 짐작되었다. 차크라발라는 원래 바다 아래 잠겨있던 산으로 그 현자가 거대하고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 만큼의 땅을 개간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관계는 거대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이나 누나, 혹은 동생으로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다. 각각인 듯, 하나인 주거 형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다. 다른 대륙과 교류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몇몇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근에 잠부에서 자신을 귀족이라고 칭한 남자의 무리가 그들의 마을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차크라발라의 고유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낯설고 신기한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설탕이라는 음식이었다. 그들에게 ‘단 맛’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맛이었다. 보리와 조에서 나온 젖만이 주식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맛에 빠져들었음은 물론이다. 처음에 그 남자는 원주민들의 그런 반응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 같았다. 그는 더 많은 설탕을 제공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에겐 ‘거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들은 그 말을 그저 남자의 순수한 호의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내 그 남자는 그들에게 설탕 대신 차크라발라 산들의 철을 조금 캐 갈 수 있겠냐고 제의했다. 사람들은 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에, 모두들 선뜻 동의했다. 잠부에서 온 사람들이 철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철을 싣고 떠나는 귀족과 동행했던 것은 수아킴의 친구인 데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잠부에 도착해서야 철이 무엇에 쓰이게 될 런지 알게 되었다. 바로 무기였다. 귀족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데첸은 도대체 무기라는 것이 무엇인 지도 몰랐다고 한다. 설명을 들은 데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용도 자체에서 공포를 느꼈다. 오로지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기 위한 물건을 만들다니. 데첸은 그 길로 귀족에게 다시 배를 청해 차크라발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주민 모두 잠부로 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모았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배편에 마을 사람들의 뜻을 전했고, 그것으로 소동은 끝났다. 아니, 끝났다고 여겼다. 바로 그 데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난다는 수아나의 오빠를 쳐다봤다. 그는 동생과 함께 실뜨기를 하고 있었다. 그지없이 다정한 남매의 모습이었다. 수아나가 뭐가 잘 안 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삐쭉거렸다. 난다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며 아파왔다. 쎄라가 자주 짓던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수아나를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떠올랐다. 두 사람은 이목구비가 닮기도 했지만 묘하게 겹쳐지는 표정이 많은 얼굴이었다. 난다는 쎄라가 선물한 목도리를 아직도 가지고 다녔다. 수아나는 꼬여버린 실들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다 손을 탁 놓더니 난다에게 쪼르르 달려왔다. 그녀가 쎄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난다에게 다정하게 군다는 점이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나가 내민 손을 붙잡고 화덕 곁에 가서 앉았다. 내내 불 곁에 있던 까닭인지 수아나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살인이라니, 이곳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비는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면서 줄기차게 내렸다. 이런 날, 무니는 엄마와 함께 창밖을 보며 따뜻하고 달콤한 벌꿀차를 마시곤 했었다. 어떤 위험도 없는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살인이라니…….”

무니는 보리 짚단을 쌓아놓은 창고에 배를 깔고 누워 수리아의 검 조각을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다. 용케 벌써 세 개의 조각을 모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이 원래 자리하고 있던 아루나검도 가졌다. 바로 이것이 무니가 지금 갇혀있는 이유였다. 검을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검은 무니가 목에 걸고 있는 검 조각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튼 그 나크라는 영감의 말을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 모두 지금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는 모양이었다.

몇 달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게 무니는 무기를 들고 찾아온 외부인이었다. 물론 당장 떠나면 될 일이었지만, 데비가 또 사라지고 말았다. 무니는 ‘살인’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공포를 느꼈다. 칼키가 생각났다.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이려다 얼음의 성에 갇혔었다고 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놀랐던가. 화재로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잃어버린 후, 많은 걸 보고 겪은 무니였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나크가 그 말을 전해주었을 때 무니는 난다보다 정확히 열 배 정도 더 놀랐다. 아마 난다가 무니보다 덜 놀랐던 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이 아무도 그 살인자를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죄인을 벌하는 것은 사람도 그 무엇도 아닌 그 스스로가 저지른 죄라고 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사하여주는 것도, 대신 받아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살인자를 찾아 굳이 벌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또 살인이 일어난다면? 게다가 도대체 데비는 도대체 어딜 헤매고 다니는 것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무니는 옆을 돌아봤다. 칸타카가 선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런 칸타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 되는 기분이었다. 무니는 다시 수리아의 검 조각을 들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모양은 물론이고 각각의 성격도 분명히 달랐다.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일단 유리 영감이 그에게 주었던 작은 공깃돌 모양의 검 조각은 빛과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다음으로 칼키가 괴로움이 없는 연못에서 건져준 조각은 원래 가지고 있던 조각보다는 좀 더 작은 크기로 빛을 받으면 수정처럼 영롱한 빛을 냈다. 사막에서 있었던 일로 짐작해 보건데, 어둡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용이 사라진 자리에서 주운 검 조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처럼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 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니! 살인 사건이라도 또 일어난단 말인가. ‘데비만 나타나면 떠나자.’ 무니는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불자정보 855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암자포함)
경치가 수려하고 암자는 고찰터로경허선사, 천태종 상월조사 공부터임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암자 30평
- 산신각 3평
- 가액: 15억
010-2713-666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동방동(시장부근)
- 각층24평(3층 대웅전, 2층 극락전 각 삼존불)
- 계단, 옥상단독사용
- 목탁,염불소리 주위에 무방
- 정진,수행처로 최적 청소, 주변 정리만하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없이 월25만원,시설비 3천5백만원 (답사후 상의 절충가능)
010-7284-2003
010-6368-65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원평동 (아파트 상가 지역)
- 2층,옥상 70평
- 법당,삼존불
- 방4개, 창고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7159-9361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 삼성 일죽IC에서15분
- 대지 : 180평+국유지밭40평
- 철골조립식 1층57평 (법당20)+2층25평
- 산밑. 마을뒤. 심야보일러
- 가액 : 1억 6천
043) 881- 4916

토 지 안 내
- 충남공주시 유구읍추례리(금계산용목동)
- 지목 : 전 - 면적 : 20,03㎡(2필지)
- 가액:8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수 1동 소재함(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
- 도로, 토목, 전기공사 완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유구IC 근접
- 조망 최고임, 암자, 기도처 추천
010-2429-2069

사찰안내
- 위치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 4개,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 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여 , 엘리베이터
- 가액: 3억 8천만원 양도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도심속현대식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도로 인접)
- 대지 : 132평
- 총건평수 300평 (지하1층, 지상4층,2층 별채)
- 가액 : 몽땅 13억5천만원
010-4531-2888

사 찰 안 내
- 위치 :홍천에서 25분거리
- 산속 계곡 절벽 앞, 다리 3개 있음
- 국유지 약 3천평
- 공매입 가능
- 건평 50평
- 전체 가액: 3천 5백만원
- 2km 계곡 약초골
017-253-6892
031)641-11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조정가능)
010-8585-138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 최요지
- 포교원 25평
- 전세 시설비 포함 1500만원
010-7100-08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시장옆
- 평수 45평, 3층에 2층
- 석가 삼존불, 신중, 영단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7164-71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남구봉덕동(남구청4거리부근)
- 5층건물중 3. 4층(각35평)
- 3층.법당 삼존불 4층,공양간 방3, 주지실,휴게실
- 엘리베이트시설, 각층 , 화장실,에어컨시설 완비
- 교통편리, 신축건물임
- 보증금1천5백만원,월1백25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53)251-5188
010-8181-5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대지 약 220평
- 법당 20평 . 삼존불 요사채(가건물) 창고
- 가액 : 7천만원
010-4786-8257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탁족도(濯足圖)

중국 송나라 당시의 스님인 석법훈(釋法薰, 생몰연대 미상, 속성은 팽씨(彭氏), 호는 석전(石田))은 선인망월탁족(仙人望月濯足)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인(仙人)이 달을 보며 개울에 발담그는 풍경을 읊는다.


이경윤의 '고사탁족도'

夜靜山空月半彎 야정산공월반만
挽衣垂足濊潺湲 만의수족척잔원
無人領此深深意 무인영차심심의
別向壺中更覓天 별향호중갱멱천

밤 고요한 빈산에 반쪽 달 떠 있는데
옷 걷고 발 뻗어 개울물에 담가보네
아무도 이 깊은 뜻 알아보는 이 없어
고개 돌려 병속에서 다시 하늘을 찾네

〈벽암록(碧巖錄)〉에 보면, 한 스님이 동산(洞山) 스님에게 춥거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동산 스님은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답한다. 다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동산 스님은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답한다.

굴원(屈原)은 〈어부사(漁父辭)〉에서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발을 씻는다(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라고 설파하며, 세속의 혼탁함을 떠나 청량(淸凉)한 은일의 세계로 돌아가 휴식하는 모습을 읊었다.

탁족도는 그림 속에 술을 받쳐 들고 있는 어린 동자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 산행(山行)에서 돌아와 발에 묻은 흙과 먼지를 씻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매우 간략한 자연 풍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는데,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발을 개울물에 담그고 있는 모습이다.

북송 당시부터 화제(畵題)로 등장하여 청나라 때에 간행된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의 점경인물조(點景人物條)에 수록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를 중심으로 간간히 그려졌다. 서화의 대가들인 이경윤(李慶胤)의 전칭작인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와 이정(李禎)의 '노옹탁족도(老翁濯足圖)', 필자 미상의 '고승탁족도 (高僧濯足圖)', 조선 후기 최북(崔北)의 '고사탁족도' 등 상당수의 탁족도가 알려져 있다.

굴원이 발을 씻는 의미는 사실 혼탁한 세상을 떠나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휴식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다. 씻는다는 의미는 첫째 청결을 위해서, 둘째 치료를 위해서, 셋째는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론 종교적인 의미에서 씻기도 한다.

발을 씻는 것은 속세의 먼지 털기
탁족도는 청정 되살려 휴식 얻기

브라만교의 의식 중에는 성스러운 물로 목욕하고 죽음의 더러움을 씻는 의식이 있고, 힌두교에서는 갠지즈강을 순례지로 하여, 그 물에 닿기만 해도 모든 죄를 씻어 해탈(解脫)로 이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도는 나날의 더러움을 없애고 아침을 맞기 위한 목욕을 매일 아침의례로 삼는다.

불교에서 다르마(dharma)란 부처님 법을 나타낸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의 '법'이 바로 이 다르마를 번역한 것으로 인도어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흐르는 물에 사람의 몸을 이동하는 매개수단인 발을 담금으로써 혼탁한 속세의 분진에서 벗어나 청정(淸淨)을 되살리는 의미와 세속을 떠나 은일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탁족도에서 볼 수 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깊은 산속 흐르는 청간수(淸澗水)에 발을 담고, 좌관시사여류수(坐觀時事如流水; 가만히 앉아 세상일을 보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의 마음으로 세상을 달관(達觀)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가고 옴

뜨고진다.
가고온다.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며
마음자리를 정돈한다.
떠들지 말자.
쉬….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설암추붕 선사의 '가을 생각[秋思]'

고향 달빛 속에 스며든 그리움

節序看看屬仲秋 (절서간간속중추)
故山烟月幾回頭 (고산연월기회두)
北堂已阻斑衣舞 (북당이조반의무)
西塞還添白髮愁 (서새환첨백발수)
高樹引風殘暑退 (고수인풍잔서퇴)
小池含雨早凉浮 (소지함우조량부)
天涯流落空遲暮 (천애유락공지모)
一望鄕關恨晩悠 (일망향관한만유)

절기가 점차 한가을로 접어드는데
고향의 으스름달 몇 번이나 돌아보았던가.
어머니는 이미 색동옷 춤을 단절하였는데
서쪽 변방에서는 도리어 백발의 시름을 보태네.
큰 나무 바람을 마중하니 늦더위 물러나고
작은 못 비를 머금으니 이른 추위 이네.
하늘 끝 타향살이 공연히 저물녘에
한번 고향 바라보니 한이 끝이 없네.

설암추붕(雪巖秋鵬; 1651~1706) 스님은 스승인 묘향산 월저(月渚) 대사에게서 참학하며 10여 년 만에 선교를 모두 통했다. 이 시는 묘향산에서 늦더위가 물러나고 서늘한 바람 부는 중추(仲秋)에 멀리 타향살이에서 마주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에서 비롯된다.

저 노래자(老萊子)가 일흔 살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늙은 어버이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 어버이를 즐겁게 했지만 자신은 보아줄 어버이가 계시지 않음이 섧다. 10세에 출가해 백발이 된, 특히 오늘 같은 중추절에는 고향의 달빛 속으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촉촉하게 스며든다. 할애사친(割愛捨親)한 출가자에게 속세의 정은 놓아버리고 끊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스님의 효심에는 출가자의 본분인 제도해야 할 인연이라는 생각도, 인정(人情)을 다스려야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머리가 허옇게 센 스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박함과 순수함 그대로인 아련함 그리움이다. 치문(緇門)에서 한 세상 살다 늘그막에 찾아드는 부모에 대한 정(情)은 스님에게 있어 순환하는 사계(四季)처럼 찾아드는 자연스러운 질서요 현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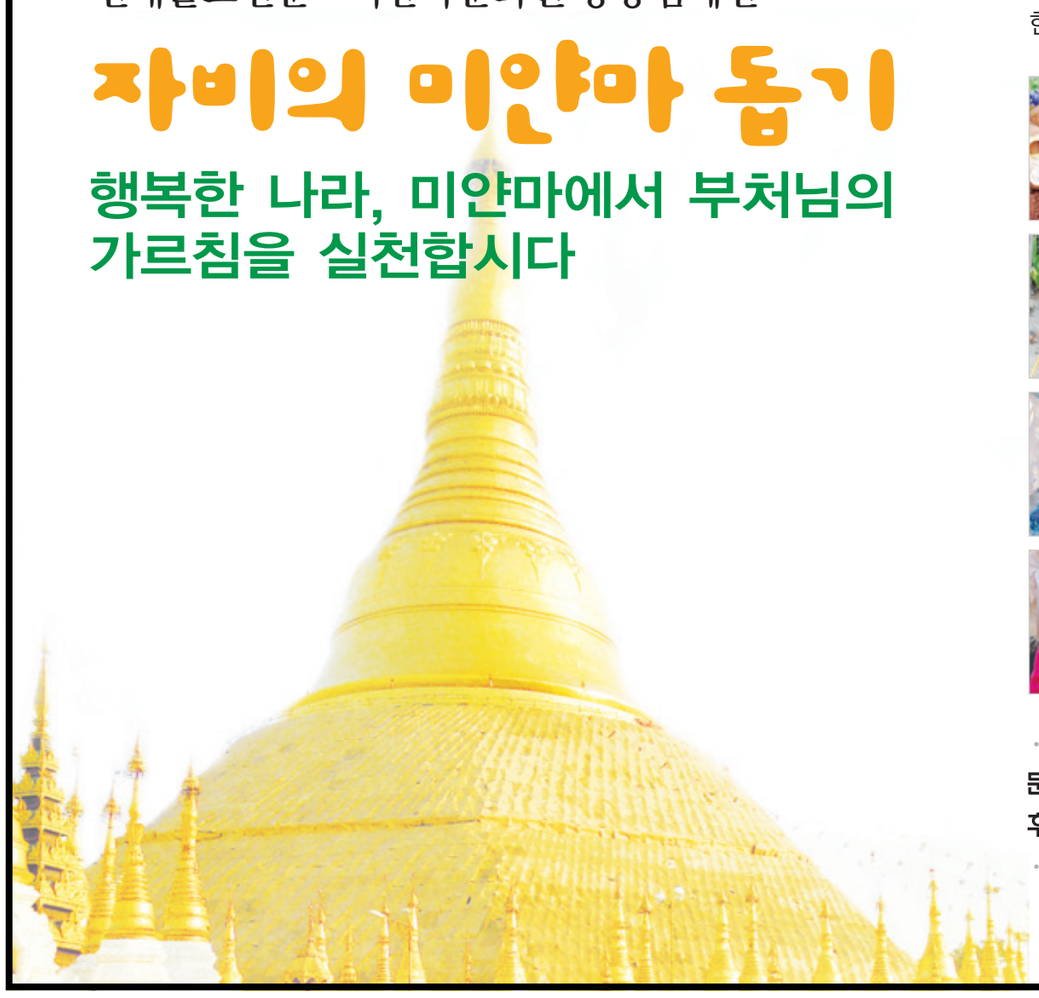
또 걸림 없는 한(恨)으로 승화된 보살의 자비심이며 무주착(無主着)의 선심(禪心)이기도 한 것임을 어지간한 수행자는 곧바로 알아채리라.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마음은 마음이 다스려야지 말로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발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대불교신문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한 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모두 인연 닿는 대로 구독을 하게끔 여러분이 권유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행회장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징검다리를 놔 주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하면서, 이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을 하는 컴퓨터를 쓰지만 앞으로는 입력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컴퓨터를 쓰게끔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불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발전하는 시대를 뒤따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실천궁행을 수범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지, 공(空)에 빠지거나 물질에 허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자재할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 아니게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스스로 그 빛을 발해라 하신 것입니다. 만물만생이 다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또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불(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한마음으로서 한바다에 들어서, 그 바다 가운데서 불뚝 솟아서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먹여 줄 수 있고, 먹여 주고도 되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부는 이 공부 밖엔 없습니다.

또 신행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견지동(한마음 불교회관)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고 거둬서…,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알게 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끔 보시하는 것도 더러 있지만, 장학금이라든가 많은 보시들을 지금 우리 선원에서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가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뭐든지 공개하고 주게 된다면 나부터라도 창피하고 괴롭게 생각되고 모자라고 어리석다고, 자기가 자기 원망을 무수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이 모르게, 공개하지 않고 이끌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만 일체 한마음은, 일체제불의 마음은 아마도 다 잘 알고, "허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구나! 참 착하다, 착하니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뜻으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공개했다가 만약에 잘못 받아들여지면 정말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행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건 스스로 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뿌리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그렇게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회의를 갖더라도 견지동 장소를 찾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데서 나오고 저런 데서 나오는 것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가져오시는 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되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덩어리를, 고(苦)의 덩어리를 갖다가 준 것을 만약에 함부로 아무 데나 쓴다면, 그쪽 고덩어리도 제거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고를 면치 못할 겁니다. 고를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 이치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돈이 고덩어리로 보이고 돌로 보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좀더 생각한다면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다면, 발 편안히 공부할 수 있고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참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사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찰나에 옷을 벗으면 금방 그냥 오간지옥에서 데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자기 살던 차원에 따라서 그냥 모습을 쓰고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운 거보다도 나 하나면 족하지만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내 배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씨앗이 전부 그 뿌리를 좇아서 악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또 바깥으로 배출해 낸, 즉 말하자면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면 그 구덩이에 역시 또 좇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부처님의 법이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법과 부처님의 법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면서 증명해야 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느껴야 하고, 스스로 감지해야 하고, 감응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형제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 겸 서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되, 알더라도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나 하나가 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더불어 하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더불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더불어 듣는 거고, 가고 오는 것도 더불어 가고 오는 것이고, 움죽거리는 거 하나하나, 마음내는 거 하나하나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 가운데에 바로 참 너가 허공에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처님의 뜻이고 이에 순응하되, 우리는 시대를 또 무시 못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내 마

☞ 30면으로 계속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음을 깨닫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는 그 자체…, 저 나무뿌리를 보세요.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해드리듯이 나무뿌리에 의해서만이 싹이 살고, 나무뿌리가 싱싱해야 바로 나무 싹이 싱싱해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의 말씀이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는 제 나무를 서로 위하면서 상응하고, 정맥 동맥이 서로 돌아가듯 함으로써 일체 만물만생에게 만 가지 맛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문 구독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불교신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계의 계발을 시키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 사찰의 어떠한 비리를 파헤쳐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신계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주 평등한 법으로써 불교를 숭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허허허…,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으로써 생산력이 아주 화산처럼 터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흉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를 회의하는 장소로 쓰고, 아끼지 말고 전부 구독을 시켜서 그 구독자로 하여금 이익이 갈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합장하시며) 한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들 하십시오. 적어서 가지고 오지 마시구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1(남):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구체신증후군이라는 종합병원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방과 양약으로 치료한 결과 지금 양쪽 콩팥이 다 망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피를 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까지 나빠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제가 좋은 말씀을 대리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뜻으로서 둘 아니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 싹이 딴 싹과 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내 뿌리에 에너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 그게 업식입니다.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업식입니다. 이것이 왜 업식이냐고 한다면 앞서 다 설법을 해 드렸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업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듯이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그게.

그런 거니까 단지 자기 참주인공의 선장밖에는 그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다스려야지 말이 다스릴 수가 없고 이론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주인공 그 자체 뿌리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네 시자인 육신을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기십시오. 진실히 맡겨야 거기에서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작용을 해 줍니다. 거기서 작용을 안 해 준다면 아무리 병원에 가서 100% 낫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내 속에서 내 생명체들이 작용을 안 해 준다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나를 이끌어 가는 영원한 나의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나를 낫게 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애당초에 피를 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거르는 것을 일 주일에 한 번 거르다가, 이 주일에 한 번씩 거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그건 본인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딴 사람이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돌아다보아야 주인이 있어서 네 집을 지킬 수 있느니라.' 하고요. 집이 비었으면 영계가 천차만별로 드나들어! 그래서 내 집이 망가지고, 내 일이 망쳐지고, 내 하는 일이 안되고 그런 거지만 내 집에 주인이 있다면 감히 어디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과학 하지만, 그 과학을 깨뜨려야 진짜 과학이 나옵니다. 고정되게 못을 박아서 개념화하는 과학을 해체시켜야만이 진짜 과학이, 천차만별의 과학이 터지게 됩니다. 이 진짜 과학적인 것, 심성의학이라든가 심성과학 또는 심성천체물리학 · 심성천문학 · 심성공학 · 심성철학 등 모두가 다 한군데서 배출됩니다. 움죽거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시키기만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모든 분야가 배출됩니다.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구해서 다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지 누가 고칩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면 주인이 고쳐야지, 딴 사람이 와서 고쳐 줍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하고, 제 뿌리는 제 싹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례로 돼 있죠. 나무 뿌리는 수분과 지분, 철분을 위로 공급하고, 위에서는 태양력과 공기력을 또 흡수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탄지탄하시지 말고,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탁 맡기시지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우가 정해지죠, 차원이 정해지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모습을 가진 생명들이라면 그 대접밖에는 못해 주는 것이지 인간 대접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차원도 스스로 기르는 거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고 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2(남): 큰스님, 이렇게 친견하게 돼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천만 불자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는 참선을 통해서, 또 혹자는 염불을 통해서, 또 혹자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갔을 때는 어느 스님께서 17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한마음선원에서는 모두 이 한마음의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천만 불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큰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큰스님: 예, 행주좌와 관법(行住坐臥觀法)으로! 허허허….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돌아갔지만, 그게 먹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겉돌아서요. 왜 겉도느냐?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데다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겉돌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를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란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허허허….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지. 보세요,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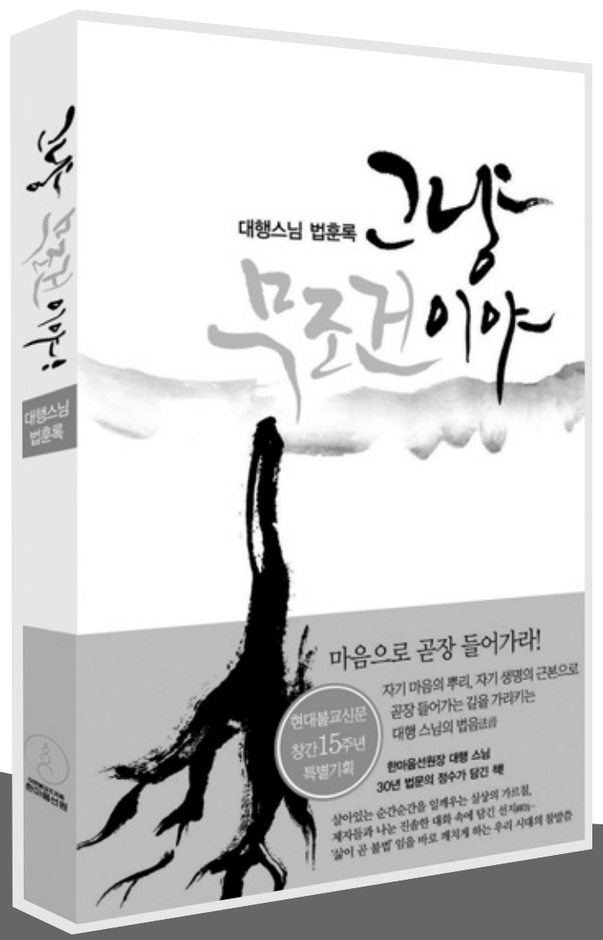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마음 처에 같이 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 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음앉음이가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五戒)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엄마, 이명박은 나쁜놈이래"



신승철
큰사랑노인전문병원장

저녁식사 중 중학교 1년생인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명박은 나쁜놈이래." 엄마는 섬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년생들을 놓고, 때 이르게 사회적 적개심을 부추기는 게 도리에 맞는가. 엄마는 내심 불안했다. 이러다 우리 애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엄마는 전화로 학교에 항의까지 해 봤으나, 맥이 빠질 뿐이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언론을 통해 어제나 오늘도 간간히 이런 유의 소식을 접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지만, 사문화가 된 것만 같다. 요즘 일부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박정희 前 대통령은 진짜 나쁜 놈, 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일만 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선생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모두 쓰레기라며 핏대를 올리곤 한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사들의 생각 저편에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신념,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려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주 정신 같은 게 있을 거라 짐작된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그런 표출 행동은 분명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학교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찢어질듯 한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근·현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극좌파는 대체로 지적 엘리트 집단으로, 반국가적 선동에 있어 흔히 유토피아적 '주의'를 내세웠다. 예를 들면 볼셰비키혁명이나 마오주의자 등이다. 국가 정체성에는 민족주의나 공동체의식 같은 게 깃들어 있다. 하나 극좌파들은 민족주의를 '부정적' 의미로 곧잘 연결시킨다. 폐쇄적 의미의 민족주의를 상기시킨다든가, 민족의 '이름'으로 다른 모든 가치를 굴복시키는 일 말 이다. 극좌파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란 대체로 외견상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엔 사실 지적 허영심이나 과도한 자부심이 도사린다. 누구나 공감이 되는 평등주의를 지향하나, 그 내면엔 스스로가 평등치 못한 경직된 권위주의가 발견된다. 국가나 사회를 '폭력적' 구조로서만 인식하면, 그 투쟁의 방도는 결국 힘을 위한 힘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그 신념의 합리화나 정당화가 뒤따른다. 알다시피 대중은 그 순진함으로, 편협하지만 그럴듯한 합목적성 수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집단이나 인간은 '사탄'으로 악마화 시킨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심리기저에 '수용'이란 말은 오히려 자기분열이나 혼돈을 야기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독재 정권 시절, 억압과 원한을 겪었던 기억은 우리의 집단 역사의식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 에고(자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는 곧 바로 가해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전환된다. 악을 미워하는 심리는 일정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 악을 비난함으로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와 더불어, 그 우월감 속엔 자신은 전혀 악하지 않다는 생각도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 격언에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를 더 잘 한다"는 말이 있다. 시어미는 독재 권력으로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더 악해질 수 있다. 자신의 악으로부터 도피한다는 자각을 못한 채 말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정치적 원한의 심정을 투사하는 것은 분명 바른 교육에서 벗어난 일이다. 어린 학생들의 사고를 독점, 노예화시키려는 의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행태는 우스꽝스럽고, 미숙한 엘리트 의식을 거칠게 드러내는 것이다. 교사에 따라 교육 방식에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실에 대한 탐구를 독려하는데 있다. 이게 진보적 의미의 교육관이리라. 역사나 사회의 실상을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의식의 자각을 통해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북돋워 주고, 뭐든 수용 할 줄 아는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참 교육의 궁극적 목표 아니겠는가. 일방적 비난이나 판단의 강요란 바로 '뭐든 내가 옳다면' 독재나 폭력적 언동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것과 진배없다.

사부대중 칼럼

시간을 아쉬워 하는 한여름 매미처럼



정율 스님
성악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스님 집엘 갔더니 근처에 논이 있어 그런지 개구리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려왔다. 나는 스님께 "스님 참 좋은데 사는 것 같다" 했더니 그 스님은 나더러 "세상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개구리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길래 나는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번 여름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아침 단잠을 깬다고 불평을 한다고 들었다.

때론 화통을 삶아먹은 기차소리 같긴 하지만 몇 년을 기다려 이 세상에 나와 짧은 시간동안 서로의 인연들에게 세레나데를 보내려 안간힘을 쓰는 매미에게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

만약 사람이 입은 있으되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는가?

저들의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생각 자체를 바꾸어 들으면 좋겠다.

더구나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매미들이 많은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 비가 오면 뚝 그치고, 비가 잠시라도 멈추면 죽어라고 노래하는 매미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 싶어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난다.

'나의 노래도 언젠가는 매미의 처절한 노래처럼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왠지 우울해지려 한다.

이제는 매미가 빈 껍질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할 시간…. 나도 고독의 허울을 쓰고 이 가을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고 싶다.

내 살갗을 간지럽히듯 소리 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바람의 노래 속에 한껏 빠져 들어가고 싶다.

모든 번뇌 망상을 단풍에게 다 안겨주고 깨끗하게 비누질하듯 욕심과 집착을 싹 씻어내어 버리고 나의 혼을 사를 수 있는 노래속 세상 그 삼매에 젖어 들고 싶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어우러져 삼매에 빠져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산사음악회다.

깊은 산속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사음악회로 하여금 TV에서만 봐오던 가수들을 보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몇 년 전 영동 반야사에서 산사음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행사의 끝 순서로 필자를 넣고 기다린다기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 간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그리 멀지 않은 길에 차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정말 차를 버리고 그냥 두발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급한 마음에 가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절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겨우 절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음악회를 마치는 멘트가 나가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맥이 빠지고 황망한지….

할 말이 없었다. 주지스님께 찾아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 나가면서 내게 몰려와 인사를 주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욕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무리한 행사 약속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사실 주지스님께 죄송한 마음보다는 나의 노래를 찾아 먼 길을 오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다.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로 엮기 위해 간절한 노래를 부르려 애쓰는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살아가면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두 가지를 조금만 조절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가을 누가 지시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둘씩 옷을 벗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빈 마음으로 살고 싶다.

단풍이 하나 둘씩 물들어 갈 때 그 잎들에게 애원하듯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그 붉은 잎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안아서 떠나시면 안 되냐고, 그 단풍에 번뇌 망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액운을 모조리 쓸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냐고….

수행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묵묵히 계절의 흐름에 순종하며 빈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社說

잘했지만 뭔가 아쉬웠던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87회 임시회가 9월 20일 폐회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조계종 사찰의 등록·관리의 기준이 되는 사찰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됐다. 또, 승려법 개정을 통해 승랍기산 피해자 2000여 명이 구제 받을 길이 열리고, 포교원장 선출 등 인사 관련 건도 대부분 순조롭게 마무리 되며 제법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과된 법들은 대부분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들로 특위 내부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친 까닭에 본회의 통과가 수월했다는 평가가 많다. 의회 정치에서 소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 특권을 축소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이 부결된 것은 아쉽다.

법리에 밝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이 독립된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판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다.

불징계권은 과거 부당하게 억압하던 집행부에 굴하지 말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특권화 된지 오래였다.

출가자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 스님들이 왜 불징계권만은 방하착(放下着)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불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왜 불징계권 조항만은 변화하지 않는지도 궁금해 한다. 차기 종회에서 다시 답해주길 바란다.

교구본사스님들의 실천을 기다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또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총무원장 취임 후 세 번째 방문이다. 9월 21~24일 진행된 이번 일정에는 조계종 스님들 대신 7대종단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당초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위상 운운하지 않고, 정치적 포석을 헤아리지 않더라도 자승 스님 등 남측 종교인들이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은 적어도 북측이 종교인들을 홀대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JTS가 27일 북한으로 밀가루 300톤, 두유 36만개, 이유식 10톤, 탈지분유 2톤, 전지분유 30톤, 영양강화식품 33톤 등 컨테이너 50대 분량의 식량을 지원했다. 이것들은 평양과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으로 전해져 9개 시·도 53개 시설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의 1만2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불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5일 남북합동법회에 참석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대북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다짐을.

불자들은 보고 있다. 22일 금산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더 내달라는 총무원 측 요청을 (차라리) 종단수익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겠다며 완강하게 물리쳤던 모습을.

불자들은 바란다. 큰절 주지스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아에 허덕이는 중생을 위해 흐지부지 지체 말고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다섯가지가 있다. 받들어 봉양함에 모자람이 없게 하며, 부모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말며, 부모가 하시는 바른 직업을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선생경 -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오늘은 좋은 날

불교TV에서 3년간 진행했던 '정율 스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교실' 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곡들을 모은 3집 앨범 '오늘은 좋은 날'



성악가 스님으로 불자들에게 알려진 정율 스님. 미국에서 5년간의 음성포교를 마치고 귀국하며 발표한 이번 앨범에는 '무상', '길을 갑니다',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12곡이 수록됐다.

정율/1CD/13,000원/솔미디어

법열

'레이키 마스터' 이자 '요가 시로마니' 인 암비카 데비의 만트라 챈팅, 티벳, 인도, 쿤달리니 등 요가와 영성수련에 효과적인 만트라 음악



신, 진리, 지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 법열의 순간 느끼는 자유, 평화, 지복과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연주. 티벳, 인도, 북미 인디언 등의 만트라 챈팅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암비카 데비/1CD/15,000원/콘텐츠코리아

영혼의 울림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중 하나로 손꼽히는 '당신은 나의 운명' 의 가수 하윤주의 찬불가 메들리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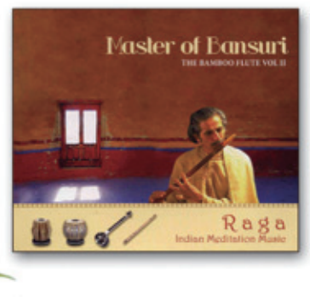


'영혼의 울림'이라는 이번 앨범에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얼마나 닦아야 겨울 마음 닮을까', '바람 부는 산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찬불가 합창곡들만을 모았다.

하윤주/1CD/15,000원/파워레코드

라가 (인도 명상음악)

인도의 대나무 플룻악기 '반수리' 연주 명인 사츠데브가 들려주는 '삶의 해독제' 같은 인도 명상음악 라가(Raga)



우주 에너지의 변화를 반영하여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다른 곡을 연주하는 인도의 명상음악 라가(Raga)는 혈액의 정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사츠데브/1CD/15,000원/콘텐츠코리아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불교명상CD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이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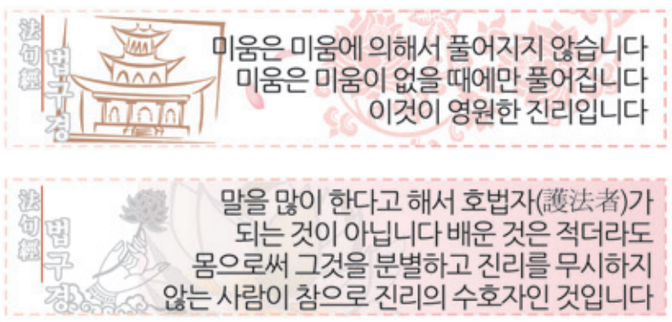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명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